

건축사

大韓建築士協會誌

1974—1

松廣寺 道成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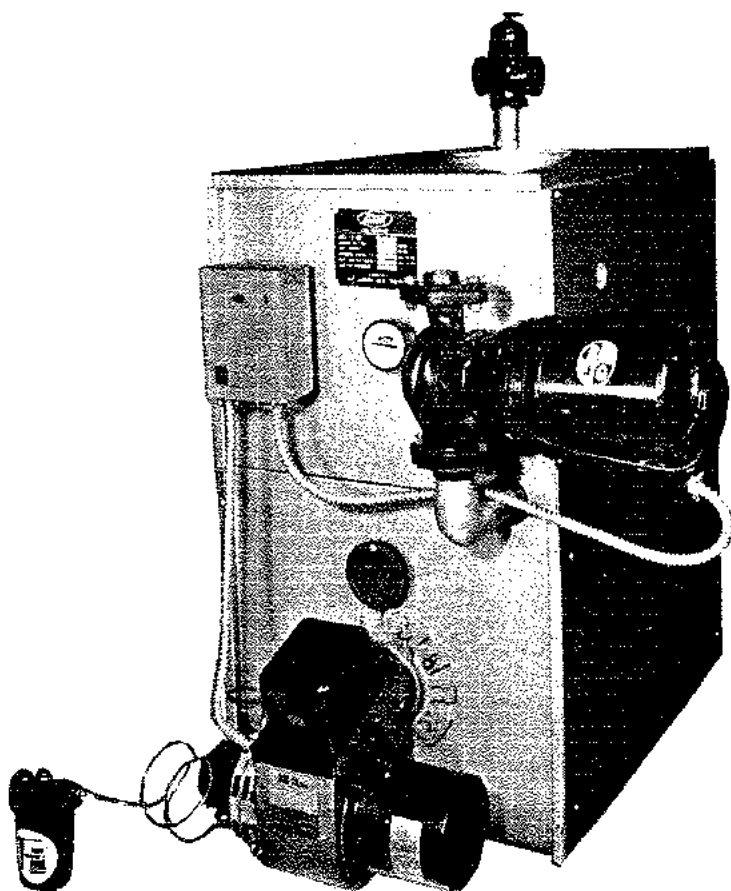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 난방 / 급탕 겸용 ※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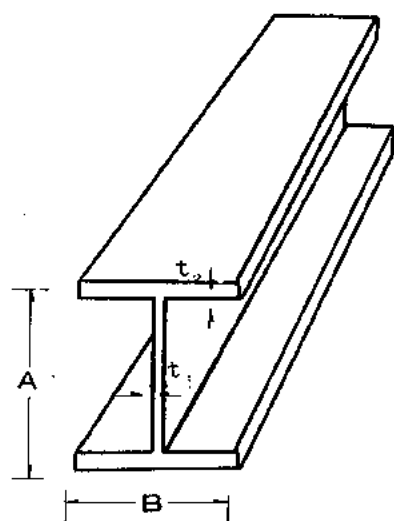


유티카 商事

서울 · 中区 忠武路 4 街 126 의 1 號
 進洋商街 라 102 號

TEL. 26-2026, 2807

H型鋼 (H-BEAM) 營業案內



★生產規格

A	B	t ₁	t ₂
150	100	3.2	4.5
200	100	3.2	4.5
200	150	3.2	6.0
200	175	3.2	6.0
250	150	3.2	4.5
250	150	4.5	9.0
300	150	4.5	6.0
300	150	4.5	9.0
300	200	6.0	9.0
350	200	4.5	9.0
350	200	6.0	9.0
400	200	4.5	9.0
400	200	6.0	9.0
450	200	4.5	6.0
450	300	6.0	9.0

※ 其他 各種 規格은 注文에 應함.

★ 製品의 用途

- | | | |
|---------|----------|-----------|
| 1. 工場建物 | 6. 鑛山 | 11. 體育館 |
| 2. 各種倉庫 | 7. 橋梁 | 12. 企業農 |
| 3. 造船施設 | 8. 高速道路 | 13. 機械設備 |
| 4. 港灣施設 | 9. 鐵道事業 | 14. 앵글및찬널 |
| 5. 住宅 | 10. 商街店舖 | 15. 鋼管對替品 |

★ 型鋼材建築의 有利性

- 坪當 建築費가 他資材에 比하여 싸다.
- 建物이 堅固하며 耐久性이 높다.
- 施工이 容易하며 工事期間이 짧다.
- 斷面性能이 優秀하여 强度가 높다.



日新製鋼(株)

本社：서울特別市中區忠武路 2 街 64 의 5
工場：仁川市 北區 佳佐洞 180 의 28

電話 2040
3 0370 3 2951 3 8711~3

總販：日新鋼管販(株) ② 2636
2163
③ ~ 6
昌和鐵鋼(株) ② 2416
② 6267

建築士

'74
1

通卷 第62号

U. D. C. 69/72(054-7) : 0612(519)

1974년 1월 31일 발행

編纂委員會

委員長 吳雄錫
委員 金仁錫
馬春景
宋鍾奭
前景哲
劉熙俊
尹道根
李廷德
李昌敏

■ 表紙：全南 松廣寺 道成堂

撮影：元大淵

■ 表紙説明

松廣寺는 天下三寶의 하나로서 이름 높은 寺刹이며 新羅末 慈林에 의해 創建되어 修禪寺라 이름하였던 것을 西紀 1208年 王命으로 松廣寺라 改稱한 것이라고 傳한다.

여기에는 道成堂 以外에 國寶 56號의 國師殿을 비롯 藥師殿, 靈山殿, 下舍堂等 建物이 重要하며 많은 指定 文化財를 가졌다.

建物は 建立年代는 確實하지 않으며 高麗末에만 說이 있으나 建物の 様式으로 보아 李朝 初期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所在地：全南 昇州郡 松光面 新坪里

新年辭	韓昌鎮	(2)
新年有感	李根痒	(3)
協會記事		(4)
建築界動靜		(9)

韓國建築文化의 特徵	尹張燮	(18)
防災에 대한 小考	李沘然	(24)
國立劇場 計劃設計에서 竣工까지	李喜泰	(31)

■ 紀行文

濠州 및 東南亞紀行 ②	崔昌奎	(42)
--------------	-----	------

■ 隨想

C君에게	安秉義	(52)
建築雜感	公日坤	(58)

■ 會員作品

釜山市民會館	申玉崗	(26)
光州共販場	金泰萬	(28)
경산 인터체인지	金寅培	(30)

■ 海外建築

美國의 廣場	外誌에서	(5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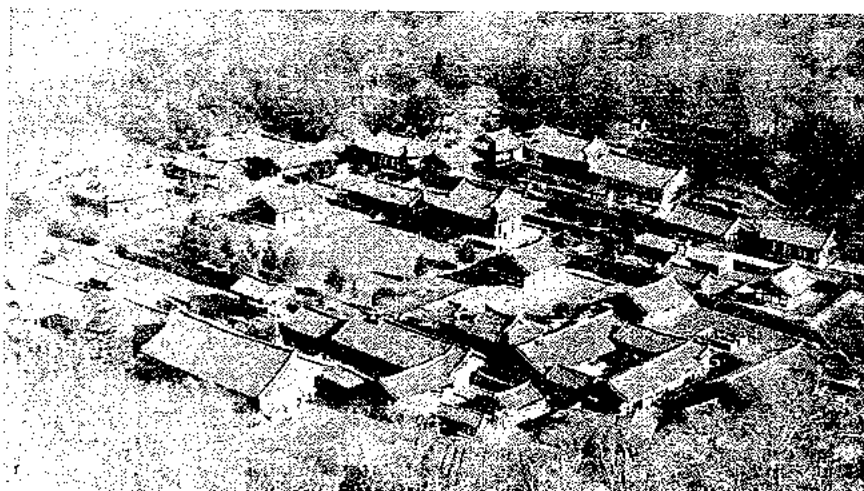
■ 資料

建築法規 問題選⑤	韓鼎燮	(69)
-----------	-----	------

火災로 인한 災害 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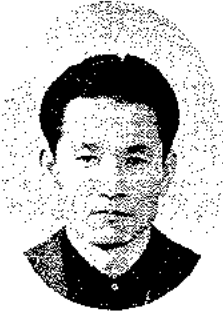
改正令 (72)

1973年度 總 目次		(78)
-------------	--	------



新年辞

韓昌鎮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새 出發이라는 意味—힘과 뜻과 지혜를 모으는 해에, 흔히 惡循環의 連續이 지겨워지면, 새 出發이라는 말들을 쓴다.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覺悟와 決心을 새로히 한다는 意味로도 새 出發이라는 말을 쓴다.

때로는 自己奮發이나 自己伸張을 위한 念願을 信念化하기 위한 契期の 設定으로도 이 새 出發이라는 말은 쓰인다.

어떠한 意味로든 相関은 없을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하는 契期라도 좋다.

가장 가까울 수 있고, 가장 무관할 수 있고, 제일 멀어올 수도 있는 處地의 사람들이 한데 뭉칠 수 있고, 한술에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協力하고 도와나갈 수 있는 바탕이 그토록 切實하고 그리워서, 하나의 다짐으로 새 出發을 期하고 싶은 다름이다.

過去야 어떻게든 상관할게 없다.

어떻게해서 이루어졌든 그 沿革 또한 알아 없다. 卽 새 出發이며 새로운 行進의 始作인 것이다.

然이나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물러나고, 새사람과 그모임에 의해서 새 出發인 것이다.

보기에는 誤解도 있을 수 없고 over sence도 必要없다. 다시 始作하는 出發이라는 뜻이다.

흔히 決斷은 어려운 것이라고들 한다. 하나의 組織을 이끌기 위한 사람치고 한가지 일의 決斷이라는 것은 새 出發의 決心이라는 이야기로도 通한다. 그릇된 決斷이란 破滅을 뜻하기 때문이다.

Leadership이란 独裁나 独善으로도 完全하지는 못하다. 거기에는 人情도 必要하고 유모어도 있어야 하고 보살핌도 必要하다. 勿論 理知的인 熟考나 冷徹도 必要하고 說得力이나 人間的인 基盤도 不可欠의 要素가 될 수 있다.

結局 그것은 서로의 믿음과 理念의 共鳴으로 비로소 眞正한 묶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름지기 모든 일에 先行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슬거로 한뜻이 되어 힘을 모으는 일이다.

거기에서 지혜로운 決斷이 나올 수 있고 推進의 힘이 솟을것이고 誤解와 유대를 엮어주는 和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도 트일 것이다.

모든 것이 뜻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꿈과 意慾으로 努力을 다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忖히 아름답고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 앞에 光明은 올 것으로 믿는다.

억눌리고 버림받아온 지난 날을 보내며 담담히 知惠롭게만 새해를 맞자.

새해에는 모름지기 제구실을 다해보고 싶다.

新年有感

새해에는 더욱 宝業 의 繁榮이...

李 根 痒

大韓建築士協會
慶尙北道支部
支部長



甲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의 寶業의 繁榮과 高堂의 萬福이
갓드시기를 삼가 祈願하는 바입니다.

不肖 이사람을 지난 第8回 定期總會에서 또다시 支部長職을 맡겨주
신 會員 諸位에게 于先 會誌를 通해서 感謝드립니다.

도리켜 보전대 저는 建築士協會가 創設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
곧 支部長職을 担任하고 있었던 緣由로 저自身이 協會初創期の 艱難을
누구 못지않게 뼈저리게 體驗하였다고 自負합니다.

때로는 支部長職을 그만 두어야겠다는 諦念도 해 본일이 한두번이 아
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自身도 모르게 勇氣를 내었고 또 歷代
任員陣의 아낌없는 忠告와 獻策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맡겨주신
저의 職策을 大過없이 맡아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現時点에서는 建築士協會가 그間 8個星霜이라는 貴重한 年輪
을 쌓아나가는 가운데, 本部를 起點으로하여 支部에 이르기까지 어느程
度 體制를 갖춘 設立基盤이 構築되었고, 發展途上에 있다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半素 “나만아 아니면 안된다” 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
람”이라는 民主通義에 어긋나는 無謀한 思考方式은 한번도 가진바 없었
습니다.

年老益壯이라는 말도 있으나 不肖이 사람은 이미 老齡期에 있고, 너무
나 오랫동안 支部長職을 맡아왔든 緣由도 있고해서, 今般 任員改選期에
는 本人 自身을 爲하여 또 協會將來發展을 爲하여, 勇退하는 것이 賢明
한 일이라고 저 나름 대로 判斷하고 씩씩한 氣象과 進取性있는 새 일꾼이
後繼者로 選任될 것을 愈願하고 그러한 마음 가짐에서 今般 支部長選舉
에 臨하지 않으려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結果的으로는 저의 愈願과는 달리 多數會員諸位의 熱熱한 支
持로 不肖 이사람에게 또다시 支部長職을 맡겨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저自身の 現實의인 人事問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間 深
思熟考한 끝에 既往 民主方式에 의거 決定되었다는 嚴然한 既定事實에
承服한다는 것이 團體生活의 鉄則이며, 또 家事後 國事라는 倫理觀念에
서 맡겨주신 저의 職責을 過去 7年間의 試鍊과 經驗을 土台로 삼아 任
員陣과 協心團結해서 誠實히 奉公할 것을 이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의 저의 몇가지의 所信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저
합니다.

1. 自己의 一方的인 固執과 唯我獨尊의인 思考方式을 버리고, 서로理
解와 妥協으로 本部 또는 支部運營에 參與한다는 氣風을 造成하는데 努
力하겠습니다.

2. 우리들의 建築職은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偉大한 職業이라고 自
負하고 있고, 그만큼 이에 對應한 待遇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現實
的으로는 正當한 待遇를 못받고 있다. 그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 잘못의 要因을 分析判斷해서 우리들의 團結된 힘으로 除去하는데 앞
장서겠습니다.

끝으로 會員諸賢의 끊임없는 愛護와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理 事 会 —

제18회 이사회

일시 : 1973. 12. 26(수) 16:00~21:00

장소 : 회의실

출석 : 회장 한창진, 이사 김지태, 이춘상, 이규복,
이명환, 오웅석
서울지부장 김만성

1. 보고사항

- 가. 서울특별시지부 소속 김만준 회원 징계 (견책)처분 통고(12. 6)
- 나. 본회 임원 담당부서 각지부에 통보(12. 7)
- 다. 국립건설연구소 발간 건축기술 정보 각시도지부에 발송(12. 11)
- 라. 임원 변경 등기 완료 각시도지부에 변경 등기.수속시달(12. 12)
- 마. 크리스마스 쉼 모금계획에 따른 건설부장관 지시 각시도지부에 이첩시달(직원봉급의 1 % 각출, (12. 12))
- 바. 정기간행물(회지 건축사)등록사항 변경을문 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발행인 겸 편집인을신 임 한창진 회장으로의 변경 신청(12. 13))
- 사. 전남지부장의 건축사업부의 보수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회신내용: 조적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변경 할때는 보수기준 제 18조의 주기 규정에 의거 설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회신. (12. 18))
- 아. 경기도 및 충북지부장에게 실적회비 초과징수에 대한 환불 지시 공문 발송(12. 18))
- 자. 제11회 편찬위원회 개최(12월호 회지 편집계획 내역 검토. (12. 19))
- 차. 포항시에서 73. 12. 1~74. 2. 15. 까지 신규건축허가 보류에 관한 시정 건의서 제출(12. 21)
- 카. 외국건축사의 국내 설계용역 방지조치 각시도지부에 시달(12. 21)

타. 각시도지부장에게 건축사 등록취소 통지(12. 26)

(강원도지부 소속 2 급건축사 배기웅 건축사법 제 4 조 위반으로 1973. 11. 20 강원도 지사로 부터 사무소 등록 취소)

코. 1974년도 세입세출 예산(각시도지부 포함) 승인 신청서 건설부에 제출(12. 26)

2. 부의 안건

- 가. 충북지부 관내 영동분소 승인 신청에 관한 건(지도담당이사가 현지 내용을 충분히 조사한 후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결의)
- 나. 1974년도 각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기획위원회

위원장 : 이춘상

위 원 : 서울특별시지부장·김만성

- " 부산지부장 김규태
 - " 경기도지부장 정은용
 - " 충남지부장 김종민
 - " 전남지부장 채규당
 - " 경북지부장 이근상
 - " 서울지부 성일영
 - " 이승우
 - " 이장복
 - " 한용섭
 - " 송관식
 - " 김두섭
 - " 이홍수
 - " 김봉훈
- (이상 15명)

윤리위원회

위원장 : 이규복

위 원 법률고문

- " 건설부법무관
- " 이해성 (한양대 교수)
- " 한정섭 (주택은행 기술부장)
- " 안영배 (경희대 교수)
- " 한광수

(이상 7 명)

편찬위원회

위원장: 오웅석

위 원 마춘경

" 이정덕 (고려대 교수)

" 윤도근 (홍익대 교수)

" 송중석 (연대 교수)

" 유희준 (한양대 교수)

" 이창민

" 유경철

" 김인석

" 김한섭

" 안인모

(이상 15명)

다. 협회 회장 각인 조각에 관한 건

(총무이사 및 총무담당 이사가 의논

하여 인장을 조각 하기로 결의)

제1 회 이사회 (1974년도)

일시: 1974. 1. 5. (토) 14:00~18:30

장소: 회의실

출석: 회장 한창진, 이사 김지배, 이춘상, 이규복, 이명환, 오웅석

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지배

위 원 최 선 (국회 건설전문위원)

" 태범식 (건설부 주택관리관)

" 황의균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위원)

" 대한건축학회 장

" 한국건축가협회 장

" 김형걸 (서울공대 교수)

" 홍봉희 (한양대 교수)

" 장기인

" 김재철

(이상 10명)

1. 보고사항

가. 제10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명단 작시도
지부에 송부

(1급 59명, 2급 119명 합격. (12. 29))

총 면허취득자 3118명

1급-1451명

2급-1667명

나. 소방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12. 29)

다. 서울지부 소속 회원 서울시장으로부터 터
행정조치처분

(이환명 73. 12. 24~74. 1. 20까지영업정지)

업무연구위원회

위원장: 이명환

위 원 김영철 (건설부 건축기좌)

" 이문보 (동대 교수)

" 이준용 (국세청 조사지도과)

" 박인호 (감사원 건축담당관)

" 최덕보 (건설부 감사실)

" 장태수 (건설부 건축기좌)

" 심두한 (서울시 건축과장)

" 홍사필 (건설부 사무관)

" 이지연 (경찰소방학교 교학과장)

" 박봉현 (한국화재보험협회)

" 김익태 (한국세무사협회 총무부장)

" 김동규

라. 건축가협회 주최 동계특별강습회 수강안내
공문 각시도지부에 발송(1974년 2월중 10일간
실시예정)

다. 회지 건축사 발행인 겸 편집인 한창진으로
변경 등록 공문 및 등록증접수(12. 31)

바. 회지 건축사 12월호 원고 인쇄 송부
(소방법 시행령 전문 게재(12. 31))

2. 부의 안건

가. 제1회 전국 지부장회의 개최에 관한 건

(지부장회의 1974. 1. 19. 14:00

사무장회의 1974. 1. 20. 10:00 개최기로 결의)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咸泳殷(韓一建築研究所)

所在地: 城東區 박포동 111-2

TEL. 54-3046

登錄番號: 2-306

登錄年月日: 1974. 1. 8

入會年月日: 1974. 1. 10

黃義珍(三一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 城東區 중곡동 240-3

TEL. 55-2493

登錄番號: 1-571

登錄年月日: 1974. 1. 14

入會年月日: 1974. 1. 17

朱在根(나바建築研究所)

所在地: 中區 水標洞 56-9

TEL. 27-1941, 26-3460

登錄番號: 1-566

登錄年月日: 1973. 12. 5

入會年月日: 1973. 12. 7.

宋成鎬(신석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城東區 신사동 467

TEL. 96-9959

登錄番號: 1-567

登錄年月日: 1973. 12. 6.

入會年月日: 1973. 12. 17.

朴瑛夏(京新建築公社)

所在地: 中區 乙支路 2 가 74-2

TEL. 24-4069

登錄番號: 1-568

登錄年月日: 1973. 12. 12.

入會年月日: 1973. 12. 15.

양치병(문화건축연구소)

所在地: 城東區 신사동 467

TEL. 52-7210

登錄番號: 2-203

登錄年月日: 1973. 12.

入會年月日: 1973. 12. 27.

事務所移轉

이명환(유신특수설계공단)

移轉地: 中區 乙支路 2 가 101-17

TEL. 27-1008

登錄番號: 1-1

조영락(한샘건축연구소)

移轉地: 鍾路區 世宗路 111

TEL. 38-4082

登錄番號: 1-65

김한섭(금성종합설계공사)

移轉地: 中區 乙支路 2 가 101-27

TEL. 26-5617

登錄番號: 1-80

정환철(문화건축기술공사)

移轉地: 冠岳區 奉天洞 37-21

TEL. 68-9473

登錄番號: 1-310

박인원(삼일건축설계사무소)

移轉地: 中區 乙支路 2 가 101-17

TEL. 27-1008

登錄番號: 1-447

이세훈(이세훈건축연구소)

移轉地: 冠岳區 奉天洞 7-289

TEL. 69-4649

登錄番號: 2-85

장도형(명진건축사무소)

移轉地: 城東區 반포동 112

TEL. 54-9458

登錄番號: 2-407

김영덕(한국건축공단)

移轉地: 城東區 학동 87-2

登錄番號: 2-273

강신관(예전사전건축연구소)

移轉地: 城東區 논현동 129

(영동시장내 214)

TEL. 33-4778

登錄番號: 2-253

再開業會員

김득수(삼미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永登浦區 永登浦洞 2 가 145

TEL. 62-0567

登錄番號: 2-51

김정치(김정치건축연구소)

所在地: 永登浦區 永登浦洞 2 가 177

TEL. 62-4782

登録番号: 1-526

閉業會員

안기태(동화건축연구소)

所在地: 中區 乙支路 2 가 101-27

登録番号: 1-192

신정렬(영신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永登浦區 永登浦洞 2 가 143

TEL. 62-6826

登録番号: 2-293

김연우(우전건축연구소)

所在地: 城東區 삼선洞 5 가 298-3

登録番号: 2-301

登録取消

신현대(서울합동기술개발공단)

所在地: 中區 茶洞 131

TEL. 22-1256

登録取消年月日: 1973. 11. 18.

死亡會員

정승렬(협성건축연구소)

所在地: 城東區 三仙洞 5 가 316-93

死亡日付: 1973. 12. 6

釜山市支部

新入會員

權直鉉(美建築研究所)

所在地: 釜山市 東區 永唱洞 252

TEL. 43-3938

登録番号: 2-193

登録年月日: 1973. 12. 12

忠南支部

新入會員

임천구(임천구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大田市 선화洞 282

(一級) TEL. 2-3333

入会年月日: 1973. 12. 31.

김안길(한나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大田市 大興洞 487-9

(二級) TEL. 2-3733

入会年月日: 1973. 12. 29.

원유택(원유택건축연구소)

所在地: 大田市 大興洞 211

(二級)

入会年月日: 1973. 12. 31.

全北支部

新入會員

金炯直(東西建築研究所)

所在地: 全州市 전동 2 가 124

登録番号: 2-24

登録年月日: 1973. 12. 18.

全南支部

朱曉昇(象牙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 光州市 東區 錦南路 1 가 19

TEL. 2-5538

朴林田(世界建築研究所)

所在地: 光州市 東區 廣山洞 69-5

TEL. 2-3607

徐延琨(東洋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 光州市 西區 양一洞 441

TEL. 3-0791

李寅炯(三星建築工務所)

所在地: 麗水市 丹文洞 907

TEL. 4949

商號變更

崔春和 (旧) 崔工務所

(新) 崔林設計事務所로 變更

所在地: 光州市 東區 錦南路 5 가 99

TEL. 3-2703

全生圭 (旧) 光州建築公司

(新) 合名会社 東邦建設公社로 變更

所在地: 光州市 東區 계림洞 505-111

TEL. 2-6097

金仁玉 (旧) 儒達設計事務所

(新) 東亜建築設計事務所로 變更

所在地: 木浦市 대의洞 2 가 3

TEL. 2-189

吳龍甲 (旧) 綜合建築設計事務所
(新) 近代設計事務所로 變更
所在地: 木浦市大義洞 2 가 7
TEL. 2 - 3001

事務所 移転

崔春和 (渚林設計事務所)
移転地: 光州市東区錦南路 5 가 99
TEL. 3 - 2703
吳甲潤 (合同建築設計事務所)
移転地: 光州市東区계림洞 505와 838
TEL. 2 - 6666

慶南支部

商号變更 및 事務所 移転

金在振

(旧) 蒼園建築事務所
事務所名稱 (新) 巨濟建築設計事務所
移 転 地: 巨濟郡 신현면 고현리 37-14
移転年月日: 1973. 12. 12
登録番号 : 2 - 28

訂正

通卷 60号(十一月号) 8 page에 記載된

- ◆ 慶南支部 任員陣 名單中 監査 金再煥은 金在振의 誤植이 있음을 바로 잡습니다.
- ◆ 全北支部 任員陣 名單中 幹事 全光瑞는 金光瑞의 誤植이 있음을 바로 잡습니다.

協會動靜

1974年度 第一回

全國市道支部長會議 開催

1. 19. (土) 午後 2 時, 本会 會議室에서

지난 1. 19. (土) 午後 2 時 本協會 會議室에서 1974年度 第一回 全國市道支部長會議을 開催했다.

이날 本会 韓昌鎭會長 主宰下에 本会 任員陣 및 全國市道支部 事務長도 同席한 이날의 主要 討議 案件은 第8回 定期總會 以後의 經過報告에 이어, 1974年度 予算에 關한 문제와 1974年度 追更計劃에 關한 討議事項等이 있었다.



支部長會議 光景

1974年度 第一回

全國市道支部 事務長 會議 開催

1. 20. (日) 上午 10時, 本会 會議室에서

지난 1. 20. (日) 上午 10時, 本協會 會議室에서 '74年度 第一回 全國市道支部 事務長會議을 開催했다.

이날 本会 事務處長(裴源植) 主宰로 開催된 이날의 主要 討議案件은 本会 各種 行政指示 事項에 對한 申訴 처리와 예산편성 및 決算보고를 本會後 一個月 以內에 承認 신청 및 보고토록 要求했다.

서울特別市支部

本協會 서울特別市支部는(12月26日) 서울建築士會館 建立推進委員會를 開催하고 同 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에 黃海建築社의 宋寬植氏를 選出했다.

同 推進委員會는 汝矣島를 中心으로 建立候補地 500坪을 物色, 確保토록 合議했다.

建築界動靜

李洛善 建設部長官 傘下 団体長과 歡談

李洛善 建設部長官은 12月 8日 就任後 처음으로 傘下 団体長들을 接見한 자리에서

- ㉠ 傘下 団体長의 責任下에 體制 및 諸規程 整備와 不正要素一掃 等의 監督 機能을 強化하고
 - ㉡ 辦公費, 情報費 및 其他 經常經費와 油類 波動에 對處한 油類費 等を 節減해서 予算을 効率的으로 運用하며,
 - ㉢ 年末 年始의 虛禮虛飾을 止揚하고
 - ㉣ 會員의 一致團結로 相互協調할 수 있는 氣風을 만들어 不和要因을 없애도록 指示했다.
- 이날 參席한 傘下 団体長은 아래와 같다.

大韓建設協會	趙鼎九 會長
"	金學俊 理事長
建設共濟組合	成岡寬 理事長
大韓測量協會	朴炳柱 會長
大韓建築士協會	韓昌鎮 會長

消防法 施行令 改正案 公布

12月 14日, 國務會議 議決

4層以上 建物은 共同 消防管理

國務會議은 12月14日 改正消防法 施行令 改正案을 議決했다.

이로서 앞으로는 建築許可 時 有關 消防 署長의 同意를 얻어야 할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共同 消防管理를 4層 以上の 高級建物로 하여, 방염물 및 방염성능의 기준, 개스 等の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 신고해야할 物質과 취급 기준량 等を 규정했다.

地下層 設置의 特例

建設部 告示 第489号

建設部는 12月12日, 建築法 第53條의 7 및 同法 施行令 第180條의 규정에 의하여, 建築法 第22條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반의 지내력을 다음과 같이 결정 告示했다.

다 음

建築法 第22條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반의 지내력의 기준 :

장기 容력에 대한 허용 容력도
200톤 / m² 이상.

10月末 現在 全國 建築許可面積

14,361,000m²로 去年同期보다 93.1%增加

12月 6日 建設部 集計에 依하면 10月末 現在로 建築許可面積 總累計는 1천 4백36만 1천m²로 去年同期의 7백48만 6천m²보다 93.1%나 增加하고 있는데 前年同期과 對比한 全國 建築許可面積은 다음과 같다.

用 途 別	'73年累計 1月~10月	'72年累計 1月~10月	對 比 %
住 居 用	6,988,000	4,078,000	71.3
商 業 用	1,877,000	1,278,000	46.8
工 業 用	4,181,000	1,178,000	254.8
文教社會其他	14,361,000	7,436,000	93.1

한편 10月中 全國 建築許可 總面積은 前月에 비해 14.8%가 增加한 1,788,000m²로 나타났다.

高速道路·觀光地 進入路 兩側 500m 內 自然環境 保存地區로 指定

政府는 12月11日 國土綜合開發計劃 補完 作業에 따라, 自然環境을 害칠 우려가 있는 京釜, 湖南, 南海 等 高速道路와 主要 國土 및 觀光地 進入路의 兩側 500m 以內의 地域과 昭陽江 다목적 「댐」 周邊地域 等 全國 981km² 地域을 「自然環境 保全地區」로 指定하고 이 地域에 對해 開發할計劃 이라고 한다.

李洛善 建設部長官은 第一次로 指定된 自然環境 保存地區는

●高速道路 中

서울-釜山, 大田-順天, 順天-釜山, 신갈-세
말,蔚山-彦陽

●国道中

水原-平沢-安城, 慶州-浦項, 釜山-馬山

觀光進入路 中

沃川-俗離山, 井邑-내장산 等 上記 11個 路線

은 道路 中心線에서 兩側 500m 以內의 地域과

●昭陽江「담」수몰地域과 周邊地域에 對해서는 年
內에 国土綜合開發計劃 審議會와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來年 初부터 施行할 予定이라고 한다.

또한 上記 地域에 對하여 自然環境保全 地區로
指定되던

① 住宅, 工場 等 工作物의 新, 改 増築.

② 廣告물의 게시 및 설치

③ 광물채굴, 竹木 및 土石, 사리 채취.

④ 土地개간 및 墾殖변경.

⑤ 수면매립 및 간척

⑥ 하천, 호수의 수면 및 수량 증감행위.

等이 사전에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제 된다.

自然環境保全地區 內容

區 分	地 域	面積km ²	延長 km
高速道路	① 서울-釜山	233	236
	② 大田-順天	151	146
	③ 順天-釜山	101	105
	④ 신갈-세말	94	91
	⑤ 蔚山-彦陽	5	5
小 計		585	583
主要 国道	⑥ 水原-平沢	14	13
	⑦ 平沢-安城	6	3
	⑧ 慶州-浦項	16	18
	⑨ 釜山-馬山	11	10
小 計		47	46
觀光地 進入路	⑩ 沃川-俗離山	33	34
	⑪ 井邑-내장산	4	4
小 計		37	38
昭陽江 水沒地域과 그 周邊		312	61
合 計		981	728

서울都市計劃 用途地域 一部 變更決定

一建設部 告示 第456호로一

建設部는 11月21日 告示 第456호로 서울都市計劃
用途地域 一部를 아래와 같이 變更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서울市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
이고 있다.

아 래

用途地域 變更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기 정	변 경	경 후
住 居 地 域	324,925,170	(증)273,933	324,651,237
住居專用地域	1,040,612		1,040,612
商 業 地 域	17,223,454	(증)273,933	17,497,387
準工業地域	37,709,200		37,709,200
綠 地 地 域	339,977,564		339,977,564
計	770,876,000		770,876,000

再開發地區 10곳, 開發促進地區로

'81年 까지 7 가지 稅金 免除

서울市는 12月 7日, 再開發事業을 벌일 10個 地
區를 再開發促進地區로 指定 告示했다.

이에 따라 이 地域들은 特定地區 開發促進에 關
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오는 '81년까지

① 투기억제세, ② 영업세, ③ 등록세, ④ 취득
세, ⑤ 재산세, ⑥ 도시계획세, ⑦ 면허세

等 7 가지 세금이 免稅된다.

이번에 再開發 促進地區로 指定된 곳은 다음과
같다.

1. 서울驛-西大門地區=99,951m²

(충정로 1街, 의주로 1街, 순화동, 봉래동 1街
一部 地域)

2. 太平路二街 地區=31,400m² (太平路二街, 西
小門 一部)

3. 南大門路三街地區=9,400m² (남대문로 3가,
남창동 一部)

4. 乙支路一街地區=21,860m² (을지로 1가, 南
大門路 1街 一部)

5. 남창동地區=14,850m² (남창동 一部)

6. 小公洞 地區=13,220m² (小公洞, 太平路 2가
一部)

7. 장교地區=43,900m² (장교동, 수포동, 을지로
2가 一部)

8. 乙支路 五, 六街地區=70,000m²

9. 청량리地區=92,000m² (청량리동 一部)

10. 연건地區=41,000m² (연건동 一部)

서울특별시국립도서관
유전전수
(73) 6047

建築法上 權限委任

서울特別市 告示 第 184 호로

서울시는 建築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4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기재한 서울特別市長의 權限(다만, 地面積이 1,000m²을 넘는 建築物 5層 以上인 建築物과 美觀地區內 및 特定街區 整備地區의 建築物에 관한 權限은 除外한다)을 區庁長에게 委任한다.

다 음

法中 第2條, 第15號 나목, 第5條, 第6條 第3項, 第7條의 3 第2項, 第8條, 第9條의 2 第2項, 第42條 第1項 第1號, 第4號 및 同條 第4項

第43條와 第47條 第2項의 規程에 의한 權限의 全部. (이상)

外国 建築士의 國內設計用役 行為 防止

本協會, 國營企業체와 公共團體에 協助要請

本協會에서는 지난 1月11日 近間 外国建築士의 國內 設計用役 行為를 防止해 주도록 國營企業체와 公共團體長에게 協助을 要請했다.

이는 外国借款 또는 合作投資로 建設되는 建築物이 增加됨에 따라 外国 建築士가 作成한 設計圖書가 不法의으로 國內에서 行使되고 있음에 이를 防止키 위해 取해진 것이다.

—三团体—

建築人 新年 懇親會 開催

住宅銀行 四層 構內 食堂에서

建築, 三团体 共同主催로 지난 1月8日 下午三時부터 韓國住宅銀行 四層 構內 食堂에서 三团体 會長 및 會員(約 90名 參席)들이 모인 가운데 오붓한 新年 懇談會의 웃음 꽃을 나누었다.

工業團地內의 工場 等 建築物

建築許可 節次 等 規定

—工業管理庁 告示 第六號로

工業團地管理庁은 1月14日 工業團地內 工場 等 建築物과 附帶施設의 築造와 이에 必要한 建築許可 節次 等 細部 要領을 規定한 「工業團地內의 工

場 等 建築物에 관한 施行要領」을 마련했다.

同 規定은 全文 20條 附則으로 되어 있는데 이 要領에 따르면 入住企業체 및 支援企業체는 入住指定 또는 入住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70日 以內에 建築法 第五條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申請書에 空地證明書類를 첨부하여 管理庁長에게 提出하여야 하고, 第3條) 工事着手는 建築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3個月 內에 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由로 3個月內 完工이 못할 경우는 管理庁長의 承認을 얻어 1회에 限하여 期限을 延長할 수 있고 期限 延長은 3個月을 超過할 수 없게 했다.

또한 建築許可를 받은 者는 當該 建築 工事 特記示方書 및 「標準 一般示方書」(建設部 發行) 에 의거 工事を 施行하되

- ① 諸般工事は 許可를 받은 設計圖書를 嚴守하며
- ② 모든 建設用 資材는 韓國工業 規格品을 原則的으로 使用토록 하고濕式構造物은 寒冷期를 避해 施工하고, 團地內의 모든 建築物의 構造는

(1) 永久型(鐵骨造, R, C造)으로 建築토록 하며 建築物의 建築面積이 3,300m²를 超過할 때는 一層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2) 建築線은 幹線道路에 接한 部分은 道路幅 境界線으로부터 2m 以上 後退한 線이어야 하며

(3) 建築率은 建築面積의 空地面積에 對한 比率을 10分之 5에서 10分之 6 까지의 範圍로 했으며

(4) 事務室 警備室, 食堂, 宿直室 等 間接施設의 面積은 建築物의 10分之 3을 超過할 수 없으며 다만 事業의 特殊性으로 管理庁長이 不得已하다고 認定할 경우는 例外로 하고 있는데 이 要領은 輸出自由地域, 輸出産業工團 및 管理庁長이 指定하는 工業團地에 適用된다.

그런데 이 要領은 告示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집집마다 한등 고면
공장마다 생산증대.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第十回 建築士資格試験合格者 発表

一級 59名 二級 119名

合格率 總應試者の 17.2%

建設部는 1973年度에 實施한 第10回 建築士 資格試驗合格者를 發表했다.

이번 應試率은 1, 2級에 걸쳐 總 1,195名の 申請者 中 1,029名이 應試, 17.2%에 該當하는 178名이 合格되었다.

이번 應試의 級別을 보면 1級은 516名中 427名이 應試, 59名이 合格(13.8%), 2級은 679 名中 602名이 應試, 119名이 合格(19.7%) 했다.

全國建築許可 總面積

'73年 1月~11月까지 1천 5백55만 7천m

지난 '73年 1월부터 11월까지의 全國 建築許可 總面積은 前年 同期에 비해 92.1%가 增加된 1천 5백55만 7천m²로 나타났다.

'74년 1월 22日 建設部에 의한 用途別 建築許可面積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 m²)

	1972. 1月~11月		1973. 1月~11月	
	延面積	前年同期比 増減率(%)	延面積	前年同期比 増減率(%)
住 居 用	4,372	(-) 18.2	7,490	71.3
商 業 用	1,402	(-) 17.6	2,013	43.6
工 業 用	1,320	29.5	4,548	244.4
文教, 社会, 其他	1,001	10.5	1,506	50.5
計	8,095	(-) 10.8	15,557	92.1

謹賀新年

1974

大韓建築士協會 任員一同

公 告

외국 건축사의 국내 설계용역행위 방지조치 시달

근간 외국차관 또는 외국투자 기업체에 의한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외국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국내에서 등록 행사되고 있음은 건축사법 제4조, 제8조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사항으로서 이는 지각없는 우리 회원들의 절차이행대리 또는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외국용역 침투의 방조행위임으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코저하니 이틀관내분소장과 전회원에게 시달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절차이행 대리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축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한다.

2. 따라서 지부 또는 분소에서는 전향의 설계도서가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서등록 취급에 만전을 기한다.

3. 다만, 외국건축사가 한국건축사와 설계감리계약을 체결(국내 설계및 감리에 관한 보수액의 50%이상이 한국 건축사에게 지불되는 경우에 한함)하고 합작 설계를 한 설계도서임이 확인 될 때에는 한국건축사의 명의로 설계도서의 등록을 받아 행사할 수 있음.

4. 특히 우리 건축사의 품위를 전지하는 의미와 역경달피 및 우리속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위의 사례에 대한 파렴치한 위장행위나 불미한 경쟁행위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장 한 창 진

(釜山)

釜山市 再開発区域 指定

建設部 告示 第 471 号로

建設部는 12月 3日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第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市의 住宅改
良을 위한 再開発区域을 다음과 같이 指定했다.

다 음

1. 釜山市 再開発区域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일련 번호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1	보 수 동	중구 보수동 산3의50 일대	20,000
2	동대신동	서구동대신동28 일대	115,100
3	차 천 동	동구차천동809 일대	44,500
4	범 일 동	동구 범일동1,389 일대	19,400
5	범 천 동	부산진구 범천동 산 57	40,600
6	만 여 동	동래구 만여동 산137일대	465,300
7	수 정 동	동구 수정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5, 6, 9 부록 외 10개 부록	30,500
8	차 천 동	동구 차천동 881의12 일대	10,100
9	영 선 동	영도구 신선동 산17의40일대	9,500
10	대 연 동	부산진구 대연동 산125의1	13,400
합			768,400m ² (232,450坪)

(京畿)

전곡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448号로

建設部는 11月16日자로 京畿道 연천郡 전곡都市
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京畿道庁 및 連천郡庁에 비치하여 關
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 区域 決定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연천군 전곡면	8,700,000	

2. 用途地域 決定

地 域	면 적(m ²)	비 고
住 居 地 域	1,235,000	
商 業 地 域	142,000	
工 業 地 域	23,000	
綠 地 地 域	7,093,000	
計	8,700,000	

신서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449号

建設部는 11月19日자로 京畿道 連천郡 신서 都
市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京畿道庁 및 連천郡庁에 비치하여 關
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 区域 決定

위 치	면 적(km ²)	비 고
연천군 신서면一部	6.45	

2. 用途地域 決定

地 域 別	면 적(m ²)	비 고
住 居 地 域	540,000	
商 業 地 域	60,000	
綠 地 地 域	5,850,000	
計	6,450,000	

군자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50号로

建設部는 11月19日자로 京畿道 始興郡 軍子面一
部の 都市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京畿道庁 및 始興郡庁에 비치하여 關
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 区域 決定

地 域 別	면 적(km ²)	비 고
시흥군 군자면一部	6.26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면 적(m ²)	비 고
住 居 地 域	571,000	
商 業 地 域	29,000	
綠 地 地 域	5,660,000	
計	6,260,000	

水原都市計劃 一部 變更

建設部 告示 第458호로

建設部는 11月21日 告示 458호로 水原都市 計劃 一部를 아래와 같이 變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京畿道庁 및 水原市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用途地域 一部 變更 決定

地 域	기 정 m ²	변 경 m ²	변 경 후 m ²
住 居 地 域	31,653,000	(하) 647,000	31,006,000
工 業 地 域	3,375,000	(증) 1,363,000	4,738,000
綠 地 地 域	164,689,000	(감) 716,000	163,973,000

仁川都市計劃 一部 變更 決定

建設部 告示 第465호로

建設部는 11月30日자로 仁川都市計劃 一部를 다음과 같이 變更 決定했다. 關係圖書는 京畿道庁 및 仁川市庁에 비치하여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用途地域 變更 決定

地 域 別	기 정 m ²	변 경 m ²	변 경 후 m ²
住 居 地 域	76,927,000	(감) 50,000	76,877,000
工 業 地 域	59,218,000	(증) 113,500	59,331,500
綠 地 地 域	76,175,000	(감) 63,500	76,111,500

江原道

근덕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51호로

建設部는 11月19日자로 江原道 삼척郡 근덕面 都市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江原道庁 및 삼척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 区域 決定

위 치	면 적 km ²	비 고
江原道 삼척군 근덕면 一部	8.61	하명바리, 상명바리, 교가리, 덕산리

2. 用途地域 決定

地 域 別	면 적 m ²	비 고
住 居 地 域	773,000	
商 業 地 域	81,000	
綠 地 地 域	7,756,000	
計	8,610,000	

原州都市計劃 一部 變更 決定

建設部 告示 第466호로

建設部는 11月30日 原州都市計劃 一部를 다음과 같이 變更 決定했다. 關係圖書는 江原道庁과 原州市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 음

用途地域 變更 決定

地 域 別	기 정 m ²	변 경 m ²	변 경 후 m ²
住 居 地 域	13,859,500	(증) 52,400	13,911,900
商 業 地 域	1,646,500		1,646,500
工 業 地 域	1,340,000	(감) 52,400	1,287,600
綠 地 地 域	41,774,000		41,774,000
計	58,620,000		58,620,000

(忠北)

주덕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55호로

建設部는 11月20日 告示 第455호로 忠北 忠淸郡 주덕 都市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유권선언서
(73) 0047 집

다.

關係圖書는 忠北道庁 및 忠원郡庁에 비치하고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區域 決定

위 치	면 적(km ²)	비 고
충원군, 주덕면, 이음면 일부	7.424	

2. 用途地域 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430,000	
商 業 地 域	95,000	
工 業 地 域	100,000	
綠 地 地 域	6,799,000	
計	7,424,000	

(忠南)

大田都市計劃 變更 決定

建設部 告示 第468号로

建設部는 11月30日 大田都市計劃을 다음과 같이 變更(제정비)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忠南道庁 및 大田市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 음

1. 都市計劃區域 變更決定

位 置	기 정 면 적(km ²)	변 경 면 적(km ²)	비 고
大田市	530.40	556.72	26 32km ² 확장

2. 用途地域變更決定

區 分	기 정 면 적(m ²)	변 경 면 적(m ²)	
제 목 區 域	530,400,000	556,720,000	
住 居 地 域	77,564,000	72,125,000	
商 業 地 域	6,198,000	6,781,000	
工 業 地 域	15,167,000	13,232,000	
綠 地 地 域	50,371,000	464,582,000	
未 指 定	381,100,000		

(全南)

군외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52号로

建設部는 11月19日자로 全南 완도군 군외면 都

市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완도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 區域

위 치	면 적(km ²)	비 고
완도군 군외면 일부	3.42	

2. 用途 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568,000	
商 業 地 域	42,000	
綠 地 地 域	2,810,000	
計	3,420,000	

능주 都市計劃(신규)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53号로

建設部는 11月19日자로 全南 華山郡 능주 都市計劃을 신규로 아래와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華山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都市計劃 區域決定

위 치	면 적(km ²)	비 고
華山군 능주면 일부	6.13	

황산 都市計劃(신규) 決定

建設部 告示 第461号로

建設部는 11月22日자로 全南, 海남군 황산 都市計劃을 신규로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海남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 음

1. 都市計劃區域 決定

위 치	면 적(km ²)	비 고
海남군 황산면 일부	5.3	

2. 用途地域 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250,000	
商 業 地 域	25,000	
綠 地 地 域	5,025,000	
計	5,300,000	

학교면 都市計劃 一部 決定告示

建設部 告示 第481号

建設部는 12月10日 全南 鎭陽郡 학교면에 對한 都市計劃을 다음과 같이 決定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鎭陽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음

1. 都市計劃區域 決定

位 置	面 積km ²	비 고
鎭陽郡 학교면一部	6.6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900,000	
商 業 地 域	117,000	
綠 地 地 域	5,583,000	
計	6,600,000	

북평都市計劃 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82 号

建設部는 12月10日 全南 海 南郡 북평都市計劃을 다음과 같이 決定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海 南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음

1. 都市計劃區域決定

位 置	面 積km ²	비 고
海 南郡 북평면一部	6.90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1,053,000	
商 業 地 域	78,000	
綠 地 地 域	5,769,000	
計	6,900,000	

일노都市計劃 一部決定告示

建設部 告示 第483 号

建設部는 12月10日 全南, 무안郡 일노면에 對한 都市計劃을 다음과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무안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음

1. 都市計劃區域決定

位 置	面 積km ²	비 고
전남 무안군 노면一部	7.16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892,000	
商 業 地 域	76,000	
綠 地 地 域	6,192,000	
計	7,160,000	

임회 都市計劃 一部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84号

建設部는 12月10日 全南 珍島郡 임회면에 對한 都市計劃을 다음과 같이 決定 告示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珍島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음

1. 都市計劃區域決定

位 置	面 積km ²	비 고
珍島郡 임회면 一部	3.25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m ²	비 고
住 居 地 域	625,000	
商 業 地 域	78,000	
綠 地 地 域	2,547,000	
計	3,250,000	

주암都市計劃 一部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85号

建設部는 12月10日 全南 승주郡 주암면에 對한 都市計劃을 다음과 같이 決定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승주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 음

1. 都市計畵区域決定

位 置	面 積 ^{km²}	비 고
全南忠清道주암面 一部	12.3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 ^{m²}	비 고
住 居 地 域	1,057,000	
商 業 地 域	73,000	
綠 地 地 域	11,170,000	
計	12,300,000	

고흥都市計畵 一部 決定告示

建設部 告示 第486号

建設部는 12月10日 全南 高興郡 高興面에 對한 都市計畵을 다음과 같이 決定했다.

關係圖書는 全南道庁 및 高興郡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 음

1. 都市計畵区域決定

位 置	面 積 ^{km²}	비 고
全南 高興郡 高興面 一部	7.8	

2. 用途地域決定

地 域 別	面 積 ^{m²}	비 고
住 居 地 域	1,100,000	
商 業 地 域	75,000	
綠 地 地 域	6,625,000	
計	7,800,000	

龜尾 수출산업 工業團地 예정지 指定

建設部 公告 第115号로

建設部는 12月1日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 조성 법 제3조 및 同法 施行令 第1條에 依거 구미 수출산업 공업단지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 고했다.

다 음

1. 位置: 慶尙北道, 선산군 구미읍 신부동, 바산동, 신평동, 광명동, 임은동, 사곡동, 및 칠곡군, 북산면, 낙계동, 오태동 일대.

2. 面積: 3,185천평

(慶北)

安東 都市計畵 一部 變更決定 告示

建設部 告示 第457号로

建設部는 安東 都市計畵 一部를 아래와 같이 變更告示했다.

關係圖書는 慶北道庁 및 安東市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아 래

1. 用途地域 變更 決定

地 域	기 정 ^{m²}	변 경 ^{m²}	변 경 후 ^{m²}
住 居 地 域	12,210,000	(증)18,000	12,228,000
商 業 地 域	1,160,000	(증)80,000	1,240,000
工 業 地 域	2,550,000		2,550,000
綠 地 地 域	44,420,000	(감)98,000	43,322,000

(慶南)

蔚山都市計畵 一部 變更

建設部 告示 第459号로

建設部는 지난 11月22日 建設部 告示 第459号로 蔚山都市計畵 一部를 다음과 같이 變更 告示 했다.

關係圖書는 慶南道庁 및 蔚山市庁에 비치하여 關係人에게 보이고 있다.

다 음

1. 都市計畵区域 變更

위 치	면 積 ^(cm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蔚山市을 주군	437,525,000	(증)177,000	437,702,000	예전만 공유수면 배립추가

2. 用途地域 變更

地 域 別	면 積 ^{m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住 居 地 域	22,257,500	(증)245,000	22,502,500	
商 業 地 域	3,375,500	—	3,375,500	
工 業 地 域	29,867,780	(증)206,000	30,073,780	
準工業地域	2,534,000		2,534,000	
綠 地 地 域	379,489,220	(감)274,000	379,215,220	
計	437,525,000	(증)177,000	437,702,000	

韓國建築文化의 特徵

尹 張 奎

서울大學校 工科大學教授

1. 序 言

예전에 韓國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世界觀을 建國神話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祖上들은 世界가 垂直線으로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最高의 나라는 光明이 가득 차있는 理想鄉인 桓(하늘)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世界觀과 韓國이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 아담한 風土環境 등은 저절로 潔白淸楚를 상징하게 되는 흰빛을 사랑하게 만들고, 白衣民族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소박하고, 아담하고, 청초한 文化的인 特性을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韓國사람들은 文化藝術活動이 싹트기 시작하던 原始時代에서부터 세계의 다른 어느 民族에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才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실은 우리 祖上들이 原始時代에 만들어서 사용하였던 성교하고도 우수한 新石器時代의 遺物들을 살펴볼 때에 매우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와같은 世界觀과 아름다운 自然風土 및 民族의 資質을 뒷받침으로 하여서 발전하게 된 韓國의 建築文化는 東洋文化의 始原的 基盤을 형성하였다. 北東亞(Scyto-Siberia)文化에서 搖籃期를 보내고, 漢文化에서 배우게 되고, 印度의 拂敎文化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를 醇化하고 集約하여 同化시킴으로서 韓國固有의 特徵을 가진 文化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搖籃期에 있어서는 原始民衆信仰에 의한 自然崇拜과 靈魂不滅思想 등으로 죽은사람을 厚葬하는 풍습이 있어서, 수많은 支石墳(고인돌)들을 남겨 놓게 만들어, 그 시대의 文化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漢文化에서 배운 建築架構의 기본 형식은 현재까지도 계승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陰陽五行說, 風水地理說, 天文思想, 儒敎 및 道敎 등의 東洋思想과 哲學은 建築活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印度佛教의 傳來와 그 隆盛 및 衰退는 韓國建築文化의 발전에 大대한 影響을 미쳤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佛寺가 建립되었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여러 차례의 戰火로 말미암아 불타버렸으나, 아직도 현재 남아 있는 佛教建築이 현재 남아있는 韓國의 古建築物의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하겠다.

新羅 및 高麗時代에 있어서는 佛教의 受容이 지나쳤던 까닭으로 폐단이 적지 않았으므로, 朝鮮時代에 와서는 佛教가 政敎적으로 억압되어 佛教建築이 一時衰退하게 되었으며, 儒敎가 융성하여 文廟, 鄉校 및 書院들이 建築되고 훌륭한 宮殿建築들이 그 時代의 建築文化를 代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特히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外來文化의 影響을 集約, 이를 醇化하고 同化하여서 韓國固有의 文化특성을 갖도록 發展시켰다고 생각된다.

2. 親近感을 주는 尺度

韓國의 建築文化가 갖고 있는 特徵中에서 우선 들을 수 있는 것은 親近感을 느끼게 하는 尺度概念일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의 建築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壯大하지 않은 까닭에 建築의 外觀이 보는 사람에게 重圧感을 주는 建物이 비교적 적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건물이 人間的 尺度(Human Scale)로 해아릴 수 있는 크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建物의 外觀이 아담하고 親近感이 가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韓國建築은 人間的 尺度를 가지는 建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韓國建築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尺度基準(Module)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대 규모의 建築에 있어서는 栱包(공포)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 簷遮(첨차)의 断面幅을 기준으로 하는 尺度基準이 사용되었으나, 그 尺度基準의 사용은 千偏一律의 固守된 것이 아니었고, 建築營造를 주관하는 都邊手(도편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尺度概念은 建築에 있어서 기술적인 計劃性을 덜게 되는 결점이 있다고도 하겠으나, 尺度基準의 劃一的인 사용이 지나칠 경우에는 建築外觀이 딱딱하고 단조롭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建築外觀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要素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三、自然과의 調和

韓國의 建築은 위치의 선택에서부터 自然을 존중하며 地勢에 잘 適應하고 調和하도록 많은 배려를 하게 되는 것으로, 自然의 勢를 제압하고 自然과 對抗하며 競爭하는 방향으로 建築이 試圖된 예를 우리 先人들이 만든 建物中에서는 지어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특히 風水地畧思想을 중요시하여서 現世의 建築인 陽宅을 정할 때나, 死後의 墳墓인 幽宅을 마련할 때도 風水說의 理致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風水說은 高麗時代와 朝鮮時代를 통하여 그 당시의 科學이요 見識있는 사람들의 常識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風水說에는 迷信의인 요소가 다분히 內包되어 있으나, 基本原理는 自然地勢와 環境을 잘 분석 活用함으로써 人間生活의 福利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基本傾向은 현대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設計原理로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原則이라고 생각된다. ✓

建築計劃面에 있어서는 人爲的인 技巧를 많이 쓰지 아니하였으며, 施工方法에 있어서도 技巧가 적도록 하여서 自然美를 나타내도록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특성은 韓國의 아름다운 지붕의 처마곡선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으며, 그 工法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붕의 네 모퉁이에 建物 크기에 따라서 春舌(춘혀)의 크기와 높이를 정하여서 얹고, 그 사이에 자귀로 다듬은 몇 개의 서까래를 걸쳐서 視覺的으로 “후림”(水平面으로 中央이 휘어드러간 정도)과 “조르”(垂直面으로 中央이 처진 정도)의 크기를 알맞게 정하여 처마곡선을 형성할 基準點을 잡아놓고, 그 위에 直線材로 된 平交臺를 휘어서 걸어놓고 이 平交臺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처마곡선에 맞추어서 서까래를 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처마곡선은 平交臺의 材料의 성질과 지붕의 무게에 의하여 처지는 영향 등으로 自然的인 요소 내지는 偶然的인 요소까지도 많이 작용되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平交臺의 모양을 地上에서 미리 計劃된 一定한 曲線모양으로 形成한 후 지붕에 걸쳐서 만드는 방법(日本建築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비교하면 計劃性이 부족된다고 하겠으나, 結果에 있어서는 流麗하고 나는 듯한 아름다운 지붕 형태를 만들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建築材料의 加工과 사용에 있어서도 木材가 가

지고 있는 自然本來의 특성을 잘 살려서 쓰는 경향이 많았으며, 그 좋은 예로는 礎石에 사용되는 自然石에 의한 “담방”柱礎方式이 이와 같은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柱材를 다듬을 때도 자연적인 형상에 따라서 다듬게 되므로, 때에 따라서는 柱材下端 일부에 原木의 자연적인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한 예가 精巧하게 잘 지어진 建築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無作為한 技法의 요소가 韓國建築에 있어서 自然과 잘 調和하는 특징을 더 가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韓國의 匠人들이 만든 것은 型式에 맞춘 것이 아니고, 人間 이외의 自然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결코 個人的 力量과 智慧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時代와 環境 및 風習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되어서 本能的으로 表現된 것으로서 作爲가 적고 人間的인 理智와 技巧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점에서는 어수룩한 면도 있겠으나 순박한 면이 있어 매우 親近感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匠人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韓國建築은 自然과 잘 조화되어, 無技巧의 自然美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建築의 外觀은 簡素, 質朴하고, 어느 면으로는 粗野하고 겸허한 멋을 풍기기도 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四、造形意匠의特徵

韓國建築의 造形意匠面에 있어서의 특징은 안정되고 아름다운 建築外觀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國 및 日本의 建築樣式과 비교하여 볼 때 技巧面에서는 떨어지는 점이 있다 하여도 美的 感覺이 매우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造形意匠의 基本原理를 잘 나타내는 建築外觀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古代부터 계속되어 지어 傳統化된 것으로서, 근래의 韓國古建築을 만드는 都邇手들은 무심히 일하는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造形意匠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점을 들어 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기둥에 배흘림(entasis)이 있는 것

柱材의 下徑과 上徑이 같은 크기일 때에는 그中央部가 약간 가는 것같이 보이는 錯覺이 생긴다. 이와 같은 錯覺을 矯正하여서 柱材의 中間徑을 크



게하고 上徑을 적게 만들어서 소위 배흘림을 가지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古代 “그리스” 建築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배흘림이 여러 時代를 통하여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나, 韓國에서는 古代에서부터 시작하여 高麗時代, 朝鮮時代는 물론 근래에 와서는 韓國古建築造營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기둥의 안쭈림과 隅柱의 솟음을 두는 것

柱材上端을 垂直面에서 微小한 角度로 안쪽으로 쭈리게 세우는 것을 안쭈림이라 칭하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視覺적으로 建築 전체의 外觀에 安定感을 가지게 한다. 지붕의 처마 형상이 직선적인 古代 “이집트” “그리스” 建築樣式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볼 수 있으나, 특히 처마 끝선이 曲線을 이루게 되는 中國系(중국, 한국, 일본) 建築樣式에서는 매우 중요한 意匠의인 뜻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中國系 建築樣式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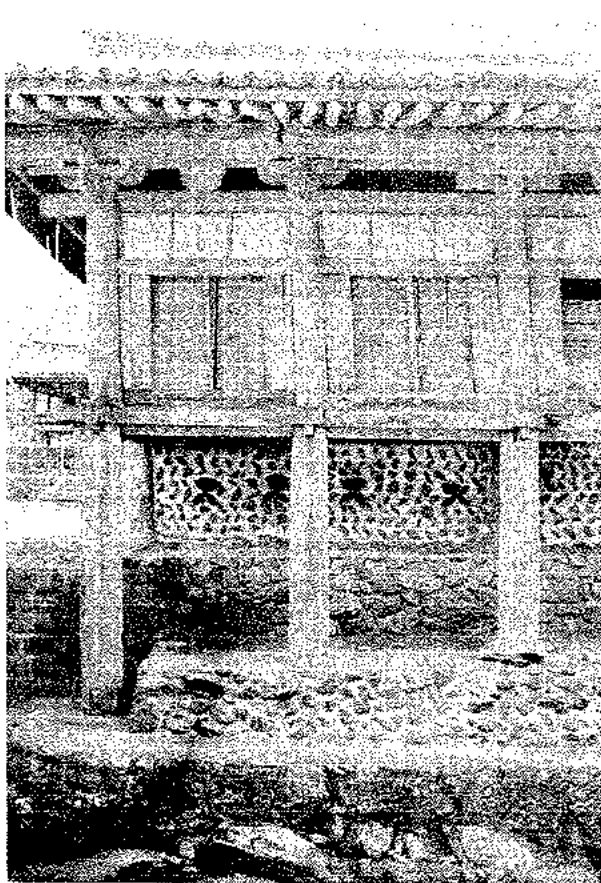
서는 古代建築에서만 찾아 볼 수 있으나, 韓國은 古代建築物에는 물론이요 石塔에까지 그 흔적이 나타나 있으며, 근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建築이 기둥에 안붙임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隅柱를 중간에 있는 平柱보다 약간 길게하여 隅柱를 솟아 올리도록 하며 昌枋도 이에 따라서 隅柱쪽 끝이 약간 올라가도록 마침으로써 昌枋의 끝이 수평면보다 위로 기울어져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처마곡선과 조화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 지붕의 처마 曲線美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은 方法으로 지붕의 처마가 形成됨으로, 처마의 曲線美는 장중한 모양의 지붕을 나는 듯하게 아름다운 윤곽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윤곽선의 표현은 수많은 여러 石塔에서도 나타나 있으며, 이와 상통하는 세련된 韓國사람들의 曲線美의 감각은 모든 藝術文化에서 찾아 볼 수 있어서, 韓國造形藝術의 아름다움은 線과 形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말을 흔히 듣게 만드는 것이다. 지붕의 처마 曲線美와 같이 建築 및 造形藝術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 無碍自在의 유창한 線을 基調로 하여 구성된 청초한 姿態는, 型式上으로 본 韓國의 傳統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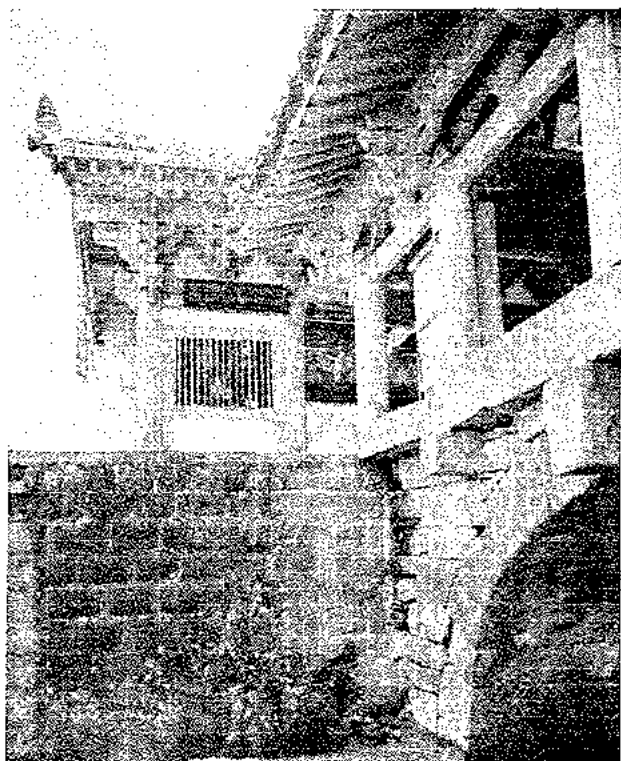
五、空間構成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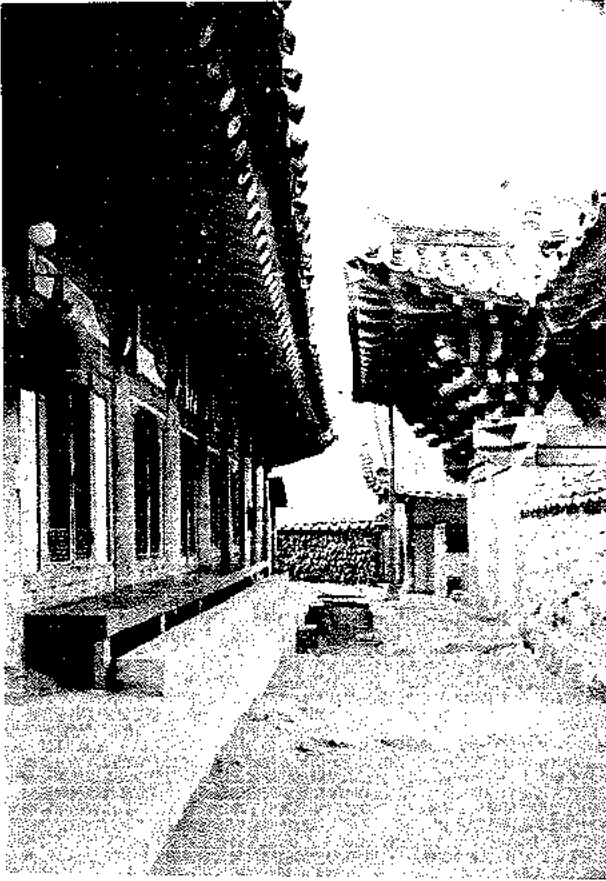
韓國의 建築平面構成에 있어서는 古代로부터 非對稱的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高句麗時代의 古墳인 三室塚壁面에 그려져 있는 그 당시의 都城을 묘사한 것으로, 都城平面配置가 中國과 같이 左右對稱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韓國의 都市街路形成은 中國과 같이 바둑판 형상을 따라서 一律的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自然地勢를 잘 활용하여서 계획된 것으로, 中國의 都城制를 모방한 高句麗時代의 俗稱 箕子井田이 현재 平壤 西南部에 一部 그 흔적을 남기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방식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朝鮮時代에 造營된 漢陽都城(서울 旧市街地)도 그 배치에 있어서 周考工記에 있는 「左祖右社面朝後市」의 원칙을 따랐으나, 唐의 長安城과는 그 市街形狀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住宅 등 一般建築에는 비대칭적인 평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平面形式이 중간에 中





庭을 두고 口, 丁, 工 形으로 구성하여 閉鎖空間 (in-closed space)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宮闕 및 寺院 建築에 있어서도 주요 부분의 건물은 대칭적인 평면을 가지고 있으나, 建築의 전체 배치는 地形에 따라 비대칭적인 형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뿐만 아니라 建築配置計劃, 平面計劃 및 造形構成에 있어서 아름다운 비례 관계를 얻기 위하여 造營計劃의인 技法과 정연하고 계획적인 비례 관계를 사용한 것이 寺刹, 石屈, 石塔, 宮闕 등 모든 建築物에서 實證되고 있다.

六、裝飾과 色彩의 特徵

韓國建築의 細部裝飾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비교적 다양하고 변화가 있는 裝飾手法를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中國建築은 平面과 立面의 一律性으로 말미암아 장식이 자연이 豊富 巧妙하게 되고, 千變萬化하여서 지나칠 경우에는 怪奇的 또는 煩瑣의인 표현을 갖게 된 憾이 없지 않

으며, 日本建築의 장식은 가볍고 단순한 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韓國建築의 장식은 그 중간인 中庸의 美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과 창 의 창살은 韓國의 은은한 情趣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中國의 창살은 보다 더 장식적이고 복잡하며 정교하고 곡선을 준거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비하여, 日本의 창살은 간결하고 단조롭다. 韓國의 창문은 日本의 창문에 비하여 창살의 모양과 짜임새가 보다 더 重厚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생각한다.

색채에 있어서는 陰陽五行思想에 따라 靑, 赤, 黃, 白, 黑의 五色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었으며, 丹青과 花文장 등에 나타난 색채는 韓國 사람들의 청초한 色感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소박하고 온화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中國建築은 색채에 있어서도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색채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합동21의22
 유진건축사무소
 (73) 6047 김 병 일



七、建築美의 特徵

韓國의 建築은 端雅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큰 멋을 접하여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端雅한 아름다움은 建築의 규모가 장대한 中國建築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움이다. 이와 같은 端雅한 멋은 韓國의 自然的 및 地理의 환경에 緣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韓國의 建築은 규모에 있어서 비록 작다 하더라도 순박한 큰 멋이 있다. 이와 같은 큰 멋은 韓國 사람들의 순박하고 醇厚한 생활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며, 自然에 순응하는 無技巧에서 오는 것이고, 人爲的인 技巧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韓國의 匠人들은 細部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美的 構成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큰 멋을 나타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입체적인 깊이 있는 것이며, 輕快하고 輕爽한 것과 巧慧로운 점이 없다.

韓國의 예술은 그 표현에 있어서 변화하며 복잡하고 강인한 면이 비교적 적으며, 淡泊하고 柔軟하여서 어딘지 모르게 現世에 집착하지 않은 寂寥한 아름다움, 즉 寂照美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古代의 패기가 넘쳐 흥했던 高句麗의 建築藝術을 제외하고서는 百濟, 新羅 高麗 朝鮮의 각 시대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寂照美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百濟塔 및 芬皇寺址塔에서 볼 수 있는 外觀의 부드러운 아름다움, 佛國寺의 基壇, 多宝塔 및 石屈庵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아담한 표현 등을 비롯하여 高麗時代는 佛敎의 영향으로 이特徵이 더 강하여졌으며 朝鮮時代는 儒敎의 요소가 더 강하여져서 이와 같은 特性이 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佛敎文化圈내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韓國藝術이 지니고 있는 寂照美는 思想的으로 탐구하여 얻은 外部的인 것이 아니고 生活를 통하여 潛在하게 된 내면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특성이 예술적으로 高揚되려는 生命的인 深奧한 깊이를 갖게 되지마는 그리하지 못하여는 哀調에 흐르게 되므로 一面으로는 결점을 같이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防炎에 對한 小考

李 沚 然

國立警察大學 附設 消防學校 教學科長

改正 消防法 第11條로서 高層建物 學校 共同住宅 工場 市場 百貨店등 特殊場所의 카텐이나 其他 內裝物등의 物品은 防炎性能이 있는것으로 使用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防炎에 關한 研究와 手段은 어제 오늘에 생겨진 일이 아니고 아득히 紀元前 4世紀에까지 거슬러 올라 갈 程度로 오래된 史實을 들 수 있습니다만 火災時 可燃物 즉 着火物의 燃燒를 되도록 極少化시킴으로서 被害減少를 期한다는 點에서 볼때 防炎이란 매우 重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火災事故가 年々 增加되고 大火災가 잇따라 發生하는 昨今の 實情을 勘案할때 改正 消防法에서 防炎處理 規制가 세로히 設定된것은 建物火災에 對한 防火對策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防炎處理를 함으로 해서 오는 利得이 他人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곧 自身の 被害를 火災로부터 輕減시켜 줌으로써 직접 利害에 直結되는 것인데도 막상 火災를 當하고 보면 몹시 아쉬워하면서도 平常時에는 惝乎리 決斷을 못내달만큼 理解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물론 消火器具類가 물을 끼주는데 絶對性을 지니지 못하고 있듯이 防炎處理로서 火災의 被害를 전혀 안입게 된다는 過信도 안 될 일입니다만 여기에서는 防炎에 對한 輪廓을 紹介해 보려고 합니다.

定義: 防炎(Fire Retarding, Flame Retarding)이란 한마더로 可燃性(可炎性) 物質을 遲炎 難炎 또는 不炎의 狀態 즉 適格基準에 드는 狀態로 만드는 手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防炎은 消火作用도 아니며 전혀 타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大概의 火災現場을 보면 消防

隊가 到着했을때 이미 것잡을 수 없이 延燒擴大된 경우를 許多하게 볼 수 있는데 그 延燒速度와 範圍를 極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 防炎의 歷史

防炎에 關한 沿革을 歷史적으로 살펴보면 B.C (紀元前) 4世紀頃 Troy戰의 勇將 에니스(Aeneas)가 木材에 食醋를 발라 耐火性을 주도록 獎勵한 일이 있습니다. 또 Claudius의 年鑑記錄을 보면 紀元 83年 Piraeus 包圍作戰에서 使用했던 公擊用 木材사다리에 明礬을 발라 火攻으로부터 保護한 일이 있습니다. 한편 織物의 防炎技術은 比較的 새로운 것으로 1638年 出版된 Sabatini에 실려 있는것을 보면 當時 敎會 風景畵를 그리는데 쓰는 塗料에다 石膏와 粘土 顔料를 섞어 혼합하여 씌우므로 火災予防과 安全感을 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防炎에 關해서 特記할만한 記錄은 1735年 美國에서(特許 55)로 Obadiah Wyld가 明礬, 硫化金屬 그리고 礬砂로 混合된 防炎劑로서 特許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後 1821年 佛國의 gay-Lussac는 亞麻와 大麻에 對한 防炎處理法을 開發함으로써 크게 功獻한바 있습니다. 또 1850년부터 水溶性·非水溶性 防炎劑 研究가 계속되었으며 1912年 W. H. Perkin이 酸化錫을 써서 綿織物의 可洗防炎 法을 開發했으나 殘炎問題로 失敗한 일이 있습니다. 그 後 하로젠有機質, 非溶性金屬鹽과 酸化物의 混合物을 防炎劑로 쓰기 始作하므로써 科學化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技術革命이 1930年代初까지 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2次世界大戰을 통해 그 重要性이 認定되기 始作했던 것으로 다시 말해 1930年代 末頃부터 急進展을 보게되어 現在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各國의 防災實情

美國

1894年 젊은 技術인 윌리엄 메릴(William Merrill)이 美國의 火災保險協會로부터 支援을 받아 建築資材의 耐火度를 實驗하기 爲한 研究所를 設立, U L(Underwriters Laboratory)로 命名, 그뒤 世界最大의 安全實驗機構가 이룩되었습니다. 더욱이 492名의 人命을 앓아 간 보스턴 코코날 그로브 나이트 클럽火災가 일어 난 1942年 以來, UL은 더욱 研究에 拍車を 加했으며, 1954년에는 可燃織物法(Flammable Fabrics Act) 施行以後 數 많은 法令으로 防災을 必須化하게 되었습니다.

日本

1950年頃: 美駐屯軍에 依해 防災이 導入되 었으며
1952年: 防災試驗規則 制定되 었고
1961年: 火災予防條例가 施行(防災必須)되 었고
1962年: 防災協會가 設立되 었고
1964年: 建設省 防災사이트(工事用) 規制가 設定되 었고
1966年: 東京消防庁 카아펠 防災規制가 設定되 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防災은 1973年 2月 消防 法이 改正됨에 따라 必須化 施行을 보게 되었으나 實際로는 그 보다 앞서 1960年代에 國內 몇個 民間業체가 美國 및 日本의 技術을 迎入, 防災劑를 生産·販賣한 일이 있었고 當時에는 防災劑의 效果 未洽과 一般의 認識不足으로 明滅狀態를 계속해 왔으며 더욱이 法的規制 全無로 特記할만한 実績이 없었습니다.

* 防災處理 對象(消防法第11條 및 同法施行令第9條 参照)

高層建築物·學校·
共同住宅·工場·市
場·百貨店·圖書館 카텐·內裝物
·地下街·劇場·호 展示用合板
텔·病院·카바레·
댄스홀·나이트클럽

* 防災性能의 基準

防災性能의 基準은 消防法施行令과 同法施行規則에서 制定되었으나 絨(布: 얇은것과 두꺼운 絨으로 区分)과 合板·纖維板別로 一定한 接炎(micro Burner등)에 依해 殘炎時間, 殘煙時間, 炭面反應(炭化面積과 炭化길이) 등의 基準을 定해서 燃燒시험·吸濕시험·引張시험·腐蝕시험등을 거쳐 檢한後 適格基準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日本에서는 防災協會에서 認定하고 있음)

(參考)

各國의 纖維製品 防災規制

國 別	對 象	1971까지	1972年	1973年
美 國	衣類, 인비리어	可燃織物法 (1954年施行)		
	카아펠, 라구	告示施行 1971		
	兒童寢衣	告示 1971		
	에트레스	基準告示	發効6031	施行7.28
	毛 布	基準告示 1970		施行3.31
	航空機 및 乘務服	FAA 1969		
	船 舶	COAST GUARD		
카나다	自動車 內裝	FHA 告示	施行 9.1	
	커튼類	各州法		
	玩具	兒童保護玩具安全法 1969		
英 國	纖維製品	可燃基準 1971		
	兒童 老人 寢衣	消費保護法 1961		
	航 空 機	內裝基準 1956		
佛 國	500톤以上 商船	法令59191 1959		
	建材內裝	內務省令 1957		
日 本	카텐 工事用케이브	消防法 1969		
	부라이트, 展示用合板		消防法 施行令	施行 1.1
	鐵道카텐 內裝	鐵道監督局 1969		
	自動車카아펠		JIS作成	

結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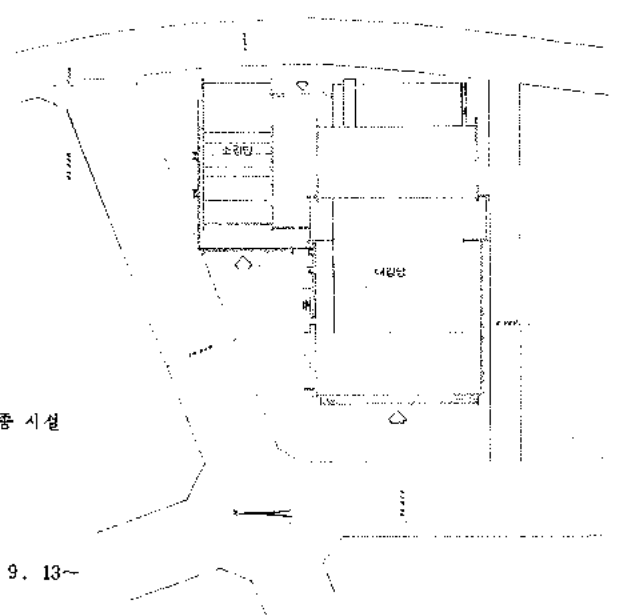
위와같은 內容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防災規制는 多少 뒤늦은 感도 없지않으나, 우리 人類만이 갖는 特權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 使用이 고보면 可燃性物品의 完全除去란 不可能할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火災로부터 입는 被害를 防止하기 爲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은 特殊場所와 特定物品에만 極限할것이 아니라 一般住居用 建物에서 커튼類는 勿論 모든 內裝物의 可燃物品은 防災性能이 있는 物品을 使用하는 일이 바람직한것입니다.

防災規制에 따른 性能시험이라든가 認定 그밖에 防災表示制度등 곧 施行되겠습니다만 이를 參考하시어 火災防止에 도움이 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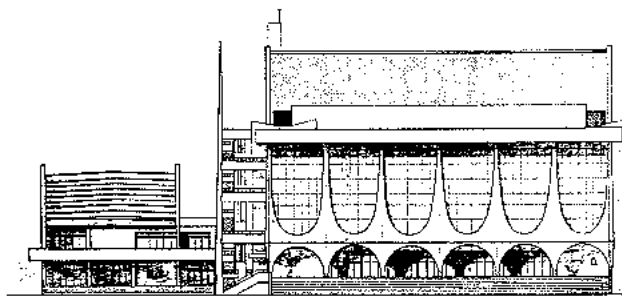


釜山市民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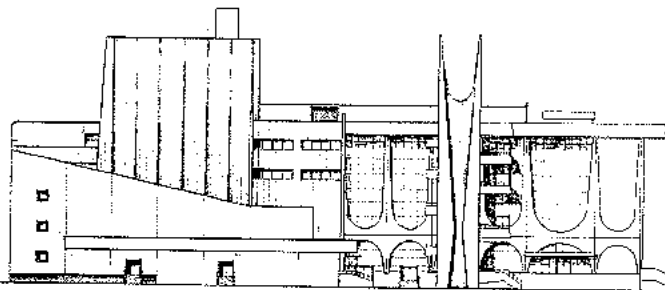
설계 : 申玉崗 金永權 李光魯 合作
 위치 : 부산 동구 범일동 830
 대지면적 : 8,263m²
 건축면적 : 4,557.30m²
 바닥면적 : 지하층 2,711.94m²
 1층 3,371.28m² (대강당
 1,186.02m² (소강당)
 2층 1,909.38m² (대강당)
 809.49m² (소강당)
 3층 1,424.61m²
 4층 1,367.19m²
 합계 = 12,779.91m²
 설비 : 냉난방설비
 각종조명시설
 음향조정시설
 안타론 시설
 영사시설
 회전무대 및 각종무대 53종 시설
 수용인원 : 대강당 - 2,204석
 소강당 - 470석
 회의실 - 150석
 전시장 - 130평
 사업계획기간 : 사업기간 → 1970. 9. 13 ~
 1973. 11. 15
 총공사비 → 96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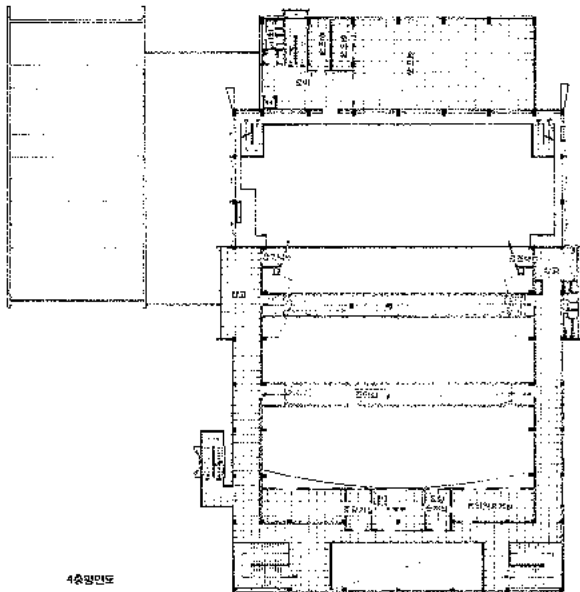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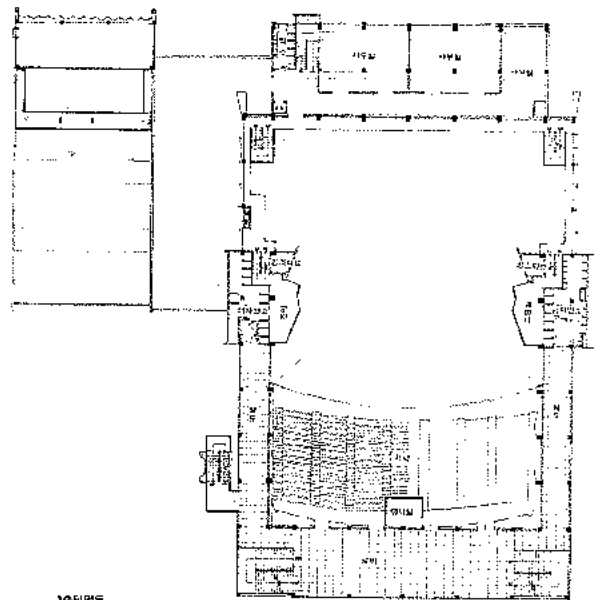
서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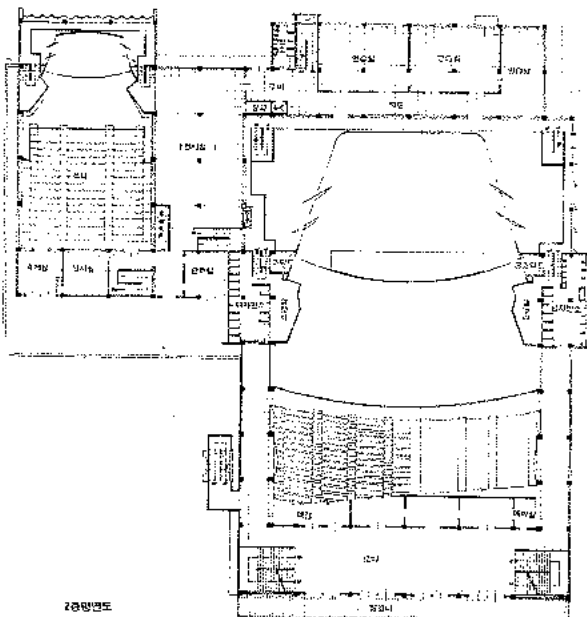
동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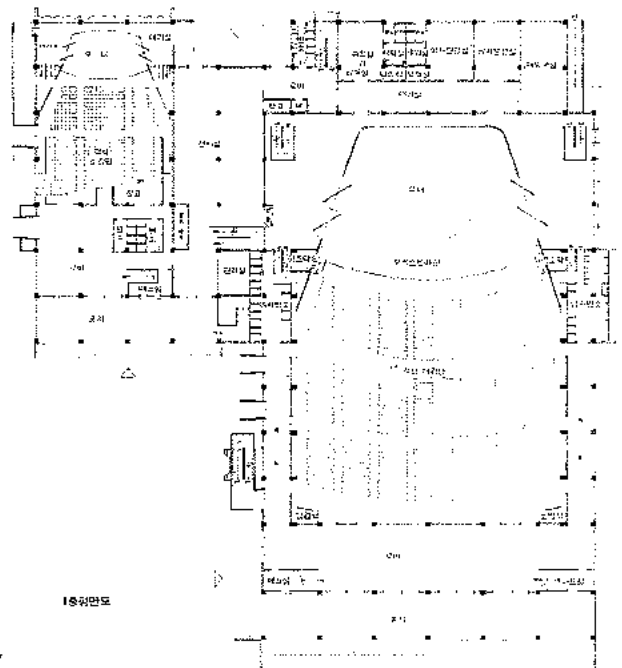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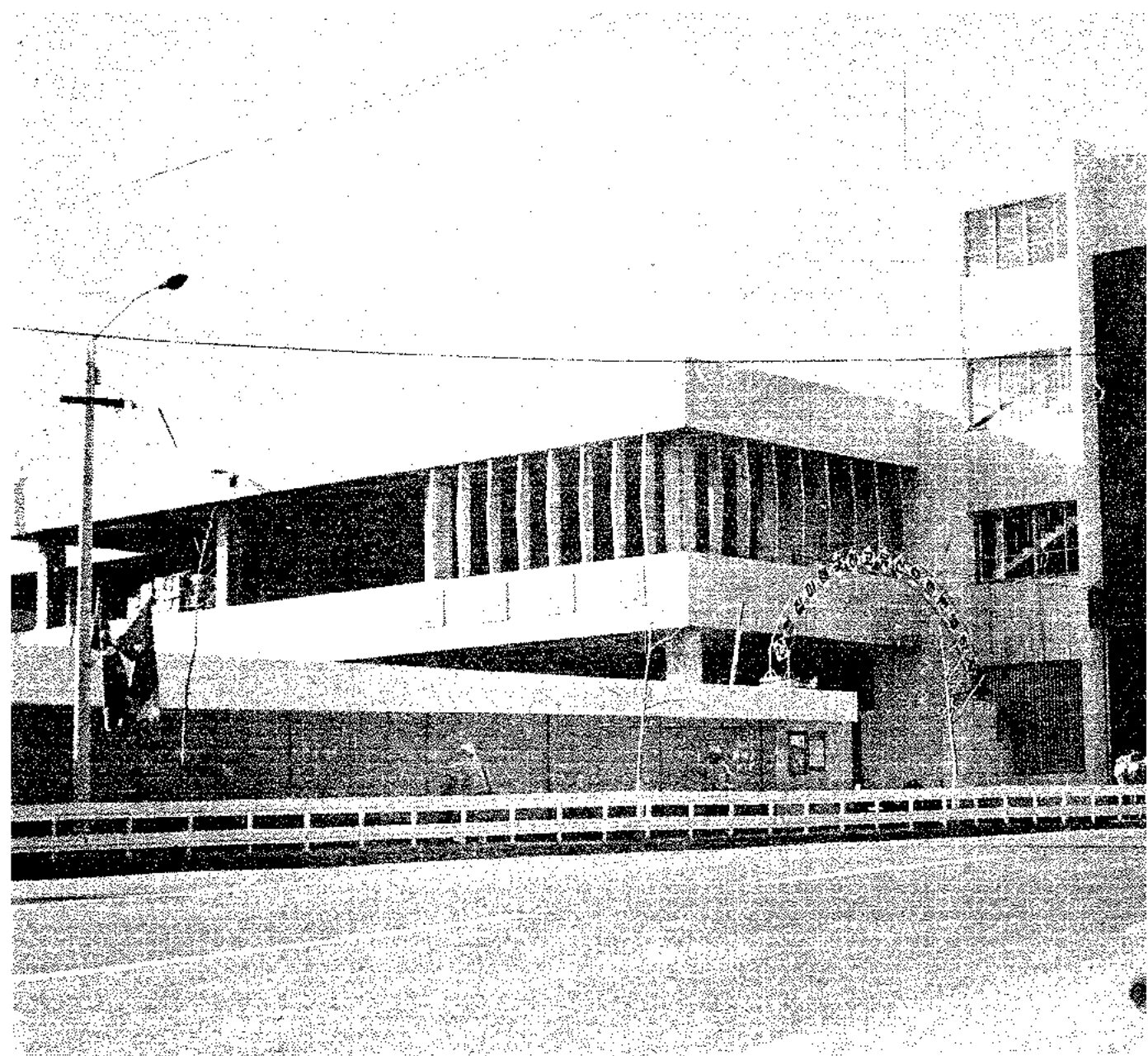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光州共販場

설계 : 新建築研究所 (代表 金泰萬)

위치 : 전남 광주시 양동 266-1

대지면적 : 2,897.4m²

건축면적 : 지하층 : 384m²

1 층 : 2,007.67m²

2 층 : 1,873.91m²

3 층 : 283.72m²

옥 담 : 62.44m²

전면적 : 4,611.7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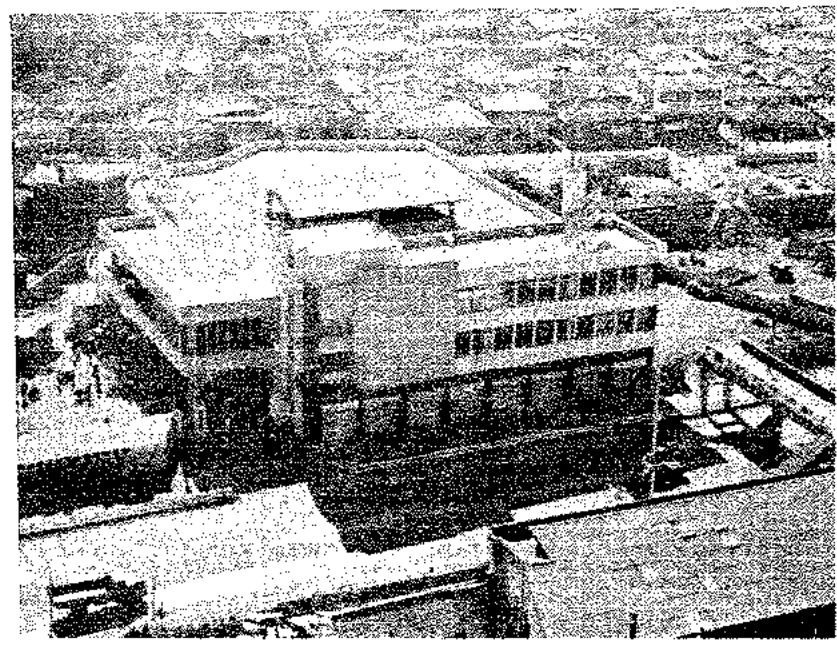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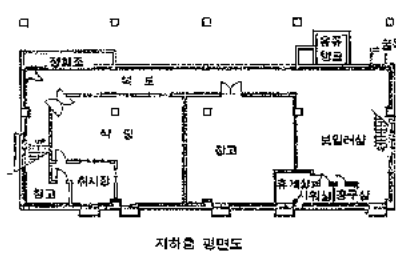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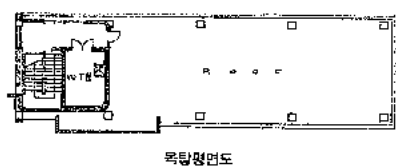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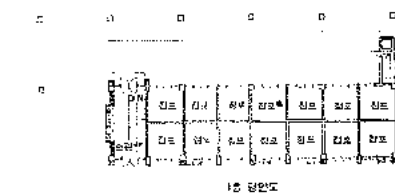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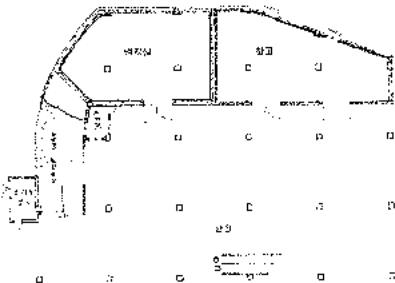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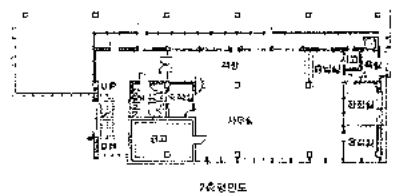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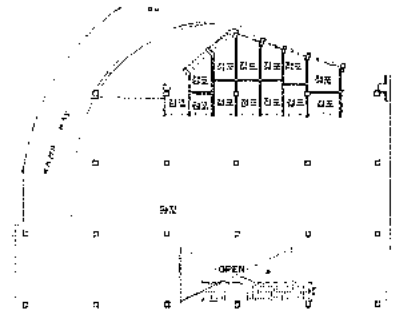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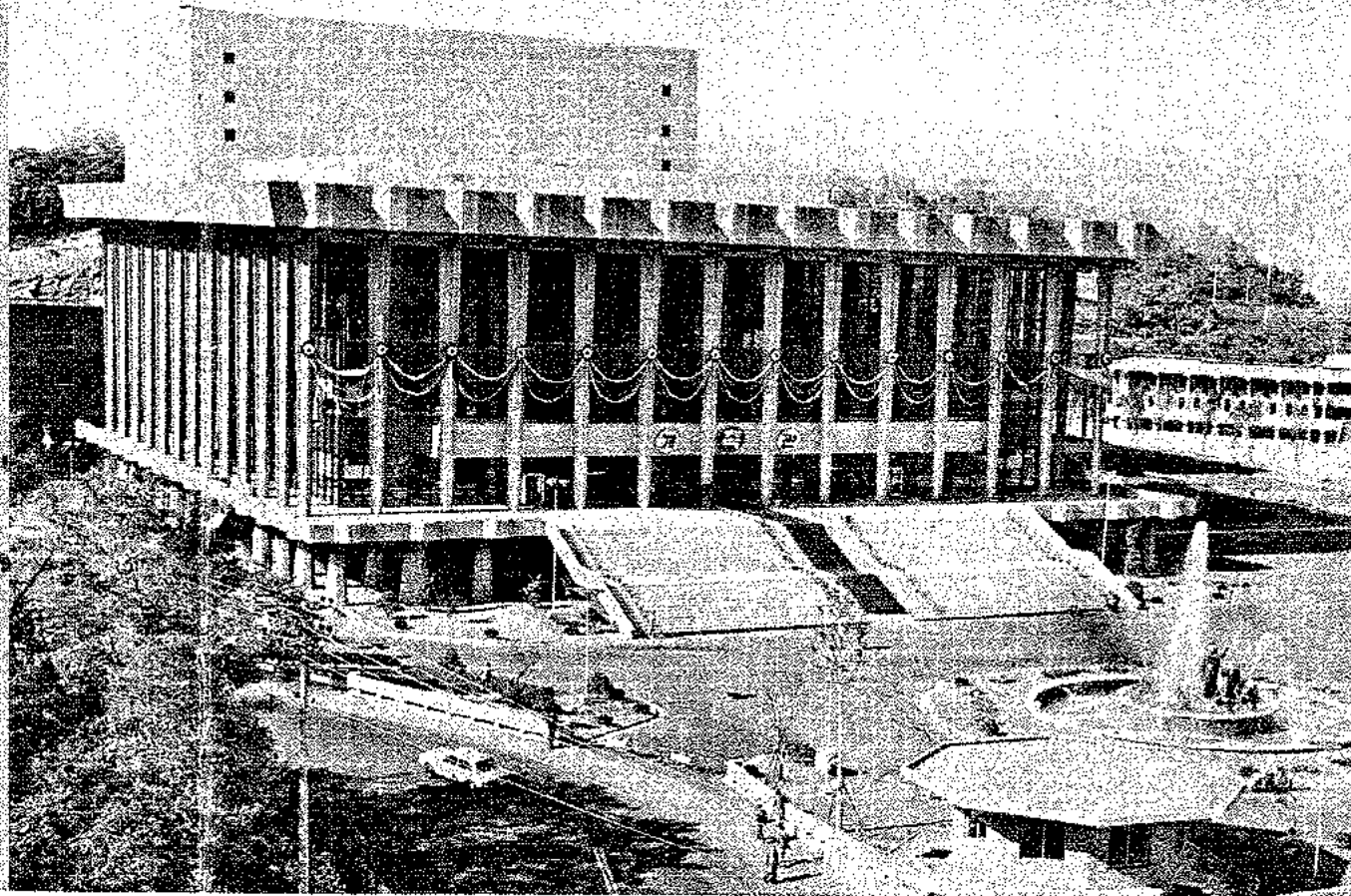
용도 : 농협공판장 사무실 및 관장

구조 : 이 수 곤

설비 : 원영기업사

준공 : 1973. 10





国立劇場 計劃設計에서 竣工까지

우리 民族文化의 殿堂인 新築国立劇場이 드디어 竣工이 되어 歷史의
인 開館의 幕을 올리게 된 오늘, 本 国立劇場의 設計를 擔當했고 6年間
監理를 맡아온 建築家로서 感慨無量함을 禁치 못하면서 国立劇場의 特
性만을 簡單히 紹介하고자한다.

大統領令에 依하여 綜合民族文化센터 推進委員會가 構成되고 本人은
그 委員會의 實務小委員으로 国立劇場 設計를 擔當했던 것이다. 이무렵
美國에서는 뉴욕에 링컨센터가 完成되고 日本에서도 모처럼의 国立劇場
이 처음으로 完成되던 때였다.

本人은 本 国立劇場을 좀 더 優秀하고 效率의으로 設計하기 위하여自
費로 世界各國의 国立劇場과 文化센터 施設을 두루 돌아 보았으며 특히 欧
洲에서는 오랜 伝統을 가진 各國의 劇場들을 觀察調査하고 우리의 国立
劇場 設計를 하는데 많은 資料를 蒐集하였다. 그러나 本人이 돌아온 여
러나라의 新築된 国立劇場이나 文化센터의 施設은 우리의 當初豫算과
比較할 때 너무도 많은 差異가 있고 距離가 있을만큼 完備된 施設을 갖
춘 훌륭한 建築들이었으므로, 本人은 어떻게하면 우리나라의 적은 豫
算으로 좀 더 效果的인 劇場建築을 設計할 수 있는나하는 問題로 相當
한 苦心을 하였고 이것을 언제나 念頭に 두고 지금의 国立劇場을 計劃
하는데 三大原則을 세워 檢討하였다.

李 喜 泰

그 하나는 새로 세워질 国立劇場의 性格이고, 다음은 劇場의 樣式,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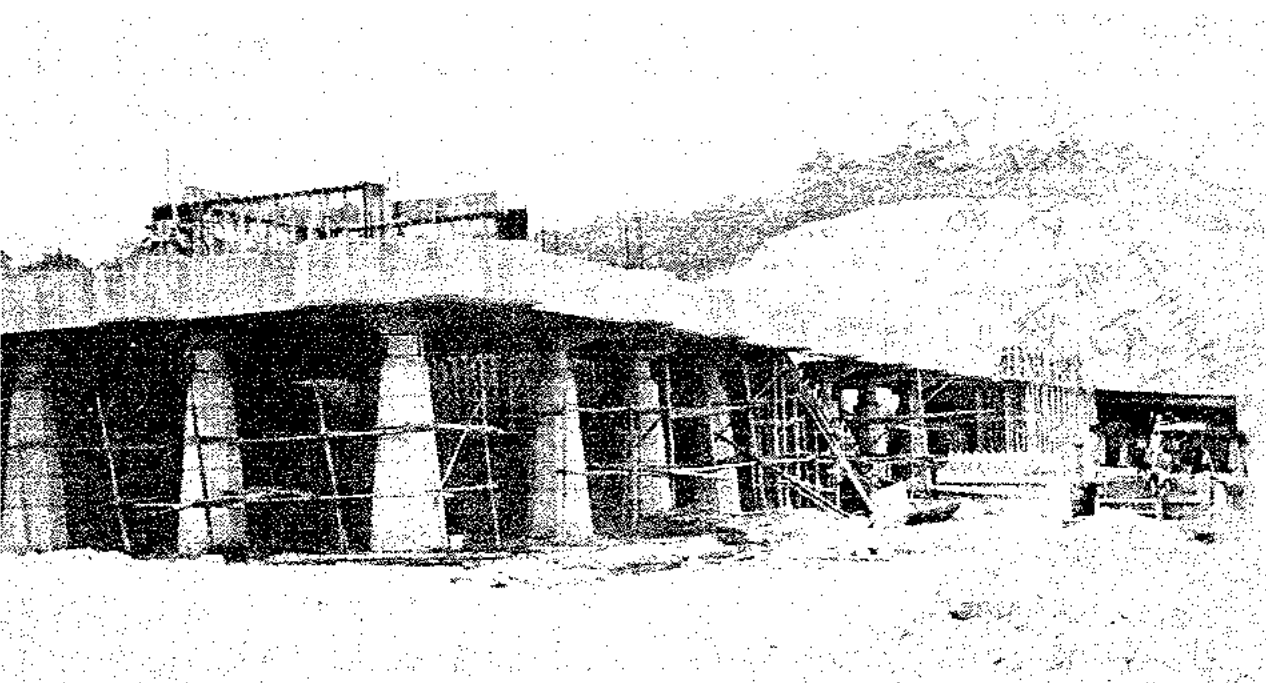
리고 機能이 었다. 이러한 세 가지 原則 밑에 計劃을 進行하면서 一方 空地選定問題로 상당한 고비를 겪어야했었다.

都心地에서는 이용장 한 새 劇場이 들어설 地는 到底히 求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距離에서 環境이 좋고 交通이 便利한 場所를 物色한 끝에 지금의 南山 東側 기슭으로 決定을 보았다.

地가 決定됨에 따라 劇場環境의 設計는 本格的으로 進行이 되었으나 前記한 三大原則에는 많은 問題가 놓여있었다. 첫째 劇場의 性質이다. 外國의 劇場들은 거의가 單一目的의 用途(性格)이다. 即 演劇專用이나, 아니면 오페라劇場으로서의 性格만을 지니고 있고 運營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國立劇場이 純粹演劇만을 爲主로 公演하는 것이 아니라 演劇 外에도 오페라, 발레, 交響樂 等等을 公演할 수 있는 그야말로 多目的劇場을 要望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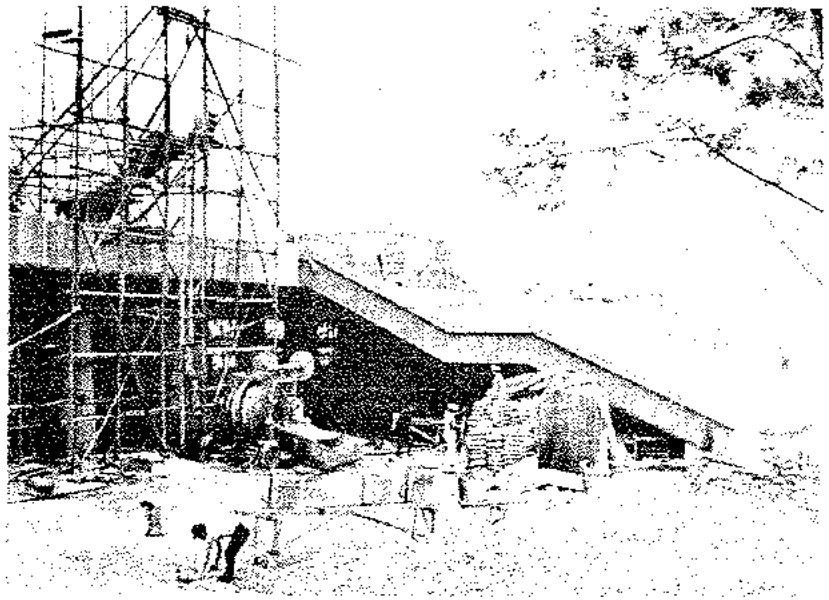
그래서 大劇場, 小劇場으로 나누어, 大劇場에서는 演劇, 오페라, 발레, 交響樂 등을 公演할 수 있게 하고 小劇場에서는 國樂演奏를 主로 하는 韓國古典과 小音樂會를 하는 性格으로 規定지었다.

400坪 舞臺에는 20m 徑의 廻轉舞臺를 中心으로 移動舞臺, 昇降舞臺, 100名收容의 오케스트라코트, 싸이클로라마, 映寫幕, 反射板 等等 施設이 되어있고 多目的의 公演에 對備한 11.5m × 24m 의 큰 프루세니엄아치(Proscenium Arch)로서 大劇場 客席을 맞아하고 있다. 客席 1,500 席은 演劇, 오페라, 音樂公演을 하는데 可視距離, 音響, 照明 등이 아주理



대극장 우측외랑공사 (68. 4. 20)

대극장 제단공사 (68. 4. 20)



想的으로 處理될 수 있는 規模인 것이다. 1,500名을 收容하는 客席의 諸要件을 더욱 合理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平面을 볼 때 客席의 길이보다 幅을 넓혀 可視距離를 줄이고 1層에 客席, 2層에는 Royal Box와 貴賓席 그리고 3層에 역시 一般客席을 配置하여 劇場의 斷面的인 處理로서 音像과 可視 問題를 아울러 解決하였다.

個個의 客席 配列에서도 國內에서는 볼 수 없는 넓은 椅子와 椅子間隔을 確保하여 觀客이 最大로 安樂性을 維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平安한 客席의 外廓에 있는 三面 유리로 된 넓직한 Lobby는 綠陰+太陽의 空間으로 休息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舞臺의 背面에 있는 管理棟에는 이 劇場에 出演하는 모든 藝術人들이 恒常 使用할 수 있는 扮裝室이 A. B. C級으로 나누어 施設되어 있고 特히 主演級이 使用할 A級 扮裝室에는 浴室, 化粧室, 扮裝室 外에 面會室까지 完備되어 文字 그대로 藝術人의 殿堂이 될 수 있다. 勿論 여기에는 練習室이 各各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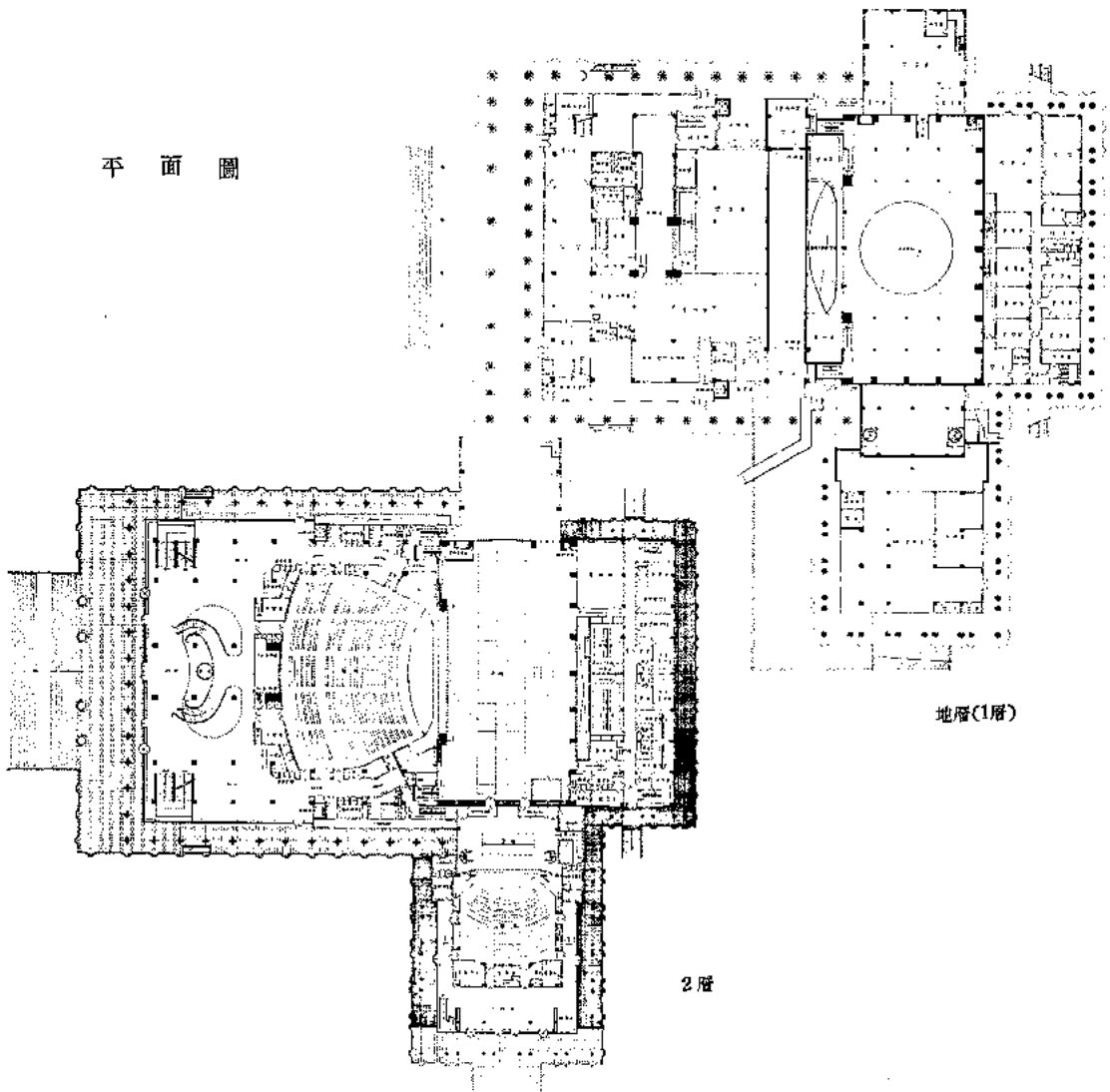
다음은 國立劇場의 建築樣式 問題인데 이 樣式 역시 前記 劇場의 性格이나 機能 못지않게 視覺的인 面에서 아주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特히 이 建築이 韓國民族文化의 殿堂이 된다는 點에서 볼 때 이 劇場이 지니는 樣式問題의 比重은 매우 크다. 劇場의 樣式은 外形的인 것과 內部的인 것으로 나누어서 考察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近代化 됨에 따라 많은 現代建築들이 계속 서나가고 있으나 本人은 建築家의 한 사람으로서 이 國立劇場의 竣工과 함께 韓國의 現代建築이 우리의 것으로 土着化해야겠다는 強한 執念으로 이 國立劇場의 設計에 臨해 왔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傳統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現代化해서 國立劇場 建築樣式으로서 具現시키느냐가 外形構成의 主眼點이었다.

本人은 우리의 傳統을 國立劇場 建築樣式에 具現하는데 外形的인 模倣이나 擴大가 아닌 어디까지나 內在的인 傳統의 表現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劇場形態를 나타내었고 이것으로써 우리 固有의 傳統美



平 面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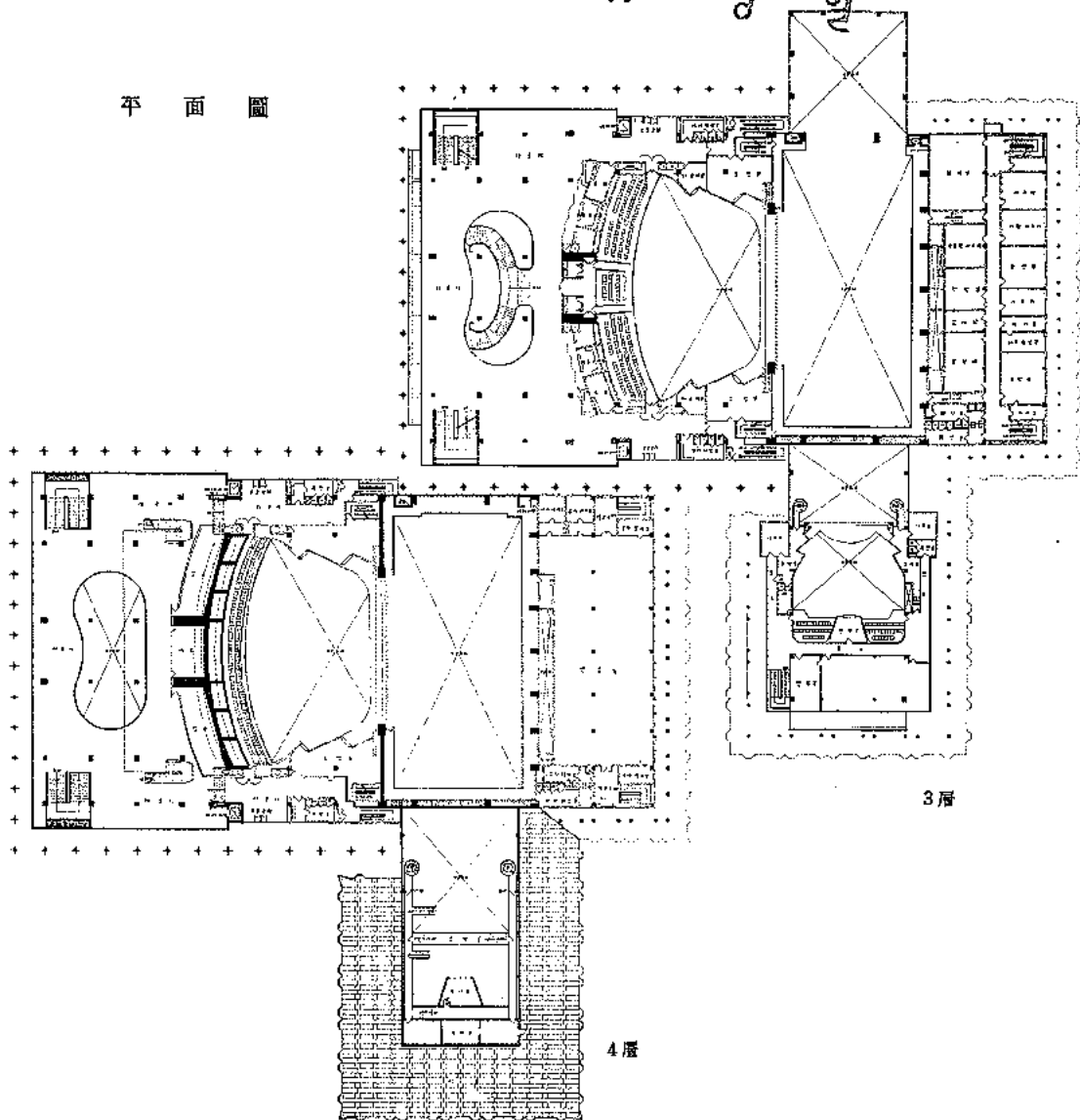


를 表現했다고 생각한다. 卽, 傳統的인 基柱, 柱廊의 아름다움의 現代
 化가 바로 그런 것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美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이 質感인데 外部를 石材로 構
 成하고 싶었으나 予算上의 制約으로 混凝土를 特殊한 方法으로 施工
 하여 混凝土 自体의 質感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質感을 圖謀하였다. 이
 새로운 混凝土와 시원한 커튼월, 그리고 獨特한 벽돌의 色과 質感으
 로, 單純하면서도 融合된 調和를 이루고자 努力하였다. 다음은 〈Inter-
 ior〉에 對해서인데, 壯嚴한 石造階段을 올라서서 1층 出入口를 들어서
 는 우선 中央에 시원스러운 Open Space로 된 Lobby가 있고 Royal Box
 專用階段과 左右에 一般階段으로는 各其 2層과 3層 그리고 地 層으로
 連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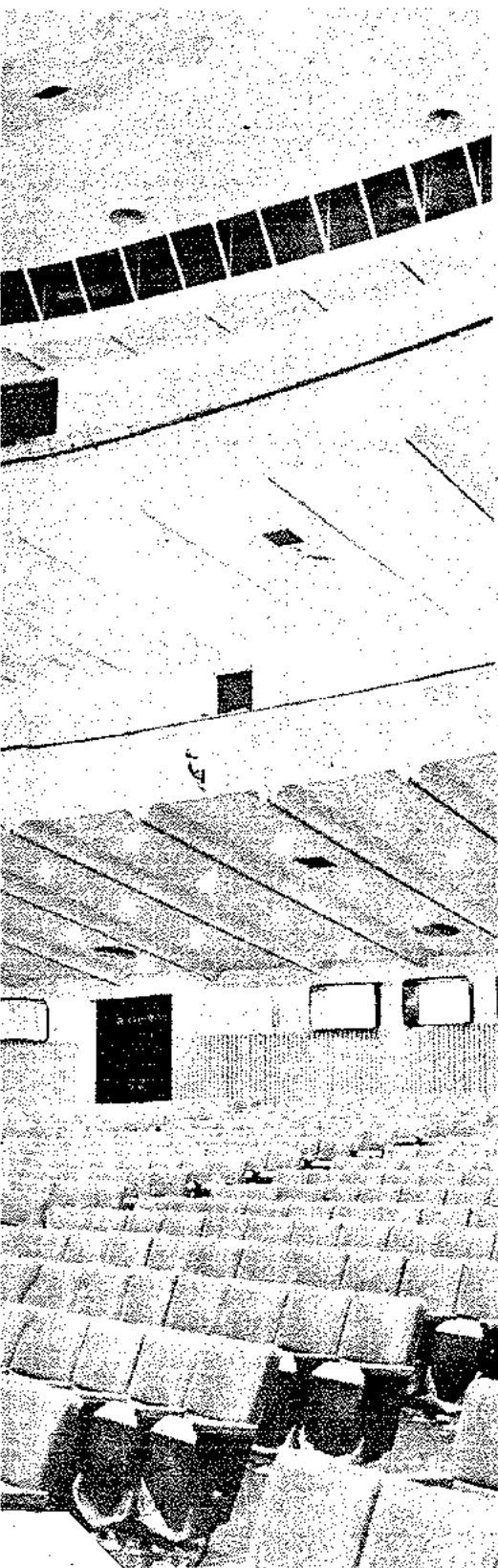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합동21의22
 유진건축사무소
 (13) 6047 김 병 일

平 面 圖



客席内部의 壁面, 天井 構成은 Interior中에서 가장 處理하기 困難하
 며 또한 제일 重要한 意匠 部分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모든 觀客이 舞
 臺幕이 오르기 前에 視線이 集中되는 곳임으로 그만큼 意匠的이어야 하
 며 反面 幕이 오른 後에는 舞臺에 集中되는 視線에 妨害가 되지 말아야
 하며 또한 音響이란 決定的인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는 重要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觀客이 形態的으로 아름답게 느껴야하고 聽覺的으로 滿足
 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本人이 이 國立劇場을 設計하고 竣工 때까지 傾注해 온 것은 劇場建築
 이란 出演者+觀客+劇場으로 三位一體가 되었을 때 비로소 所期의 目
 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一念이었는데 특히 이 客席의 壁과 天井은 이러



한 점에서 제일 重要한 比重을 차지한다. 이 客席의 壁, 天井의 構成과 色彩如何로써 觀客이 音を 귀로만 듣지 않고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確信해서 지금의 内部意匠을 完成시켰다.

舞 臺

1. 舞 臺

당극장 무대는 직경 20m 길이 10m에 달하는 회전 무대와 이 회전무대내에 대형 (12m×3.6m), 소형 (2.7m×1.5m)의 승강무대 2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승강무대는 무대바닥 面上을 상단으로 승강行程 7m로 되어있다. 또한 회전무대는 3단으로 變速되어 最大速度 50秒에서 最小速度 3分, 180度 회전하고 무대만은 5,000kg의 적재량으로 배분 5m의 속도로 승강동작시키며 부대회전 중에도 승강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급속한 무대전환을 할 수 있다.

이 승강무대가 밑에 내려가 있을 때 무대면의 開口部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망을 開口部의 주변에 설치, 추락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무대기구중 당극장의 最大특징은 회전무대가 정지시 좌우에서 이동무대 (12m×3.6m) 2대가 무대 중앙까지 동시 또는 단독으로 이동하며 이동무대 설비에 따라 좌우 무대바닥 面土를 맞추기 위하여 대형 (3.6m×12m) 2대 중형 (3.6m×3.95m), 소형 (3.6m×2.6m)의 枕下무대가 連動 상승되어 지며 이 枕下무대는 5초 속도로 0.3m거리를 동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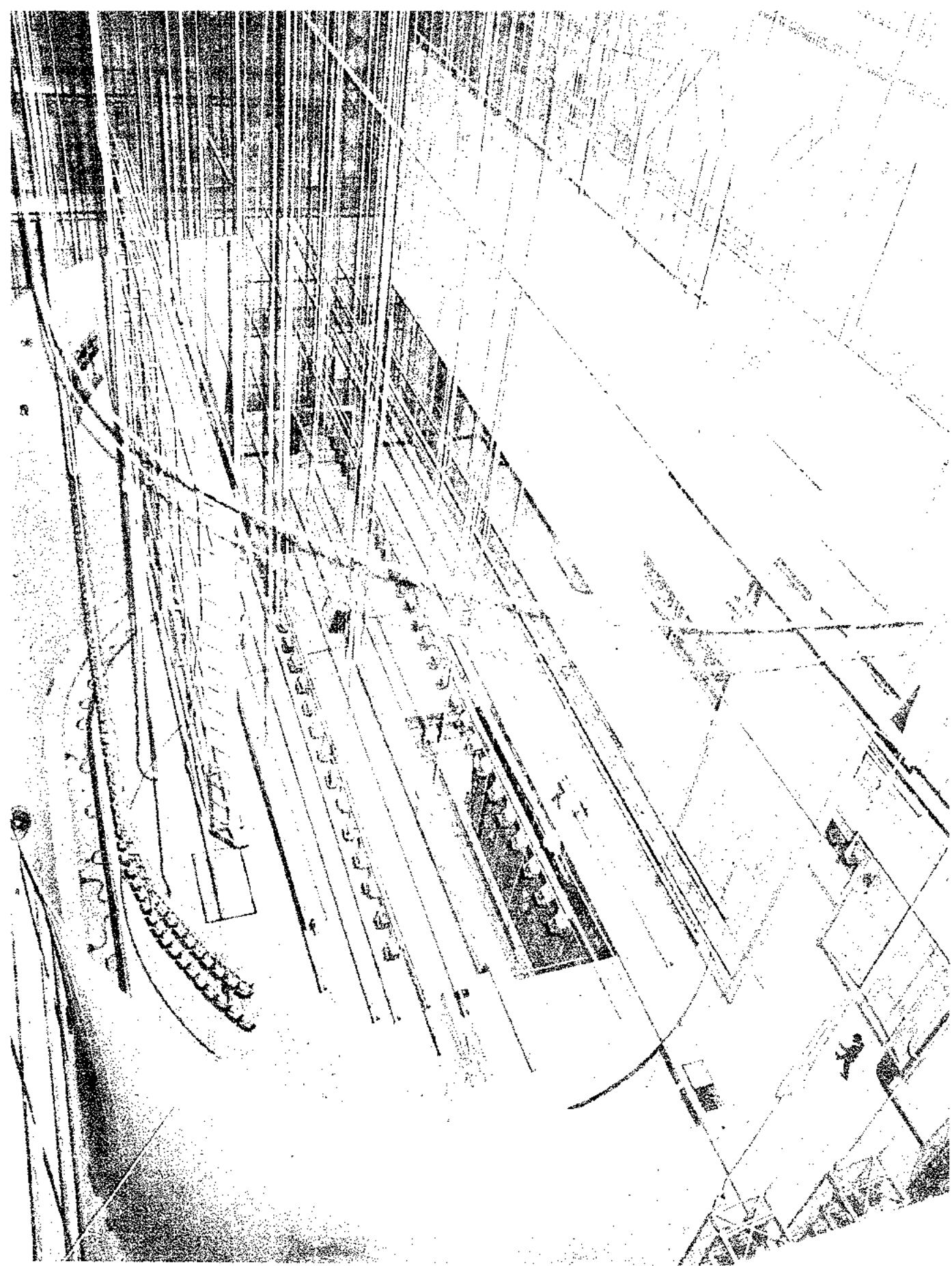
그외에 무대전면에 설치된 오키스트러릿트 (4.5m×24m)는 대형승강무대로, 적재 무게는 8,000kg이며 4.5m거리를 유압식 기계로 배분 2m 동작하고 이 기계의 정상위치는 4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오키스트러릿트와 무대전면 바닥 부분에는 자동승강용 엘리베이터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다. 이러한 복잡한 기구는 무대좌측에 있는 종합 조작감의 놀람 스위치로 자유로히 움직이며 무대진행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어 무대기구도 외국 극장과 비교하여 국제수준이다.

2. 늘임대(吊物)

늘임대 설비는 下記와 같은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면막	1	프로세니엄부릿지	1
모형(주름)막	1	효과용 부릿지	1
암전막	1	보나라이트	4
벌림막	3	서스펜션 라이트	4
옆막	3	프로세니엄라이트	1
가림막	6	中호리존트라이트	1
中호리존트막	1	大호리존트라이트	1



8층 높이에서 본 무대 조감

무대 조정탁



대호리 콘트락	1	라이트 타워	6
스크린	1	음향반사판	7
대 흑막	1	늘임대 박톤	18
안개막	1	외장막	1

이 무대의 늘임대 설비중 16개는 자동이며 37개는 수동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무대 시설의 특징은 엄중한 안전설비가 있어 고도로 기계화되어 기구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으로서 각개소 안전을 확인한 후 작동이 되도록 신호 및 표시를 계통화하고 있다.

照 明

新築国立劇場의 照明施設은 가장 現代的인 技術에 依해 多目的 으로 劇場舞臺를 照明할 수 있도록 「리모트 콘트롤」設備가 되어 있다.

우선 照明器機의 總燈數는 무려 2,007燈이며, 1,734,000w나 된다.

電源은 3相 4線式 100V로 供給되고 있으며 客席調光負荷回路를 포함 全 容量은 750kw로 되어 있다.

1 層觀客席위 右側에는 RDS製 SCR調光器가 設置되어 있고 自動式으로 色을 變化시킬 수 있도록 操作된다. 칼라交換機는 無音으로 角度까지도 自動的으로 變化되며 7場面을 미리 對備할 수 있는 「7段프리세트」와 6個의 補助機(13場을 Pre-set할 수 있는)가 달린 調停板이 있다. 舞臺負荷回路를 電子開閉式의 一部로 플러그에 의해 自由롭게 色相 및 位置를 마음대로 選択할 수 있는 調光方式으로 되어 있다.

客席調光裝置도 버튼 하나로 自動 및 手動으로 明暗調節을 할 수 있는 SCR調光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客席위 No. 2열링에 設置되어 있는 「크세논」2kw스포트가 4臺 가 있어 一般的으로 10m에서 1,000룩스의 光量이 普通이나 이번 設置된 No. 2열링스포트는 50m에서 5,000룩스의 光量으로 設備되 있고 칼라 TV 中繼에 매우 便利하게 設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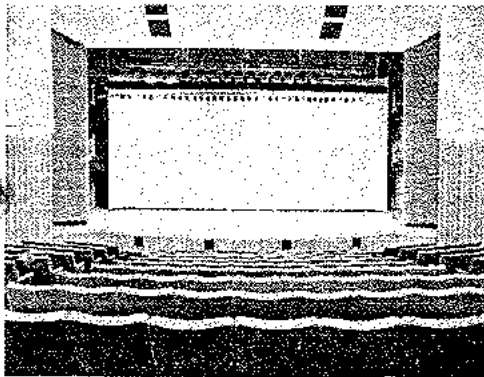
조명 조정탁 조명 유닛트

소극장 무대조명기구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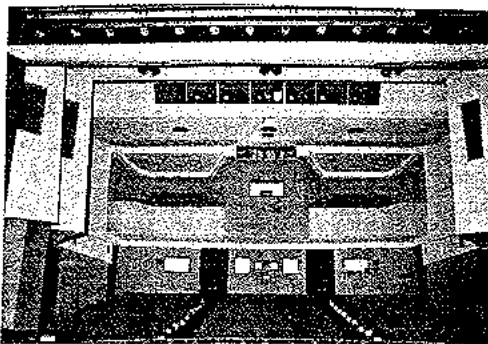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비고
조정실	조정탁 108개의 페다 프리셋트 4단 자동칼라 조작반 마그네틱 D/L 스위치 150 회로 매트 판넬 자동 객석 조광조정장치	
유닛트릴	6kw 더머 유닛트 36 6kw " 3	무대조명용 객석조명용
무대	후트라이트 600W×60 보타라이트 200W×601 색스펜션 kW×44 아파호리존트 500W×74 로워리존트 500W×60	
No. 1실링 No. 2실링	2kw×24 마그노칼라 24대 500W Xenon(크세논) 4대	자동색치교환기
프론트 사이드	2FSL 1.5kw×12 마그노칼라 4대 2FSL 1.5kw×12 마그노칼라 4대	
플로어 포켓트	30A 1구용×12 30A 2구용×4 30A 3구용×10 60A 1구용×2	표적기구 전원소 켓트

대극장 무대조명기구 및 시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조정실	조정탁 140개 페다 1) 프리셋트 7단 2) 자동칼라 조작반 3) 마그네틱 D/L 스위치 4) 480회로 매트 판넬	객석용 페다자동 칼라 2,500룩스 후배 4,000 "
유닛트릴	6kw더머 유닛트 110개 12kw " 30개 12kw " 4개	무대조명용 " " 객석조명용
No. 1실링 (천정)	2kw스포트 라이트 60대 자동 칼라기 60대	3색치 교환용
No. 2 실링	2kw Xenon(크세논) 편 4대	50m 거리에서 5,000룩스
프론트 사이드	2FSL 1.5kw×10 Xenon편 1대 2kw×8 2FSL 1.5kw×10 Xenon편 1대 2kw×8 3FSL 1.5kw×12 Xenon편 1대 2kw×19 3FSL 1.5kw×12 Xenon편 1대 2kw×19	Xenon(크세논) 500W 4대 20m거리에서 1,000룩스
무대	후트라이트 100W×112등 로워리존트 300W×144등 프론트사이드 라이트 1kw×24등 보타 라이트 200W×456등 색스펜션 1~4 1kw×136 미들 호리존트 라이트 500W×100 아파 호리존트 라이트 500W×160 마위 라이트 1.5kw×64 오케스트라 라이트 1.5kw×18	승강 4개 계 1,391,400W
플로어 포켓트	30A 1구용×6개 30A 2구용×14개 30A 3구용×14개 60A 1구용×8개	효과기구 전원 셋트



小劇場의 客席 全景



舞臺에 設置되어 있는 「후트라이트」는 自動的으로 開閉 및 角度가 變化하게 되어 있다.

天井에는 舞臺全体的 均等한 照明을 하는 렌즈없는 「보타라이트」가 있고 背景의 上部에 照明되는 「아파호리존트라이트」가 있고 舞臺의 演技面에 照明을 하는 「색스펜션라이트」와 側面에는 6개의 「타워라이트」가 設置되어 있다.

舞臺에는 背景에 地平線, 水平線 해드는 場面, 해지는 場面, 地平線 부근의 빛의 變化를 多樣하게 보사할 수 있도록 移動式 「스트리프 라이트」가 있다.

客席天井에는 「실링라이트」가 있어 全舞臺에 均等한 照明을 한다. 重要的 演技者의 動作에 照明을 하는 移動式 「플로우 센서스포트」와 側面壁上方에 또한 演技者의 動作을 따라서 照明해주는 「사이드 후톤트스포트」가 있다.

이상과 같이 照明機械가 配置되었을 때 舞臺의 照明問題가 있으나 이번 새 劇場은 全回路를 点燈하였을 때 舞臺바닥 1.5m높이의 照度를 普通 800~1,200룩스로 維持할 수 있으며 컬러 TV 受信機는 2,000~3,000룩스까지 윤될 수 있는 完備한 設備을 자랑할 수 있다.

音 響

大劇場 内装設計

대극장은 연극 음악 등 다목적 극장으로 설계되었다. 殘響시간의 最適値에 대해서는 여러안이 있으나 연극의 最適치와 음악의 最適치를 절충하여 500C/S에서 1.0초(관람석 80% 수용시)를 설계 목표로 정하였다.

殘響시간의 주파수 특성에 대하여도 여러 제안이 있었으나 대체로 전 주파수에 걸쳐 큰 凹凸없이하고 低音域을 약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500C/S에서 약 1.4배가 되도록 하였다.

재료의 선정 및 잔향계산

대극장의 관람자 입장시(약 1,500명)의 목신한 의자와 관람석의 흡수력은 설계 목표의 잔향시간을 갖기위한 필요한 全吸音力の 34%를 점유한다. 그로 인한 中高音吸取構造体の 사용면적은 많은 제한을 받게된다.

音響設備

音響設備는 音樂, 발레, 演劇 等等 使用目的에 応할 수 있는 多目的 Hall로서의 設備를 갖췄으며 使用器機는 BTS規格(放送技術規格)에 의하여 製作되어 있으며 當劇場에 使用한 기기는 世界的으로 유명한 各会社の 製品을 사용하여 Hall電氣音향의 완벽을 기하고 있다.

音響室

主調整卓—음향조정실의 主調整卓은 프로그램선택 스위치에 의하여 30個의 入力를 6個채널로 포함하는 구름마드릭스 回路와 6채널을 35個의 PA AMP에 分配하는 出力마드릭스 回路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使用目的에 따르는 음의 분류를 自由자재로 할 수 있다.

効果用調整卓—効果用 조정탁에는 프로그램선택 스위치에 의하여 15個의 入力를 3個의 채널로 도합하는 구름마드릭스 回路와 15個의 PA AMP에 分配하는 出力마드릭스 回路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使用目的에 따르는 음의 분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녹음기와 레코드플레이어를 리모트 콘트롤 할 수 있는 장치와 음성 이동 効果장치 및 음향지연장치를 도합할 수 있는 시설로서 多目的 Hall의 효과 調整卓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電力增幅器

電力증폭기는 스피커의 부착 位置기능별로 区别하여 使用하기 때문에 전력 증폭기 45대가 設置되어 있으며 출력 100W 전공관式과 트랜지스터를 使用한 120W의 器機印을 가지고 있다.

스피커

當劇場 객석内部에 使用한 스피커는 美国의 Altec社의 製品으로서 프 로세니엄스피커는 Hall전용으로 中音部에 808-8A 3個와 低音部 416-

중앙 전력 감시반

공조 감시반

8A 3個 高音部에 3000H 6個가 1組가 되어 3組로 구성되어 있으며 天井의 効果用 스피커는 605B의 15인치 25個를 使用하였으며 무대 効果用 스피커는 Altec의 A₄형으로서 HF에 288C와 LF에 515 B로 구성되어 있고 壁效果用 스피커는 849A의 박전용으로서 405形 5개가 1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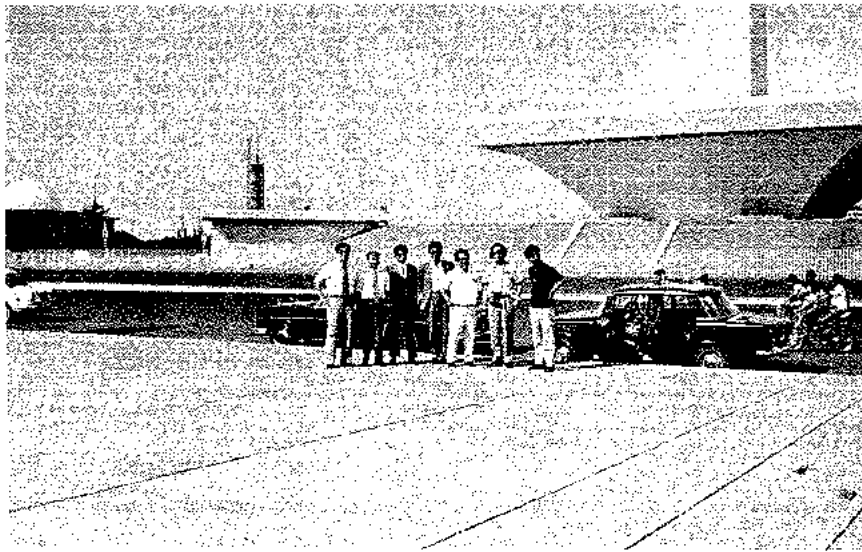
收音施設

무대바닥에 48個의 마이크의 Outlet Pannel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무대의 어느곳에서나 收音할 수 있으며 객석 内部에 설치된 Air Mic 를 이용하여 객석내부의 音聲을 들으면서 음향 조절을 할 수 있으며 全自動 3點 느림장치를 이용하여 무대의 전체음을 收音할 수 있으며 自動 엘레베타 마이크스텐드 5 개를 갖추고 있다.



소극장 현관

濠洲 및 東南亞 紀行 (2)



벨레카 競技場

崔 昌 奎

韓國建築家協會長

(前分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會長에 選出되던 協會事務所도 그때마다 移轉되는 모양이다. 泰國建築家協會도 그러했다. “Mr. Pakinson” 氏는 우리一行이 人事를 하고 濠洲에 온 事由를 말하고, 어제 “시드니”에서 Mr. Gilling 氏도 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얼핏 알아 물어지면서 謝過와 辯明을 늘어놓고 얼렁뚱땅 한 말로 “CAA-UIA 會議” 이야기를 避하며, 자기 집 자랑과 “리빙” “베드룸”까지 案内한다. 그래도 못 견디겠는지 누구와 急한 約束이 있다면서 案内와 說明을 “Mr. Puntion” 氏에게 맡기고 허둥지둥 外出한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 저런 親田가 다이나./」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들의 生活態度와 生活樣式이 그러니 하는 수 없구나 하고 참았다. 歸國하고 안일이지만 協會에 到界 다음날 나가 보았더니 “Mr. Pakinson”에게서 鄭重한 謝過의 便紙가 별세 와있었다. 何如한 이번 會議延期問題는 確實히 濠建築家協會가 큰 失手요. 창피한 일임을 그들은 잘 認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린 “캠버라”의 가장 높은 丘陵에 올라가서 全市街를 두루 살폈다. 人口 45,000이라는 이 首都가 이렇게 広闊할 수가 있을가 湖水와 숲사이에 建物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가끔 高層建物들이 보인다(高層이라야 겨우 10層未滿이다) 우리 大使館新築地에도 가보았다. 멋있고 좋은 築地이다. 바로 걸 건너에 日本 大使館이 있다. 옆집이 泰國 大使館이다. 바로 이 “레드 힐” 地區는 外國公館地區여서 모든 外國 大使館들이 配屬되어 있다. 큰 BUS에 小學 1, 2 年生이 40~50名 물려와서 先生이 日本 大使館을 가르키며 무어라고 說明해 주고 있다. 꼬마 개구쟁

이들이 참새떼 같이 떠돌아댄다. 나는 그걸에 가서 열 들었더니 先生의 말이 “여러분 建築物은 日本人 大使館입니다” 式으로 日本에 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外田이야기를 해주는 授業時間임을 알았다. 各國 大使館이 한區域에 있으니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便利할 것이다. 나는 갑자기 장난기가 나서(아이들이 귀여워서) “여러분 어쨌든 덕이 明年에 新築이 되는 韓國의 大使館입니다. 우리는 建築物 짓는 것을 살펴보고서 서울에서 온 韓國建築家들입니다.” 하고 先生의 흉내를 냈더니 꼬마들이 와./ 하고 우리 大使館築地를 바라본다. 先生도 어이가 없다는 表情이었으나 이내 “여러분 韓國을 아십니까? 우리軍隊가 몇年前 韓國戰作에도 參加했습니다. 꼬마들이 또 와-한다. 젊은 女先生은 明朗하고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우리는 商街에 나와서 中國飲食店(最高級)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湖水가를 거쳐 若干의 遊覽을 하고 비행장으로 나왔다. 해는 저서 어두워지고 가랑비가 내리기 始作했다. 原來 濠洲란 降雨量이 적어서 農村마다 貯水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濠洲에 4泊5日間 있는 동안은 가랑비나마 2번이나 왔다. 燈불이 커진 조용한 窄港에서 “시드니”行 Ansett 機로 올랐다. 窄港에서 본 “캠버라”市는 우리나라의 시골마을이나 적은 都市같이 보였다. 8시에 “시드니”에 着陸하기 바쁘게 호텔로 달려왔다. 嚴局長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호텔에 와보니 嚴局長이 없다. 걱정이되어 公園에 두 권이나 나가서 公園內를 Mr. 嚴 Mr. 嚴하면서 찾았다. 조용한 밤公園에 Mr. 嚴을 부르는 내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하는수 없이 HOTEL도 돌아오니 모두들 걱정을 했다. 10時30분이 되어도 Mr. 嚴은 돌아오지 않는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보니 C. P. A. 의 작은 가방이 카운터 옆에있

다. Front에 붙어보니 오늘밤에 한 韓國人이 와서 말기고 나갔다는 것이다. 가방을 열어보니 Mr. 嚴의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가방을 가져고 올라와서 큰소리로 Mr. 嚴이 왔다가 외출하였으니 걱정할것 없다고 하여서 모두가 安心을 했다. 11시에 Mr. 嚴이 泰然히 돌아왔다. “야 이사람아 어딜갔다가 이제야오나”했더니 “집은 찾았겠다 市内 求景하고 映画도 보고 온다”는 것이다. 모두들 어이없다는 式으로 웃어댔다. 우리는 무척기뻐서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맥주를 꺼내다가 歡迎PARTY를 했다. 우리가 金龍을 떠난 다음부터의 Mr. 嚴이 온 이야기를 듣고서 苦生했구나 海外旅行이란 그리 쉬운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Mr. 嚴은 公文과 其他書類와 선물을 꺼내고 나는 Mr. 嚴의 카메라를 주었다. 모두가 즐거운 밤이라면서 “氣分이다” 나가자 하고 말거리로 뛰어나갔다. Kings Cross street. 이 거리는 “시드니” 中心部에 있는 歡樂街이다. “BLUE MOVIE”를 보고 “쇼”도 보고 붓노래를 부르며 2시에 돌아와서 寢台에 파묻혔다.

8月15日(水曜日)

오늘은 光復節이다. 領事館에서 밤 7시에 紀念式을 하니 꼭 參席해 달라고 하나 우리는 11時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떠난다고 했다. 아침에 Kotra에 가서 Mr. 嚴이 身勢진 人事를 했다. Mr. 嚴이 昨日 領事館에서 자고먹고 Kotra의 趙氏가 市内 案内며 점심까지 사주더라는 것이다. Mr. 嚴은 “시드니”에 到着하자 領事館을 찾아가서 우리를 못찾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뺏장을 부렸고 領事인들 別道理없이 自己집으로 데리고가서 便利를 提共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칸베라”에 電話로 連絡 해주었다. 오히려 우리들 보다 더 잘먹고 자며 求景도 잘한 셈이다. “칸베라”만 메종고는 一行은 호텔에 10時半까지 集合해서 興行했던 “오페라 하우스”를 뒤로하고 空港으로 나갔다.

機内の 食事は 좋았고 “인도네시아”의 案内嬢은 까마쌌쌌하나 制服이 인도네시아 固有衣裳으로 신기했다. 金漢根氏는 그곳이 좋으면서 “자카르타”에서는 저 옷을 사서 마누라에게 입혀야지 하며 베틀다. 案内嬢에게 말을 걸었더니 自然스럽게 대꾸를 한다. 寫眞을 찍자 했더니 O. K 하며 와서 어



泰國建築家協會 入口에서

께에 손을 걸치고 포즈를 取한다. 아주 進取的인 아가씨이다. 이룸도 住所도 나이도 묻는데도 적적 對答한다. 비행기가 ‘바리’島 上空을 지날 때 “M-AIYON”火山이 보인다. 바로 噴火口 위로 나르니 빨리 噴火口가 내려다 보인다. 커먼 煙氣가 둥글둥글 일어난다. 무서운 程度이다. 이 火山은 “인도네시아”에서 唯一한 活火山이다. 이 “바리”섬은 民俗舞蹈과 觀光地로 有名한 곳이다. 西歐人들의 別莊村도 많다고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人口가 1億2千萬이나 되는 多島國家이며 煙草, 胡椒, 커피, 고추等 香料産地로 世界에서 으뜸 가는 곳이다.

“자카르타”에 到着한 것이 午後 4時30分이다. 氣候가 몹씨 덥고 濕氣가 많다. 空港의 손님도 그리 많지않다. “Marcoporo Hotel”에 設宿했다. 沐浴을 하고 저녁을 먹고나니 瞋渴해 졌다. 자리가 寬敞하고 印象나쁜 親旧들이 우글거려고 ‘氣分’이 나쁘고, 地理도 잘 몰라서 밤거리로 안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空港에서 부터 택씨며 호텔 案内가 다 異常했다. 택씨값도 切半以上이나 부르는게 다르고 “Porter”도 賃이 적다고 強制로 要求한다. 이때까지의 어디보다 음산한곳 같아 보였기 때문이고 가장 큰 原因은 우리 農林部職員이 고추사라왔다가 택씨 廻轉手가 北韓大使館에 데리고 갔다는이야기를 서울에서 들은 일이 있고 市内에 北韓大使館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도 好奇心이 나서 나는 Mr. 嚴을 데리고 가만히 밖으로 나왔다. 寬闊한 거리를 걸어서 한참가도 영 繁華街가 나오질 않고 으스스해만 진다. 집도나고 해서 Taxi를 불러서 「新建築」에서 본 「日本人成建設」이 戰前留賞으로 지어주었다는 「Hotel Indonesia」로 가라고 했더니 O. K. 한다. Taxi는 우리가 거닐던 反對方向으로 산다. 10分程度가니 繁華街의 눈에익은 建物이 보인다.

다. Hotel Indonesia이다. 어마어마한 호원에 들어서니 맨앞로 땅바닥에 12명이 古典衣裳을 입고 印尼의 民俗音樂을 演奏하고 있다. 樂器가 모두原始的이고 怪常한 것들이다. Coffee shop에 들어가서 보니 家私가 싸구려이고 말이 아니다. 室內裝飾도 엉망이다. 壁面도 幼稚하다. 建物の 施工密度도 말이 아니다. 日本人들의 악삭바름이 눈에 보인다. 이런 建物を 新建築에 寫眞으로 大々적으로 掲載한 新建築編輯長 馬場章浩의 속이 들여다 보인다. shop에서 그림 葉書를 몇장 샀다. 바로 옆집에 가서 SLID가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한다. 貧弱한 shop들이다. 거기서의 그림 葉書의 價格은 $\frac{1}{3}$ 이나 더싸다. 當然해서 왜 이웃가게와 다르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店舖는 位置가 Lobby 쪽이어서 더비싸다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이야기나. 이런 일은 다음날 더욱 알았다. Taxi 값도 인력거 값도 에우리가 되는데 切半이나 半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三倍나 더 무는 셈이다. 기막힌 都市이다. 이리저리 활일없이 기웃거리다가 문득 오늘이 光復節이니 우리 大使館에서 어티션가 記念式을 한덴데 Djacarta 서라면 이 Hotel밖에 할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Reception room이 어디냐고 물어서 가 보았더니 祝 光復節이라고 生花로 크게 써논 곳이었다. 或은나 以北側이 아닌가 하고 燥心스럽게 보았더니 Mr. 嚴이 아—太極旗입니다. 하고 소리친다. 우리는 그냥 달려가 式場으로 마구 들어갔다. 入口에 서있는 젊은 친구들이 번쩍 번쩍 하는 것도 아랑곳없이 演壇쪽으로 갔다. 많은 僑胞가 모여있고 거의 끝난 무렵이었다. 나는 먼저 大使가 어느분이라고 물으니 한사란이 案内해 준다. 金大使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우리가 온 뜻을 이야기하고 一行이 더 있다고하니 電話로 불러라는 것이다. 나는 六感으로 내가 없어질 것을 알고서 반드시 말아 나오리라 생각하고 이리로 올것이라 했다. 外換銀行 支店長을 찾았더니 바로 옆에있다. 廉支店長은 술잔을 놓고 本部에서 建築家協會 會長一行이 갈데니 살 案内하라는 Teletype를 받았는데 언제 온다는 말이 없어서 기다리던 것이었다고 來日아침 9時까지 어디까지 말고 Hotel에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二百名이 넘는 僑胞들이 모였고 印尼政府要人들도 나와서 約千名 程度의 大盛況이다. 婦人들은 다 韓服차림이다. 살베로 된 두루마기를 입은 中年도 있다. 어린아이들도 많았다. 나는 Mr. 嚴과 演壇앞에가 太極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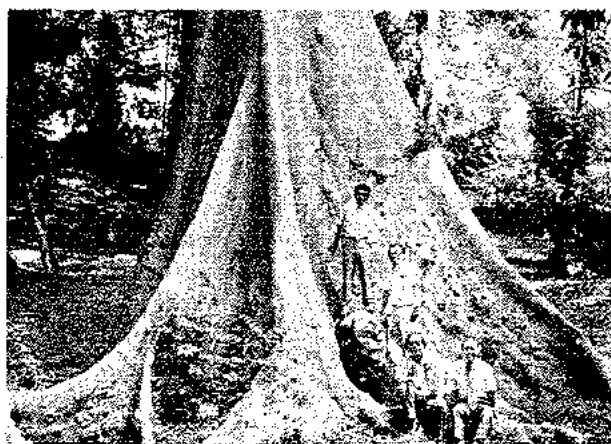
를 背景으로 寫眞을 찍었다. 旅行中에 이런式에 參席할 수 있었다는것은 記憶해 둘만한 일이다. 宴會가 끝나고 大使家族과 20~30名이 이웃의 米屋支店인 韓國食堂에 가서 불고기와 냉면을 먹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우리 一行이 入口로 들어오면서 어느새에 여기 와있었던 하며 들어온다. 나는 會員을 大使와 KOTRA, 外銀支店長等에게 人事紹介하고 같이 食事을 했다. 모두가 기쁘고 호쾌했다. 나는 大使館職員에게 北韓大使館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眼中에 없다는 表情으로 그親旧들이 와 있는데 어디서 부엌하는지 보이시도 않는다며 每年 우리가 大々적인 記念行事를 하니 약이 올라서 今年에는 印尼政府에 도 招待狀을 보냈는데 다—여기에 왔으니 헛탕이라고 한다. 痛快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서 三輪인력거 3台前에 分乘해서 Hotel로 돌아오는길에 콧노래를 불렀다. 三輪車運轉手가 (三輪自轉車는 人力車代身이다. Taxi以外에 이런車가 많다)종고 썬 女子들이 있다고 誘惑한다. 우리는 北韓大使館앞을 지나가 모자고 했으나 맘이고하니그만두기로 했다. 이날밤은 陰 7月17日이라서 달이 밝았다. 이렇게 호쾌하고 愉快한 밤은 없어서 韓國말로 떠들석하며 거리를 一列로 競走하듯 달리라고 했더니 行人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본다. 나는 式場에서 북이터져라 큰소리로 愛國歌를 불렀고 냉면을 먹고 三輪車로 신나게 달리던 Djacarta의 밤을 永遠히 잊지 않으리라.

8月16日(木曜日)

아침 9時 正刻에 外銀支店 廉氏가 自己車를 가지고 왔다. 郊外 30里程度 떨어져있는 Bogor 植物園 앞에는 Djacarta에서는 볼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車한대를 빌려서 分乘하고 外銀支店에 가보았다. Mr. 安이親切히 우리들을 비행票 Conform이며 Mr. 嚴의 馬來와 日本經由証이며를 다—해 주겠으니 廉支店長과 Bogor로 가라는 것이다. 外銀支店은 아직 營業開始를 못하고 印尼政府의 認可가 나오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보르네이에서 材木商을 하는 鄭社長을 거기서 만나서 보르네이 이야기도 들었다. 그도 몹시 반가워 하며 우리建築家들도 이렇게 많이들 나온다니 대견한 일이라고 한다. 廉氏에게 協會 會長ন্ত를 記念으로 드리고 植物園으로 떠났다. 郊外에 나서자 그모바

이니 스쿠터가 많다. 異常한 것은 貨物自動車의 車體全體에 우리의 喪喪처럼 原色の 裝飾을 했다. 꼭 葬儀車같은 氣分이다. Bogor까지 約一時間 程度 달렸다. 途中에 고무園이며 熱帶林이 우거져 있고 가끔 논이 있는데 한쪽에선 모를 심고 한쪽에선 벼가을을 한다. 一年 三毛作이라니 우리와 比較하면 單位面積에서 三倍가 秋收된다는 것이다. 農村은 形使없다. 90%가 맨발로 다니며 都市内에서도 約 30%는 맨발이나. 特히 女子들이 맨발로 걸으니 발가락이 옆으로 벌어져서 아주보기가 흉하다. 印尼사람들은 男女가 다 體軀가 矮少하고 피부가 까마잡잡하나. 그리고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 눈만 반짝이고 比較的 몸들이 가늘고 야윈것이다. 어딜 가나 熱帶林이 우거져있어서 旅行에서 가장 부러운것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하면 저 나무들을 韓國에 가지고 갈수 있을가 했더니 一行中에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자고 해서 웃어댔다. 廉支店長은 赴任한지 6個月밖에 안되나 그가 아는데로 熱心히 說明해 주었다. 참 親切하고 고마운 분이다.

이윽고 적은 시골都市가 나타났다. 'Bogor'이다. 原來 이'Bogor'은 어느 土族의 所有地였고 그의 權力이 絶頂에 달했을 때 그가 自己邸宅의 庭園으로 꾸민 것이 이植物園이라고 한다. 世界에서 제일 크고 植物種類가 많고 珍貴植物이 많기로 有名하다고 한다. 地域이 너무커서 걸어서 求景할 수가 없어 모두 自動車로 달려서도 一時間以上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도 2台의 車로 入場票를 사서 들어갔다. 珍貴한 植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噴霧의 連發이다. 仙人掌이 우리의 몇길씩 높은 것이 蒼空을 찌르듯 곳곳이 뻗은나무 溪谷, 釣橋, 花園, 管理事務室等 가가 막힌 곳이다. 우리는 가끔 下車해서 걸기도 하고 寫眞도 찍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 보았다. 小學生같은 놈들이 담배를 달라기에 소리를 질러서 혼을 내 주었다. 어린이들이 깎을 달라고도 한다. 觀光客이나 消風은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너무도 더워서 나무그늘에 쉬기도 하고 Air. con. 이 되어있는 車속에서 내다보기도 했다. 怪常한 나무 처음보는 異常한 꽃들, 그저 惶惚할뿐이다. 2時間以上이나 돌아보고는 지쳐서 Shop에 들어가서 Coca-cola를 마시고, 若干의 記念品들을 샀다. 異常한 昆虫을 剥製한 標本들을 車에 까지 끌고와서 사라고 야단들이다. 樹木과 꽃香氣가 훈훈하다. 熱帶의 냄새일 것이다. 아름답리 나



BOGOR 植物園에 있는 巨木(滑樹)

무밑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이 Bogor地方의 住民들은 피부가 희고 體軀도 크다. 廉支店長에게 물었더니 이地方만이 印尼에서 가장 美人이 많다는 것이다. 歸路에 道路邊에는 水牛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꼭 우리 農村風景과 같다. 一行은 피로해서 車中에서 출면서 Djacarta에 돌아왔다. Hotel 食堂에서 점심겸 저녁을 먹기로 했다. 라이스카레가 있다기에 본고장의 라이스카레를 먹기로 했는데 한두순갈 떠먹곤 모두가 바해 버렸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맛이며 냄새가 口味에 맞지를 않는다. 다시 飯 飲食을 시켜서 먹었다. 外銀의 Mr. 安이 왔다. 우리는 4時半 出發의 Singapoleair line機로 떠나야하기 때문에 잠을 꾸렸다. 外銀車로 空港에 나왔다. Mr. 安이 모든일을 다 해 주었다. 税関에서 우리짐을 열라고 한다. 옆에 있던 助手가 손가락을 까다거리며 돈을 달라는 것이다. 이거 참 異常한 놈들이다. 税関職員은 못본 체 하고 잠을 나르는 助手놈들의 짓을 방관한다. 화가 나서 우리는 違法の 物件이 없는데 무슨 돈이야 하고 그녀석의 손가락을 잡아 비볐었다. “악” 하녀 悲鳴을 지른다. Mr. 安이 보고있다가 印尼말로 무어라 辱을 해댄다. 우리는 손을 흔들며 Mr. 安과 人事를 하고 免税区域을 들어왔다. Djacarta 空港을 出發해서 約一時間半만에 Singapole에 到着했다. 우리는 歸路임에 값비싼 Strand hotel에 들었다. Air con이 없고 扇風器이다. 天井은 높고 古物建物이다. 무슨 Spain風の 建物인데 中国人이 主人이다. 前景哲氏가 便所에 들어갔다가 질점을 하고 그냥 뛰어나온다. 도마뱀이 있다는 것이다. 金漢根氏가 Camera를 들고 便所로 뛰어 들어간다. 爆笑가 터지고 야단들이 난다. 主人에게 말했더니 泰然하다. 氣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來日의 Schedule을 짜고 모두들 外出했다. 나는 혼자 남아서 洗濯을 하고 日記를 整理하고 배판다로 갔다. 가장 赤道에 가까운 都市이나 南十字星을 보려했는데 구름이 끼어서 보이지를 않는다. 若干의 가랑비가

유진건축사무소

(73) 6047 김 병 일

나리기도 했다. 이 熱帶地方에 와서 有名한 南十字星을 못하고 가니 몹시 섭섭하다. 11時頃에 모두 돌아왔다. 來日 Hotel을 옮기자는 것이다. 밤거리 求景에 나갔다 좋은 Hotel을 發見했다는 것이다. Singapore은 갈때도 들렀고 해서 낮이 익다. 地帶도 어습트래 알게 되었으니 多幸이다. 그러나 나는 갈 때 Singapore에서 배탈이 나서 苦生한 곳이기도 하다. 후텁지근한 房안에 몸체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꼭 서울에서 떠날 때의 무더운 밤과 같았다.

8月17日(金曜日)

9時에 Hotel食堂에서 食事を 하고 二派로 나뉘어서 一派는 外銀支店 Kotra로 가고, 一派는 집을 싣고 Mirama hotel로 옮겼다. Mirama hotel은 아주 高級 Hotel이고, 조용한 周圍인데 都心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Hotel移涉한 Group이 '馬來大使館'에 가서 馬來 Visa를 받기로 했는데, Kotra에 가 있으면 모두가 물려와서 Visa를 얻을 수가 없으니 '쿠림다룸프르'에 가는 것은 斷念하고 Joholber에 건너가고 있다는 것이다. 外銀에서 "싱가폴" 都市計劃圖書 7권을 샀다. 各自가 一冊式 가지고 協會用으로 一冊을 살 것이다. 이冊에는 싱가포르에 對한 都市計劃이며, 其他 모든 것이 다 記錄되어 있는 좋은冊이다. 우리는 外銀에서 馬來돈을 바꿔 가지고 觀光 Taxi 2대를賃切해서 分乘하고, Joholber水道를 건너 馬來로 들어가기로 했다. 車가 水道橋梁에 오니 싱가포르稅關이 檢査를한다. 다리를 건너가니 馬來稅關이 旅券이며 所持品을 檢査한다. Taxi運轉手들도 모두 旅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馬來 땅에 발을 디딘 셈이다. 二次大戰時 氣勢가 堂堂하던 日本의 '山下將軍'이 聯合軍司令官 '파-사발'을 앞에 놓고, 降伏을 強要하며 Yes or No 다한 바로 그곳이다. 日本軍은 首先(一日에 싱가포르가 다 보이는) Johole을 点領하고, "부기테마" 高地를 点領했다. 그리곤 싱가포르를 砲撃할 準備을 다 해 놓고 降伏을 強要했다. 우리는 그 高地에서 싱가포르市街를 내려다 보며 世相의 無常함을 느꼈다. 그當時 이 附近은 아마 日本軍으로 꼭 차 있었으리라. 難攻不落이라고 誇言하던 싱가포르要塞도 砲 한번 못 쳐보고 降伏을 했으니 말이다. 馬來는 英語가 通用語이다. 多民族國이기도 하다. "유-라사"族과 原

始馬來族, 中國, 歐美 및 南方諸國의 民族이 混合된 國家이기도 하다. 문자하니 現 馬來 首相과 싱가포르의 李光耀首相과는 英國 Oxford의 同期同窓인데 서로가 自己便으로 끌어드리려 하다가 決裂이 되어 結局에 가서 이 Johorber水道를 가운데 놓고 으르릉대고 있다는 것이다. 卽 水道나 電氣를 싱가포르쪽에 주지만 會談談에 料金を 어마어마하게 馬來가 받아낸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온 線에 双方의 稅關과 警備隊가 駐屯하고 完全國境線을 構築하고 있는 것이다.

馬來는 宗教가 "모스렘"이다. 따라서 "아랍" 式 寺院 到處에 보인다. 樹木이 어디 가나 모두 鬱蒼하다. 果實도 매우 싸다. 貨幣도 싱가포르와 엄청나게 다르다. 나는 이 海邊가 椰子나무 아래를 그 옛날 日本軍이 手巾을 허리에 차고 건달을 건들거리며 다녔으리라 생각하니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戰爭未亡人들의 家内手工業센터가 있어 들어가 보았더니 등나무와 왕갈로 動物型이며 바구니, 椅子等을 만들고 있었다. 觀光客用 記念品들도 많았다. 한곳의 모스렘寺院을 求景하다가 구두를 신고 들어갔다가 신발을 벗으라고 야단을 맞았다. 우리는 馬來 땅을 四時間동안 求景하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섰다. 오른길에 軍墓地에 들렀다. 記錄과 碑文을 보니 美, 英, 濠의 17~18才 젊은이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들은 人類의 平和를 爲해 이 異國땅에서 戰死했지만 왜 이들이 죽어야만 할가 疑問이다. 가는 곳마다 이러한 二次大戰時의 墓地들이 많았다. 淸州, 마니라에도, 二次大戰이 얼마나 大規模의 戰爭이었나를 實感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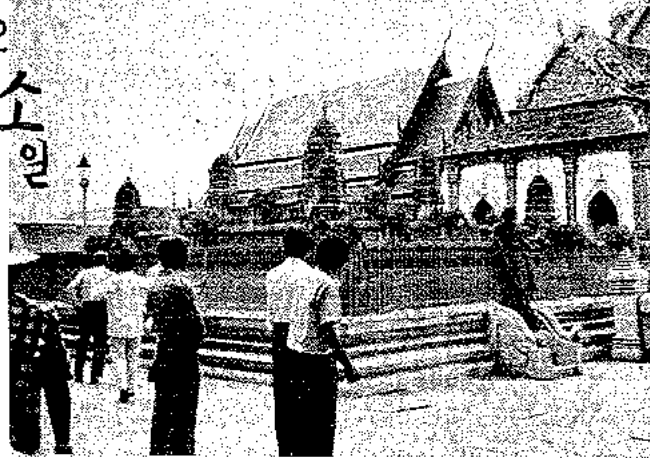
植物園 貯水池, 고무園等を 돌아보고 一段 Hotel로 돌아왔다. 저녁 7時后 다시 방거리로 빠져 나갔다. 나는 中國거리로 가 보았다. 아! 이것은 꼭 우리의 東大門市場같은 곳인데, 露店飲食店에서 怪常한 냄새가 나서 보았더니 "문도카테"에 나오는 그대로이다. 개고기도 삶아서 판고있다. 끔찍한 것은 큰구렁이의 점칠을 벗겨 놓은 것인데, 이것을 날로 或은 삶아서 먹고 있다. 또 아류모를 動物, 鳥類의 料理들을 하고 있는데 보기도 흉해서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여기는 世界各國의 人種들이 다 살고있다. 特殊한 地域을 除外하곤 거의 西歐化된 거리이다. 兵營도 昨年の 련련에서 본 英國兵營과 같다. 거리에 싱가포르旗와 赤白色의 裝飾을 한 記念式을 보았다. 이것도 亦是 二次大戰의 後遺症같은 일이 되겠다. (獨立記念日)

유진건축사무소

(73) 6047 김 병 일

8月18日(土曜日)

아침 9時30分發 “싱가폴” Air line으로 “방콕”으로 機内에서 向했다. 空港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아침을 먹고, 11時30분에 “방콕” 空港에 到着했다. 그런데 내리는 사람이 얼마없다. 우리一行과 몇명이 더 있을 뿐이다. 알고보니 이 비행기가 “방콕” 經由 “비마”로 가는 길이기에 사람이 적었던 모양이다. 入国手續은 簡略하나 異常하게 나에겐만 어느 Hotel에 投宿하느냐기에 率直히 아직 予約을 안 했다고 했더니, 旅卷을 주지 않고 Hotel을 予約하고 오라는 것이다. 空港 밖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Hotel을 予約하느냐고 했더니, 마구재비로 予約을 하고 Hotel名을 入国証에 記入하라는 것이다. 화는 났지만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는 체하고 좀 있다 가서 無條件 Siam hotel 이라 했더니 O. K. 하며 旅卷을 내 준다. 一行은 모두 나가서 積경을 하고있었다. Lobby에서 寫眞으로 Hotel을 予約해야 할 판이다. Siam Hotel 이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泰國는 옛날에 Siam 國이라 했으니, 臨機応變으로 Siam Hotel 이라 했는데, 진짜로 一級 Hotel에 Siam 이란게 있다. 나는 웃음이 난다. 그럭저럭 그래서 아무말 없었구나! Siam Hotel 은 두개가 있어 하나는 最高級이고 꽤 비싸다. 또 하나는 二級쯤 된다. 우리는 二級짜리에 들기로 했다. 后의 이야기지만 「泰國建築家協會」에서나 其他 「韓國大使館」에서 Siam Hotel 에 들었다고 하니 最高級에 돈줄만 알기에 속으로 펄 우스웠다. 우리는 Hotel에 到着해서 Kotra. 外銀支店이나 大使館에는 連絡할 수가 없었다. 오늘이 土曜日임으로 모두 다 退勤해 버렸다. 來日も 마참가지다. 結局 月曜日이나 찾아보기로했다. 그래서 觀光社에 連絡을 해서 來日の 스케줄을 봤다. 그 자리에서 泰國建築家中에 누구든지 連絡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運轉手が 自己 친척에 建築家가 있으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來日 連絡을 해서 會長宅에 連絡을 하여 우리가 月曜日 아침에 訪問한다고 伝해 달라고 하고, 「泰國建築家協會」의 位置도 알아보아 달라고 附狀했다. 來日 아침에 約束하고 그들과 헤어져서 거리에 나가 Taxi를 타고 韓國飲食店을 물었더니 “Seoul House”가 있다고 한다. 后에 알았지만 방콕에는 韓國飲食店이 여러곳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냥 “Seoul House”로 갔다. 조용하고 깨끗하다. 불고기를 시키고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玉仁瓚氏 라는 音樂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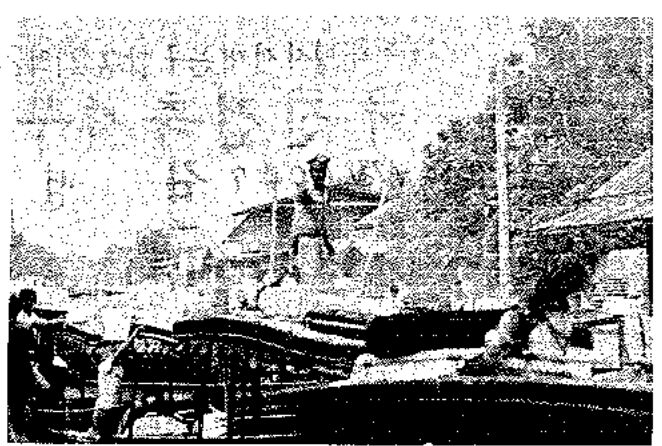


안팎트모편

이다. 그는 반가워서 저녁을 자기가 낸다고 돈을 안 받았다. 알고보니 元正洙氏 伯氏와도 親旧이고 더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中國에서 韓國獨立軍 第三支隊 出身이다. 나는 옛同志를 만난 기쁨에 어쩔 줄 몰랐다. 中國 이야기가 나오고 그도 나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모른다. 王先生이 來日の 觀光이며 방콕의 説明과 指示를 다 해 준다. 自己가 直接 案内도 해 주겠다는 것이다. 一行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 王先生의 長女가 梨大 生活美術科 二学年이란단. 俞景哲氏가 「누구냐? 내가 梨大에 나간다」고 하니 王先生 夫婦는 딸의 스승이 왔다고 또 한바탕 야단들이다. 便紙를 쓸테니 갖다주란다. 장부탁한다느니 昨年の 展示會때 出品寫眞을 보이니 俞景哲氏가 이學生이냐고 알아낸다. 바로 그 展示會를(校內) 俞兄이 指導해서 잘 안다는 것이다. 王先生과의 사이는 漸漸 家族처럼 되어갔다. 玉氏는 그전에 泰國 王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또 그의 婦人이 韓國宮中料理를 王에게 進上해 준 일도 있고, 現在는 個人敎數 몇군데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날 午前 6時부터는 Flouting Market (船市)를 求景했다. 방콕의 各Hote에 묶고있는 觀光客은 거의 다 온 것 같다. 市中을 흐르는 「메남江」을 보트로 40分 程度가야 船市가 있다. 江 兩邊에 市場이며 貨物集積場이며 工場들이 있고 軍艦이며 큰 배가 많다. 江물은 몹시 더럽다. 한참 가다가 運河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密林사이로 꼬를꼬를 가노라니 徐徐히 民家며, 店浦가 密林속 兩岸에 손달만치 있다. 좁은 곳은 겨우 배가 2~3隻이 지날 程度이고, 넓은 곳이라야 보트 10隻 程度가 지나갈 만큼이다. 兩岸에는 熱帶果樹園도 있고 원숭이가 제롱되는 Deck에서 食器나 便器를 다같이 씻고있다. 이들은 저런 不潔한 곳에서 살아도 病에 안걸리나 보다. 兩岸의 密林은 漸漸히 茂盛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 映面에서 본 「타-잔」이 방금이라도 그 속에서 뛰어나올것만 같

다. 어떤 店舖의 Deck에는 椰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더 가다보니 앞이 트인 곳에 배가 數百隻 모여있고, 完全한 듯메기 市場이다. 배지붕 위에 巡警이 서서 交通整理를 하는 것도 異色的이었다. 우리는 배를 세운 것이 아니고 배가 나갈 수가 없이 막혀서 店舖에 上陸해서 코카콜라를 마시고 크끼리 새끼도 만져보고 큰크끼리를 타고 60원 을 썼다. 泰國 特有의 果實이며 飲食이며, 土産物은 勿論 日常生活品의 交易場이 되었다. 香港, 廣東 배니스에도 이런 浮市가 있다지만, 아마도 방콕 浮市가 第一 有名한 것 같다. 나는 왜 市中에서 먼 곳인 이런 곳에 市場이 서야만 할까? 觀光을 爲할까? 何 理由가 있을까? 異常해서 案内者인 Mr. Baiyoh에 물었더니 原來는 地方에서 옛날에 江물과 密林으로 交通이 나빠서 몇百年前부터 自然發生한 것이 現在도 便利하니 시골 사람들이 배로 이곳에 도인다는 것인데 지금은 觀光客을 爲한 새 店舖가 늘어나니 더욱 繁昌한 것이라다. 市内로 돌아와서 玉先生宅에서 점심을 먹고, 玉先生의 案内로 寺院을 세 곳이나 求景했다. 한 寺院 境内엔 男性의 性器를 크게 彫刻한 것이 있고 우리의 시골 城皇堂같이 전초작이나 飲食이 놓여 있고 좁아 지 피워져 있다. 아이 못 낳는 婦人들이 祈禱를 드리면 生男할 수 있는 効驗이 있다고 한다. 웃으운 光景이 아닐 수 없다. 美國婦人 觀光客들이 놀라며 웃어댄다. 일부터 손으로 만져보는 婦人도 있다. 珍奇한 風景이나. 大理石寺院(MARBLE TEMPLE)에도 가보았다. 泰國內에 많은 寺院이 있거만 大理石造는 이것 뿐이라다. 精巧한 建築이다. 못가에는 數百마리의 자라가 捷息하고 있고 자라먹이 풀을 팔고 있다. 또한 寺院엔 누워있는 佛像이 있다. 全身이 金色칠을 해 놓고, 발과탁이며, 발가락에 指紋이 圖案化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발가락 하나가 어른들 몸만큼 크니 全身은 想像할 수 있겠다. 그 寺院의 境内엔 「크메르」에 있는 “안팔왓트”의 模型을 만들어 놓고 있다. 廻廊의 壁에는 數 많은 그림이 原色으로 그려져 있다. 佛話를 그려놓은 것이다. 建國神話그림을 보고, 泰國은 한마디로 원숭이의 나라이다. 사람들의 모습도 원숭이 같은 印像이 짙다. 神話에도 白色원숭이가 神格化되어 있다. 「적복성」 「닭싸움」이며 「복성」等 熱情的인 面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원숭이와 비슷하다. 佛教(小乘)의 나라, 寺院과 塔의 나라, 원숭이의 나라, 泰國은 꾸부러진 칼을 잘 쓰는 나라이



浮市船上의 交通巡警

기도 하다. 歷史에는 그 옛날 日本人 「山田長政」가 泰國에 首相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原來 國名이 「SIAM (삼)」이었다. 映画에도 나오는 「파이江의 다리」는 먼 「버마」 境界에 있다기에 못보았고, 接境 「크메르」 領內에 있는 “안팔왓트”는 알 수가 없다. (크메르는 現在 戰爭中이다.) 「버마」의 接境에 있는 「벤넛」 道路는 第二次大戰前 日本勞務者들이 建設했는데 數千名이 風土病으로 죽은 有名한 곳이다.

그러나 가볼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니 市内는 후덥지근한 熱氣에 차여 있다. 玉先生의 案内로 百貨店(大丸, UNION等), HOTEL (SIAM FIRST CENTRAL) 建物도 求景하고 内部의 INTERIOR DESIGN이 훌륭했으나 建物이 어딘지 外樣에 作難이甚하다. 바탕哲學이 없는 西歐의 풍내가 많다. 現在 泰國建築家들을 四等分해서 그派를 나누는 協會誌의 글을 보고 웃었다. 그것은 作故한 洪淳五氏가 建築學會誌에 누군 丹下閔東派라느니 누군 西獨復興派다, 또는 오스카 니마이아派라는 式으로 쓴 것을 보고 웃어댔던 생각이 난다. 여기에서도 보스턴 市庁派, 傳統派, 國際派式으로 建築家의 流派를 나눈 글이었기 때문이다. 玉先生과 헤어져서 一行은 觀光코스에도 들어있는 泰國의 有名한 “맛사지” 집에 가 보기로 했다. 作其 모두가 疲困해서도 그랬다. 「방콕」에서 “맛사—”라고 發音하는데 玄關에 들어서니 곧 LOBBY 인데 유리間막이가 있고, 그 속에 젊은 女人들이 制服차림(초미나 스커트에 가슴에 番房票를 달고 있다)으로 階段式 椅子에 40~50명이 앉아 있고, LOBBY 쪽은 안보이게 하고 손님만이 그들의 얼굴이며 番房票를 보이게 했다. 自己마음에 드는 女人의 番房號를 부르면 그가 나와서 自己 担当房으로 案内한다. 우리는 그집에 들어갈 때 車를 밖에 세워놓고, 꼭 一時間만에 모두 集合하기로 했다. 各自가 番房號를 불러냈고, 各各 喚여져 入房(?)했다. 房內에는 이상하게 둥근 枕台가 몹시 높고, 沐浴이 있는데, “사우나”가 아

니고, 普通 BATH TUB이다. 나는 왜 사우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女인은 물이 뜨겁다고 말한다. 왜 STEAM 이 아니냐고 또 물었더니 나는 "맛사—"만 해주면 그만이라고 시치미를 떼다. 湯속에 들어가서 몸을 녹히고, 枕台에 외서 누우니 広木布를 덮어놓고 맛사지를 하는데 엉망이다. 이것은 맛사지가 아니고, 그저 극적극적 주무르는 것뿐이다. 야! 이것 속았구나! 했다. 그러나 하도 疲困해서 그냥 잠이 들었다가 깜박 깨어보니 그 女자는 椅子에 앉아서 泰然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뛰어나왔다. LOBBY에 내려오니 Mr. 엄이 主人과 육신자신하고 있다. Mr. 엄이 入房해서 코카콜라를 사오라고 돈을 주었는데 100바크(우리의 5,000원 程度) 지폐 1枚를 주었더니 6바크의 거스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라 2명이면 4 바크인데 10바크짜리를 주었다고 女主人이 우겨서 승경이가 붙은 것이다. 나는 화가 나서 Mr. 엄에게 차분히 물었더니 지갑속에 100바크짜리가 4枚뿐이나 들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소리로 支配人을 불러서 그 女主人을 잡아 오라고 했다. 젊고 體軀가 健壯한 支配人이 왔다. 나는 대뜸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Counter에 가서 모든 計算을 中止하고 100바크짜리를 찾아내라고, 나쁜 놈들 하고 소리쳤다. 나의 氣勢에 그도 몹시 놀란 表情이고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고, 우리를 案内한 觀光社 親旧도 와서 나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担当女子도 왔다. 그 女子를 보며 거짓말 말라고 하고 唐手 흥내를 뽐더니, 세파랄게 질려서 도망친다. 이렇게 되자 우리 一行이 또한 사람 내려왔고 本格的인 싸움이 되었다. 나는 카운터를 랑! 치고 女職員에게 96바크를 내놓지 않으면 집을 다 부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支配人이 事情을 하면서 카운터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내가 돈을 내놓겠다면서 96바크를 Mr. 엄에게 내어준다. 그제서야 그의 복을 놓고 한국의 "배권도"를 아느냐? 고 했더니 잘 안다고 한다. Mr. 엄과 밖에 나와 車에 와보니 모두가 안 나왔다. 1時間이 지나 모두 모였다. 우리는 HOTEL로 돌아 왔는데 車中에서 Mr. 엄이 자꾸만 웃는다. 그는 6바크를 받고 또 96바크를 받았으니, 2바크에다 물라 2명을 공자로 마셨다는 것이다. 모두들 큰소리로 웃어있더니 案内人이(이는 教養이 있고 젊음은 青年이며 아주 正直하고 親切했다)面이 없으면서 謝過를 한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韓國人



泰國建築家協會 事務室에서

들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率直히 팀으로 달라면 100바크도 1,000바크도 준다. 만약 속이면 가만 두지 않는다고 했더니, 끄덕끄덕 하면서 얼굴을 붉힌다. 後에 안일이지만 이 맛사지집은 말이 맛사지이지 事實은 政府가 許可한 公娼이나 다름 없는 곳이라고 들었다.

8月 19日 (日曜日)

아침에 HOTEL專輻 運転手 車로 泰國에서 가장 有名하다는 民俗村에 가 보았다.

約 12年前에 政府가 이것을 만들어서 觀光客들에게 泰國를 보여주는 것이다. 郊外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120km의 速力으로 마구 달린다. 길이 그리 좋지 못한테 꽤 危險했다. 이 運転手が 傑作이어서 복싱狂이다. 우리 洪秀煥選手가 泰國選手를 8회에 K.O 시키고 東洋 타이틀을 빼앗은 이 야기를 하면서 그 흥내까지 내는데 120km의 핸들을 놓고, 두 손으로 복싱 흥내를 낸다. 우리는 겁이 나서 앞자리의 兪兄도 하도 겁이 나서 야 이 친구야! 危險해! 핸들을 잡아라고 소리칠 程度였다. 그때까지 東洋 참피온인 泰國選手가 世界참피온을 노리는데 優秀해서 政府가 뒷받침까지 해주었는데 우리 洪秀煥選手에게 K.O敗하고 보니 偶像化되었던 그를 가지고 놀다가 予言대로 8회에 K.O. 시킨 洪選手는 泰國에선 아이며, 어른이며 모르는 사람이 없고 韓國의 복싱은 最高라고 한다. 過去에도 康富永, 徐強一等 優秀한 選手들이 많아 다 녀갔지만 洪秀煥選手가 最高人氣이다. 거리에서도 HOTEL에서도 KOREA 라면 으레 "홍수환"한다. 우리도 꽤 氣分이 좋았다. 運動이나, 芸術이나, 民間外交가 얼마나 重要하다는 것을 알았다.

民俗村에 가서야 運転手が 왜 速力을 뽐는가를 알았다. 하루에 二回 公演인데 오늘은 日曜日이어서 三回公演임으로 公演時間에 맞추어 가노 라고 한 것이었다한다. 致着하자마자 公演이 始作 되었

다. 우리는 德分에 첫 프로부터 볼 수 있었다. 여기에 와 보니 수천명의 觀光客이 모였다. 아마 각 HOTEL에 있는 손님들은 거의 다 온 모양이다. 닭싸움 民俗舞蹈, 칼싸움, 격 Boxing, 結婚式風景等 泰國固有의 民俗의인 것이 다 있다. 나중에 손님도 끌고 들어와서 춤추게 한다. 翁兄이 끌려 들어가서 댄서와 어색한 춤 흥내를 낸다. 劇場밖에 나오면 「소싸움」 「코끼리曲藝」 「野外音」 등이 있고 農家도 陶器만드는 것, 베짜는 것, 彫刻, 그림 그리는 것等 即場에서 販売도 한다. 民俗村에서 나와서 "ANCIENT CITY"로 갔다. 이것은 廣闊한 地域에 古都를 옛모습대로 復元시켜서 求景시키는 곳인 데 떨어져서 觀光코스에 들어있지 않으나 우리가 建築家놀임을 알고 HOTEL에서 運轉手에게 案内하라고 해서 特別히 코스에 넣어준 곳이다. 舍社도 政府도 아닌 個人富豪가 이것을 建造 했다고 한다. 가는 道中부터 소나기가 오기 始作했다.

沿道에 工場地帶가 있는데 "TOYOTA" 나 "SONY" 등 日本의 進出이 눈에 띄인다. 百貨店에 까지 支店을 낸 日本人들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 泰國學生間에 反日運動이 일 程度이다.

Economical Animal(經濟動物)을 背擘한다고 야단들인배, 反射的으로 韓國에는 好意的이다. 이런 일은 東南亜 各地에서 느꼈고, 특히 "필리핀"에서는 더욱 심했다. 一行은 비축을 해치면서 古復元都市를 살살히 돌아 보았다. 時間가는 줄도 모르고 寺院이며 宮殿, 民家, 코끼리집(코끼리로 農事도 짓는다.) 古代戰爭의 彫刻들이며, 적은 山을 人口으로 만들어서 瀑布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一周하는데 自動車로도 할 수 있고 배로도 할 수 있게 運河가 連結되어 있다. 또는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도 다닐 수 있다. 한 寺院內에 들어 가니 天井이며 바닥이며 四面壁이 모두 거울(鏡)로 되어 있고, 中央에 印度에서 보내왔다는 彫刻이 놓여 있다. 한 궁궐에는 王座가 있고, 大臣들의 자리도 나란히 있었다. 나는 그 王座에 앉아보았다. 管理人이 映画 "王과 나"에 나오는 그런 服裝을 입고 거기에 앉자 말라고 한다. 泰國의 古有 服裝은 참 이상하다. 우리의 女子들 치마같은 것을 가운데서 묶어서 걸어올린 것이다. 아까본 民俗村에서의 칼싸움이나 結婚式 등에 나오는 男子들도 다 그런 옷을 입고 있다. 女子는 亦是 越南이나 中國式의 긴 통치마 같은 模樣이었다. 나는 그 王座에서 내려와서 웅덩바닥에 앉아서 天井을 쳐다보면



復古都市 全景

서 문득 "王과 나"의 여러場面을 聯想해 보았다. 한 寺院은 完全히 어마어마하게 큰 "디크材" 만으로 建築되어서 別名이 「타크 TEMPLE」이라 한다고 案内人이 말한다. 歸路에 入口에 나오니 男女 管理職員 20餘名이 退勤車에 타고 있었다. 우리 一行이 管理事務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내려와서 슬라이드며 그림葉書를 팔고 우리 一行과 같이 退勤했다. 그들도 우리가 韓國人이고 建築家라 하니 몹시 신기해 하였다. 오던 길에 우리는 비도냈고, 참 좋은 곳을 求景 하여서 氣分이 매우 좋았다. 路邊에 果實가게에 들러서 各種 熱帶果實을 맛 보았다. 小學 四年이란 그집의 딸아이가 아주 귀여워서 写真도 찍었다.

運轉手도 신이 나서 떠들어 댔다. 그는 自己가 좋은 百貨店에 案内를 할테니 쇼핑은 거기서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쇼핑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했더니 서무록 해진다. 알고보니 東南亜 各地에는 "쇼핑 가이드"란 것이 있어서 손님을 自己네 商店에 데리고오면 販賣高의 割割을 코믹손으로 준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어떤 運轉手는 運賃을 안 내도 좋으니 가자고 까지 한다. 市內에 들어와 저녁을 하고, 밤거리를 돌아보니 낮보다도 더 蕪雜해 보인다. 특히 劇場이 많고, 看板들이 크고 작고 그려져 있다. 二次大戰時의 戰爭物이 많이 上映되고 있다. 日本軍人의 그림이 특히 눈에 띄인다.

王先生의 말에 依하면 프랑스인이 曼谷市內의 劇場看板을 모아서 "파리"에서 展示會를 가진일이 있을 정도로 看板들이 有名하다고 한다.

8月 20日 (月曜日)

아침에 人事도 못한 우리 大使館에 갔다. 領事에게 온 事由를 말하고 大使님께 人事라도 하고 가겠다 했더니, 아주 귀찮다는 뜻이 大使님 房에 물이 새어서 午後나 來日 오시오, 하고 泰然하게 冊

寫眞에는 왜지를 먹는 뱀도 있고, 사람을 切半 먹고 있는 것도 있다. 그 옛날 先史時代 人間은 爬蟲類에 모진 威脅을 받은 때도 있었다. 地球上에 저런 數億마리가 우글거린다면 數가 적은 人間인들 別道理가 없었으리라고 느꼈다. 코푸라(참추는 뱀)가 작은 실뱀을 먹는 것을 보았다. 유리밖에 電氣 스위치를 달아서 燈을 켜서 손님들이 寫眞을 찍게 해 놓았다. 訓練된 큰놈은 손님이 앉고서 사진을 찍는다. 毒이 없고 물지도 않는다고 한다. 俞兄과 내가 돌이서 들어 불려갔었는데 하도 무겁고 커서 들을 수가 없다. 便所에 갔더니 뒤에 일하던 人夫가 “헤-비”하고 소리를 지른다. (日本語로 뱀이다) 놀라서 뛰어 나왔다. 그들이 잘감 때며 웃는다. 손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계속

公 告

韓國建軍協會에 對! 別 一의 冬作 計劃 諸君을 하계의 光이 開明나오니 많은 會員의 勸告: 勿論, 淺學의 輩의 向上을 위하여 冬下 計劃에도 莫히 參與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

1. 作 者 名：第 一 次 冬 季 海 冰 觀 測 記
2. 出 行 日 時：1971 年 2 月 中 10 日 開
3. 通 稱：海 冰 觀 測
4. 要 請 申 請 期 間：1973. 12. 28 ~ 1974. 1. 15
5. 提 學 機 構：Kushiro Institute of Technology 函館大學函館工學部 605 室 電話 72-9613

73年 冬季 特別 講習会 計劃

1. 目 的: ① 建築家의 自傳向上
② 共同 平面 設計의 相互 討論
③ 茂茂와 茂茂建築家의 相互 交流
④ 建築家의 生活을 위한 資料의 相互 交換
2. 主 體: 韓國建築家協會
3. 主 持: 鄭 錫 大, 大韓建築學會, 大韓建築主協會
4. 日 期: 1997年 2月 中 穆日(開會休日除外), 下午 3時 ~ 5時
5. 場 所: (主 持) 青少年會館 講堂, 公園館 禮堂等
6. 參 加 對 象: ① 會 員, ② 研究會 員 等 氏, ③ 一般建築人, ④ 大學院生 및 大學建築科 卒業生
⑤ 一般學生
7. 受 講 料: 1日 2次 每回 200원, 共 2,000원
8. 講 義 構 成: 建築 全覽圖 開卷 約 50%
9. 講 義 進 行 方 法: ① 講義內容(主 持) 題目을 選擇하고 進 行
② 50分 講義
③ 講義兩篇 時間과 時間 交替
④ 受講은 前日 午時前 受講을 申請하고 하고 受講料을 受講申請書 一紙 付前에 納付
- ⑤ 進 行 是 金 融 經濟 委員會
製作分科委員會
國稅委員會
市長府 財 政 科 進 行
⑥ 年 終 評 價 課 進 行
⑦ 公 告 是 未 協會 會議 費 用 徵 收 等 項 各 大 學 建築科 教授

김기문, 김기현, 김기영, 김기현, 김기영

[illegible]

C君은 特定人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큰 뜻
을 품고, 앞날을 더듬는, 젊은 建築家 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C君, 大學을 나와, 지금의 아파트에 就職한지도, 벌써 三年쯤 되는구
나. 이제는 建築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가기 시작해, 한창 꿈이 부풀
어 순탄한 앞길이 트인것처럼, 自信에 차있었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표정고 싶으나, 그런대로 自信이 생긴다는 것은, 우선은 반
가운 일이라고 祝福해주고 싶다. 얼마 안가서, 지금의 하늘을 찌르는듯
한 自負가 순식간에 무너져, 많은 職業중에 하필이면 建築家를 택했나,
하고, 自己의 能力에 懷疑를 느낄때가 올 것을, 미리 알고있으면서 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信과 懷疑는 周期的으로 되풀이되면서, 建築
家로 成長하는것 같다.

大學을 나와, 三年이라는 歲月은 그의 一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하다.
그것은 建築家가 될 기틀을 잡아주는 期間이기 때문이다. 君도 스스로
느꼈겠지만, 大學을 갓나온 工學士란, 아파트에 있어서 아무 쓸데도
없는 存在가 아닌가?

〈會員에게〉

머리만 크고, 손, 발은 제대로 움직이지않는 畸形兒.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 아름다운 色彩, 華麗한 旋律, 멋있는 空
間. 그러나, 캔버스에 옮길 能力이 없으며, 五線紙를 向하자, 무지개는
사라지며, 오일페퍼에 나타난것은, 지부하기만 하다.

建築家의 二十代는, 空間의 이미지를 表現하고, 實現하기위한, 技術
的인 訓練에 바쳐야 하겠다. 모든 藝術은, 이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表現해야 하며, 表現에는, 技術이 따르기때문이다.

이러한 技術은, 即, 建築의 構造, 材料力學, 材料의 特性과, 工法,
設備에서, 施工에 이르기까지, 建築을 뒷받침하는, 모든 工學的인 訓練
이겠다. 밤과 낮을 이어가면서 익혀야하는 設計의 技術과, 空間에 처한
體驗과, 構想도 물론이겠다.

해야할 일은 많다. 그 어느 하나 만으로도, 專攻이 될 수 있는 量과
깊이가 있다. 앞으로 걸어야할 길이 한없이 먼것을 느끼고 挫折感을 느
낄때도 있겠다. 그러나 建築家로 大成하기 위해서, 이것만으로는 充分
치 못하며, 아직도 차곡 차곡 쌓아 올려야할 工夫가 남아있다.

音樂, 繪畫, 彫刻, 文學, 哲學, 적어도 이것만은, 모두 建築과 깊은
關係가 있는 藝術이요, 學問이다.

꿈의 自信이 벌써 흔들리거나 않는다. 그러나 人生은 길고, 時間은 많다.

×

×

×

C君, 君의 나이 올해 몇이더라.

나는 내 나이記憶에 한살정도의 誤差가 있군하나, 내 弟子들의 나이는 잊어먹기 일수다. 君도 이제 三十代의 중반이겠거니 하고, 내 옛날을 더듬어본다. 내게 있어서 三十代란, 二十代에 이어지는 꾸준한 修業의 계속이었다. 아니 오히려 二十代보다 훨씬 더 建築에 熱중한 時期였다. 그것은 二十代란 아직도 철부지며, 아가씨들에 대한 關心이, 언제나, 建築을 向한 情熱보다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三十代 소리를 들으면서 家長으로서 責任感이 싹트며 차분히 가다앉은 知性은 내가 해야 할 일에 熱中하게 된 것 같다. 自我를 더욱 現實感을 갖고 생각하며, 서서히 社會意識에 눈이 뜨면서 建築家로서 어떤 姿勢를 가져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 하고 막연이나마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러한 使命感 비슷한 것을 느꼈다는, 나 自身을 나는 自負하고 싶다.

實存主義哲學에 따르면, 스폰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存在理由가 이미 있었지만 人間은 그러한 어떤 目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뉘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目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目的이 있는 人生이라는 점에 나는 깊은 뜻을 느낀다. 그리고 君이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建築이다.

人生을 어떤, 큰 使命感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나.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자. 마음을 써야 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더욱 꾸준한 訓練이.

三十代란 아마도 一生에 있어서 가장 많이 工夫할 때 인 것 같다. 그동안 쌓아온 것이 아직은 설익은 채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建築家면 누구든 自己個性이 깃든 것을 만들려고 努力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能力을 한탄하게 되지만, 이러한 個性있는 作品이란 그동안 쌓은 技術의 訓練과 創造的인 才能이 함께 빚어진 것이다. 建築을 흔히 工学과 藝術의 綜合이라고 말하는데, 雙劍의 劍客은 양 칼을 모두 하나같이 잘 쓸 줄 알아야 몸을 지키고, 敵을 무찌를 수 있는

것과 같이 工學과 藝術의 能力을 다같이 自由自在로 發揮할 때, 비로소 個性있는 作品이 이루어진다.

열살도 못되어 모짜르트는 이미 天才였고, 피카소의 靑의 時代라는 젊었을 때의 作品들은 불만한것이 있으나 젊어서 大成한 建築家 이야기 는 들어본일이 없지 않다. 建築이란 만 藝術보담도 쌓아야 할 訓練이 많고, 힘들뿐더러, 生活을 통한 經驗과 思考가 미천이 되는 藝術 이기 때문인가 보다. 어쩌다 좋은 機會를 만나 一年동안에 걸친 世界 一周의 긴 旅行은 君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좋은 經驗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民族에 따라 地域에 따라 生活과 생각이 다르며 建築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속에 자기가 찾아야 할 建築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등, 君 나름대로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되겠지.

三十代란 目的을 向해 機關車처럼 달리는 時期이지만, 그것도 後半에 접어들면서 懷疑를 느끼고 誘惑에 흔들려 그 速度는 制動을 받기 시작한다.

建築에만 精神을 쏟다보니 어느새 친구들은 그럴듯한 자리에 앉았지나, 이미 獨立해서 돈푼이나 장만했는데, 四十을 바라보는 나이에 생각이 가고 자라나는 어린것들의 앞날걱정과 집안살림에 마음은 무거워진다.

아프러예를 차리게되는것은 언제일까?

이렇게 競爭이 심한 社會에서 탈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等 不安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宗教라는 것은, 이럴 때 좋은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不幸히도 宗教的生活속에 살아오지 않은 나는 베토벤에서 慰安을 찾곤 했다. 그의 伝記를 읽으면 나의 不安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苦惱를 超越하여 얻은 歡樂라는 그의 音樂속에 나를 잊게했다.

씩트기 시작한 建築家로서의 使命感과 自負心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나이를 들면서 君도 여러가지 苦惱를 더욱 깊이 느끼게되겠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달래야하는 것은 결국 자기 自身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人間은 永遠히 孤獨한 存在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을 建築의 創造慾으로 昇華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길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은 어딘가 우리들의 마음 뿌리속깊이부

터 흔들어주는 感動어린 建築이 되지 않을까. 音樂이 그렇듯이.

× × ×

C君, 내 나이 四六. 三十代에서는 못 느꼈는데 四十代개를 접어들면서 나이에 關心이 가고 초조감을 느끼는것은 이미 늦었다는 징조인것같다. 좀더 후로 미루어놓았던 것을 四十을 넘으면서 곧 내 아프 리에를 차린것은, 이러한 무엇에 쫓기는듯한 초조감 때문이었다. 요새처럼 三十代 소리를 듣자, 獨立하는 建築家들이 많은 것을 보면, 내 경우는 너무 늦은셈이지만 지금껏 後悔해 본적이 없는것은 아프리에를 차린 후 數年동안이 한마디로 가시밭 길이었기 때문이겠다. 어차피 죽을때 까지 앞으로 한 三十年(웃지마. 뜻이있는 곳에 길이 있다)을 더, 創作活動을 해야한다면, 四十 에 獨立한다는 것도 이른것이다.

建築家로서 몇몇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現實에서 얼마나 고달픈 일인가? 君도 알다싶이 작은 아프리어나마 이끌어내갈려면 이리 뛰고, 저리뛰며 交際를 해야하고, 소매자락 밑을 살피고, 낮을 붉히면서 이것은 마치 구걸이 아니겠니.

審美感은 태어날때 잊어버리고 나온 建築主의 俗物根性 비위에 맞춰야하고, 設計費를 흥정해야하는 숙스러운.

한날 프로젝트로서 끝나는, 流産에 거듭되는 流産.

이것을 보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快心の 作品이 果然 몇개나 있을까.

그리고 果然 하루의 몇 時間을 製図板에 마주앉아, 構想에 몰두할 수 있을까. 쏟아져 나오는 책들은 또 언제 살펴보며 생각할 時間은.

그저 時間에는 길이 뿐이며, 폭이 없다는것이 한스럽다. 역시 늙은 탓일까.

이것이 現實이 아닌가 하는 思考는 아주 危險한 함정이다. 모든 矛盾된 것을 現實이라는 表現 밑에 감춰버리는 習性은 영영 헤어날길 없는 奈落속에 빠지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렵지 않다. 現實과는 더러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孤高하게 살아가는 재미 또한 나쁘지 않다.

두려운 것은, 한동안 날카롭다고 스스로 自負했던 感性이 想像力이 創造의 센스가 무디어져가는것이다.

파도 소리가 그리워 하루종일 바닷가에 섰더니, 물결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고 바다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격이다. 이것은 나이탓이 아니다.

끊임없어야 하는 建築家로서의 訓練에 게으른 탓이며 스텝프로 빠진 것이다.

이럴때 만들어진것은 매내리춤이다.

내가 나의 過去의 것을 나 스스로 모방하는 것이니, 이것은 建築에 대한 모욕이며 나 自信에 대한 死刑宣告다最近에와서 나는 이 구렁이에 빠진것을 느낀다. 이럴때 가장 좋은것은 아무걱정없이 쫓겨난 두달 동안 外國바람이나 쏘이는것인줄 알고있기는 하지만…….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感性이 다시 살아나오기를.

C君, 建築家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製圖板위, 원종이에 마주앉아 끄적 끄적. 그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리해 보고, 저리해 보고 그러나 역시 마음에 안든다. 그럴때는 연필을 켜켜치고 바람이나 쏘이던가, 딴 일을 하는 등 머리를 식히고 잊어버린다. 몇월 후 다시 製圖板에 마주 앉는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없이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이것은 부르노 타우트의 建築藝術論에서 읽은 이야기다.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미단 建築의 構想뿐이겠다.

더욱 修業을 쌓아 힘이 몸에 가득할 때를 기다려 한 建築家로서 멋있게 獨立해야 한다.

포도주는 香氣롭도록, 오랫동안 地下室에 묵히고, 뱃사람들은 밀물이 灣에 가득차고 順風이 이어나가기를 기다려 出帆한다. 그리고 월은, 半月처럼 험하게 구부렸을때 살은 멀리 나간다.

「建築은 五十부터」라는 르·콜부제의 말에 나는 큰 慰安을 받는다. 그리고보면, 落水菴은 라이트의 六十餘才의 作品이고, 콜부제가 “몽상 敎會堂”을 손대것은 六十餘才때다. 초조해지는 마음을 나는 이 두 先賢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복돋지만 果然 그들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疑問스럽거니와 이 보람도 그들처럼 죽을때까지 創造의 情熱을 붙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부버」라는 哲學者였던가. 人生은 만남이라고 한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서로 影響을 끼치면서 그들의 人生을 수놓는다. 나의 가장 큰 만남은 卍利夫人이었던가. 그가 大學生때, 친구에게 쓴 글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神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賦與했다고 생각한다. 神이 나에게 준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發見하고 그것을 힘껏 發揮해야겠다.

神이 큐리夫人에게 준것은 科學者의 길이다라고 그는 믿었다.

安壽吉氏의 옛날 短篇, 「第三人間型」의 女主人公은 數億의 精子 中에 自己가 선택되어 태어난것에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看護員으로 六・二五動亂에 뛰어드는 줄거리가 그려져 있다使命感이라고 까지 거창하게 생각하고, 悲壯한 覺悟로 살것까지는 없드레도 석어도 내가 이 世上에 태어났다는 것에 어떤 뜻이 있다고 自覺하고 사는 人生은 얼마나 몇몇한가.

오직 微笑짓기 위해 산다고 읊은 詩人이 생각한다. 얼마나 작은 所望,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所望인가.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 七, 八年前일이다. 역시 책을 통해서 그는 美國의 이름없는 建築家로 Lowcost house를 設計하고, 실제로 지어 놓은 것이 紹介됐는데 그의 說明中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美國의 建築家들은, 收益이 좋은 큰 建築만을 設計하여 投資家의 노예로 轉落했고 아무도 低所得層의 집은 돌보지 않는다.」고 그가 自己의 作品을 만들게 된 動機를 엿볼 수 있다.

나는 한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C君, 君은 어떤 만남이 있었나. 또 앞으로 어떤 만남이 君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만남중에서 아름다운것, 高貴한 것, 보람있는것들을 스승히 간직하고 키워나가기를.

君이 걸어가는 오솔길에 세개의 주머니가 떨어져있어 돈과 權力과 使命의 세 주머니가, 어느 것을 잡겠는가.

우리들 모두 確實히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잊은것이 있어.
人生은 한번 밖에 없다는 것.

C君, 이제는 펜을 놓아야 할 때가 되었네. 한 十年후에 다시 펜을 잡기로 하고, 그때 五十代에 무엇을 느낄까.

너하나 나하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金 珖 燮 「저녁에」에서

人間이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을 돌려 人間自身을 보고 따라서 肉眼으로 볼 수 있는 世界에로 관찰의 눈을 옮겼을 때 이미 環境의 중요성은 인식된다.

한 사람의 價值觀, 態度, 意見, 性格 및 行動의 形成이 環境에 의하여 되며 이런 점에서 環境과 人間은 함수관계에 있다.

物理的 環境, 人間的 環境, 흔히 우리가 말하는 物量的인 것과 기타 구름, 나무, 폭풍, 땅위의 動物들과 같은 문 밖의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背景이나 資料가 되는 自然이란 점에 대해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性質 즉 意圖, 感情의 본질, 혹은 道具가 지니고 있는 本質 까지도 物理的 環境에 들며 地理的 位置, 氣候 등등의 自然的 與件을 의미하며 自然科學의 범주에 속한다.

直接 間接의 영향을 미치는 與件으로서의 人間을 말하는 사람들의 活動을 포함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人間環境이다.

人間環境 및 삶의 過程이 진행되는 장소를 가리켜 生活空間이라면 어떠한 生活空間 속에 살아왔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人間 에게는 중요하다.

社會란 사람들의 集合體이다.

옛날의 社會는 農本的이며 폐쇄된 社會였으나 점점 사람들이 都市로 모여들어 開放된 産業社會를 형성하고 있다.

文化란 社會를 유지하고 관장하는 機能을 가진 精神的 地盤이라고 한다면, 이 地盤이 없거나 弱하면 社會자체가 유지하고 存続될 수 없지 않을까?

그러기에 社會, 人間, 經濟, 政治의 모든 발전에는 文化의 발전이란 결코 무시 될 수 없는 意味가 된다.

文化는 사람들의 精神的 자세나 知覺의 형태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文化는 일종의 風土이며 社會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간다. 지역마다 다르며 時代와 세대에 따라 內容이 달라져 간다.

社會는 「틀」이요, 文化는 그 모형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요, 정신적인 바탕이라면 社會와 文化的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不一致現象은 새로운 非正常的 風土를 형성하게 된다.

집의 機能만을 주로 보아서 價格과 美的인 面을 보아 집은 그대로 것은 制限된 좁은 범위의 의미, 반면에 집을 짓기 전에 먼저 自然環境은 물론 人間環境을 세밀히 조사 검토한 후에 집의 設計가 가능하다는

즉 環境은 住生活을 이끌어 준다는 넓은 범위의 意味. 그리고 또 이보다도 더 넓은 범위의 意味.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

사회적 동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혼자서는 못 살리라

환경, 즉 나쁜의미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소수가 집단을 망치는 수가 있다.

소수는 집단을 언제나 구원하지는 못한다.

집단은 소수를 구원한다.

社會는 都市化와 人口의 증가와 함께 家庭이 小家族 中心으로 變하면서 關係의 形態가 붕괴되고 自我意識을 상실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군중이 들끓는 社會로 되지 않을까?

어떻게 自我를 찾을까?

무엇을 위한 삶을 어떻게 가질까?

人間의 領域과 주위의 「세계」를 規定하는 수단은 비약적으로 확장되어 가며 그것은 종래의 建築의 觀念을 훨씬 능가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環境이며 建築으로 된다.

人間은 人工的으로 여러가지 形態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建築이다. 人間은 肉體的인 領域과 精神的인 領域을 끝없이 변형하며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훨씬 광범위한 意味로서의 「環境」을 規定해 간다.

建築은

心理的인 狀態를 調和시키는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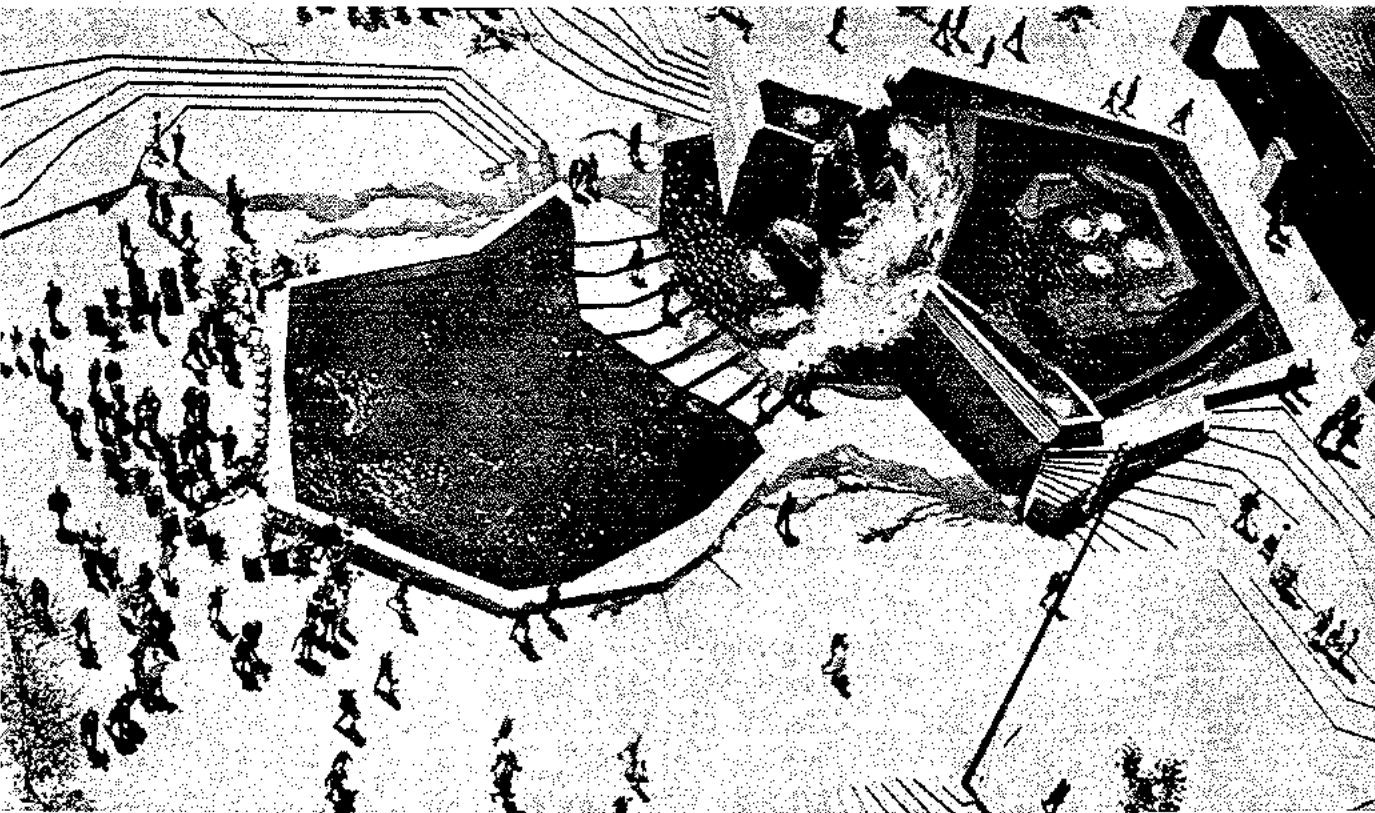
人間을 위한 심볼이며 紀念碑이며, 기호이며 表現이다.

人間을 保護하는 집이다.

建築은 지난 時代의 대난하 수가 적은 한정된 수단과는 반대로 지금이야 말로 무수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空間의 質이나 心理的, 生理的 要求를 만족하는데 힘을 쓸 수도 있고 建築의 建設過程에의 또 하나의 연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참된 建築은 그 수단의 領域을 확장하는 時代이며 建築 외의 많은 分野가 건축에 침투되어가고 있다.

역시 建築은 綜合이요, 調和라는 말에 수궁이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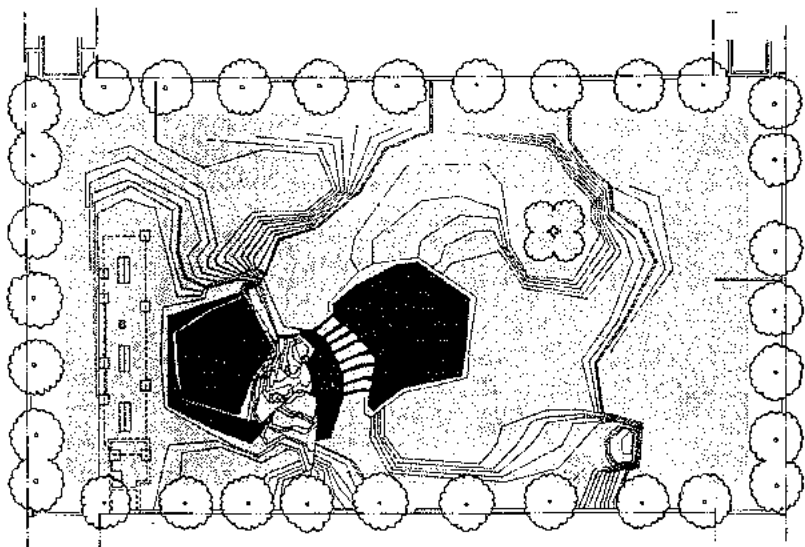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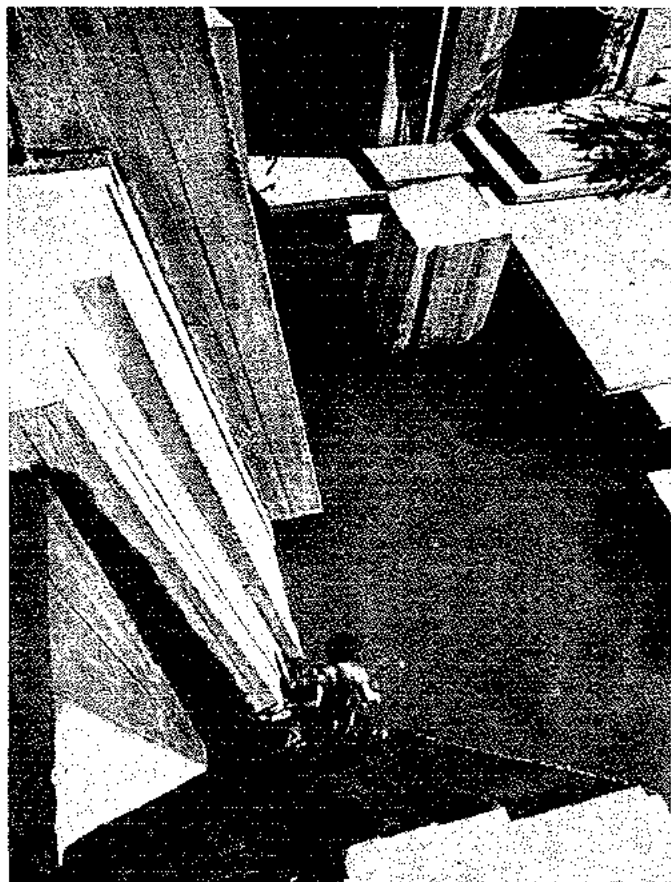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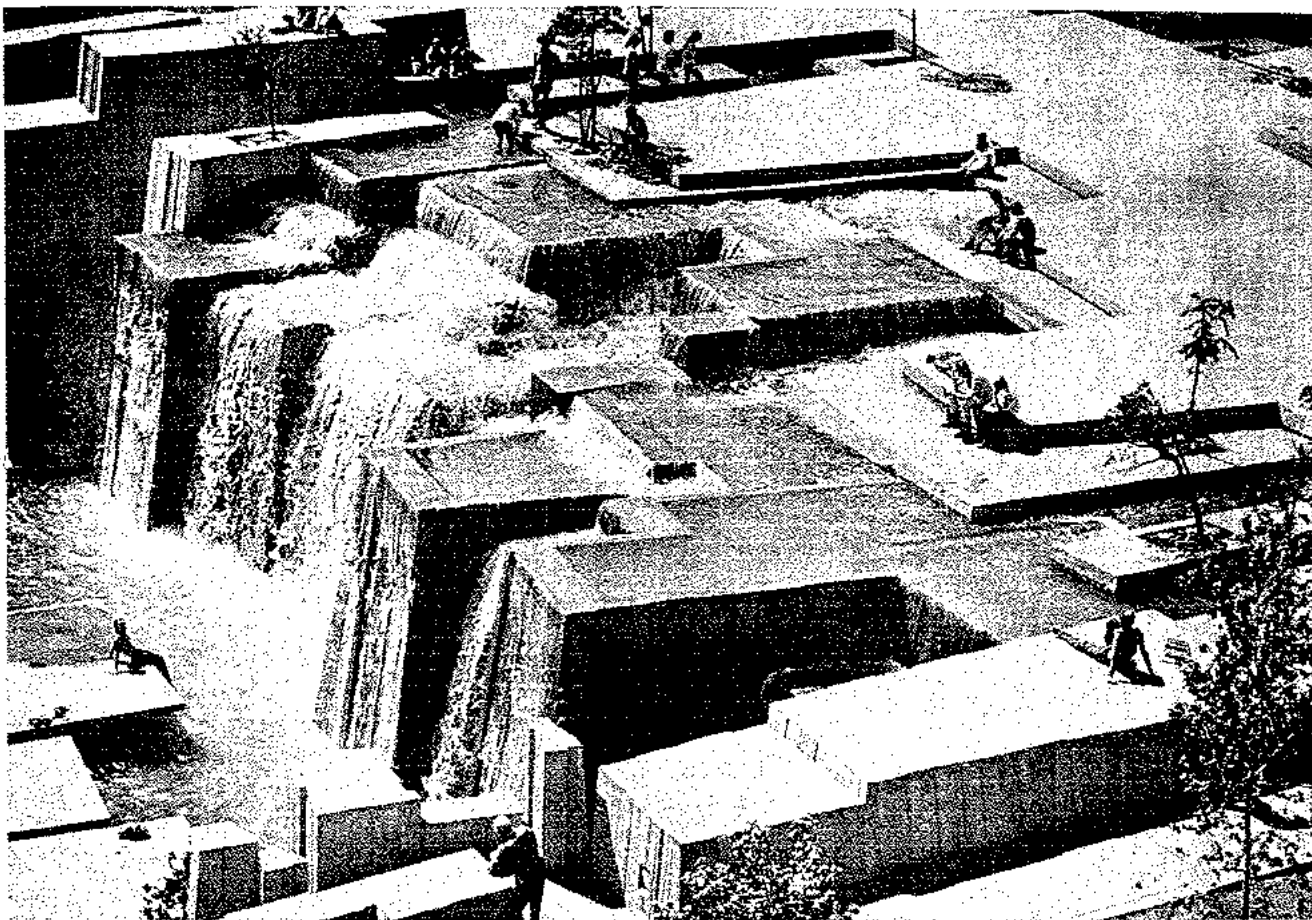
海外建築 (美国의 広場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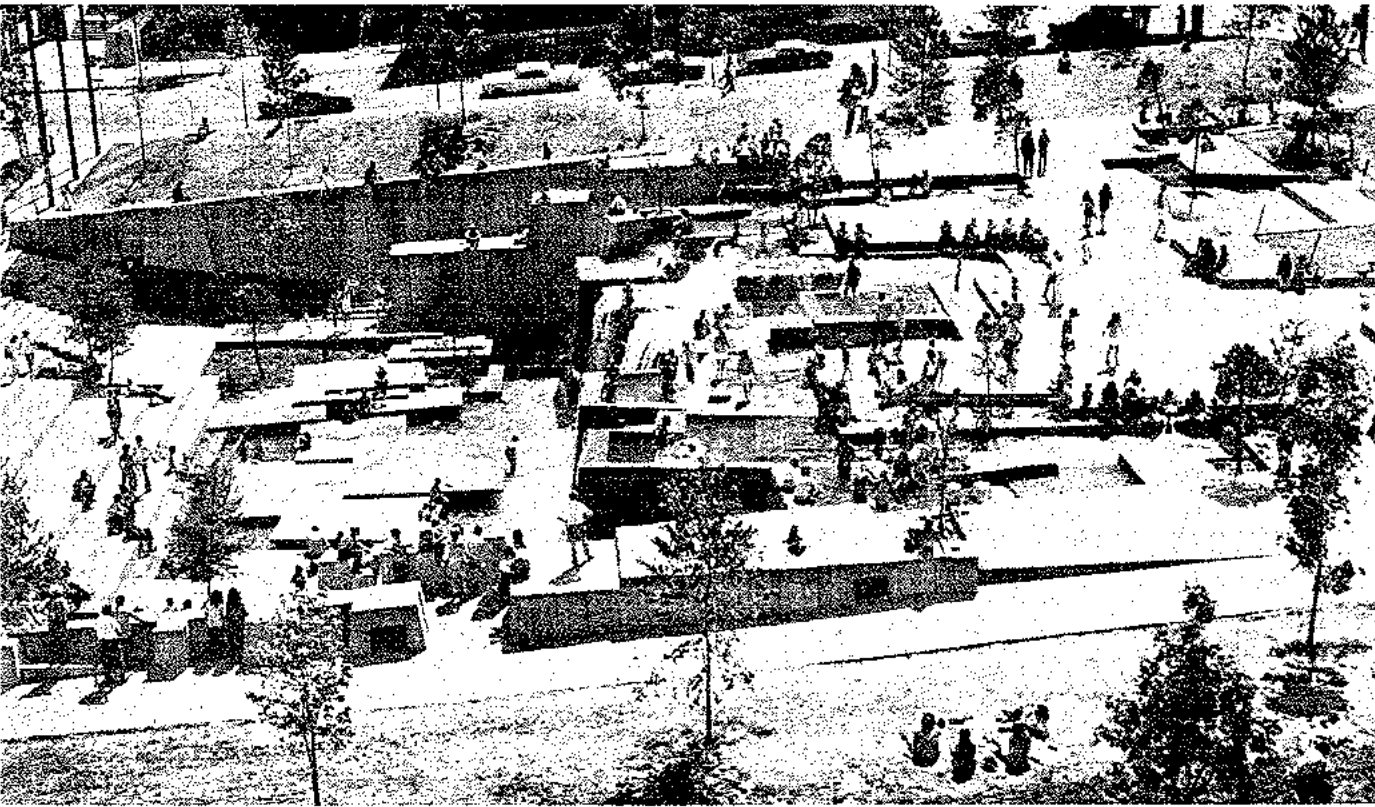
PORTLAND 센터—Lovejoy 광장

위치: 오레곤주 포트랜드
 설계: SOM
 조경: Lawrence Halprin

1966년에 포트랜드의 서쪽 일부의 스카프 지구와工場지대를 再開發하여 SOM에서 건설했다. 콘크리트로 만든 바위위로 넘쳐 흐르는 물은 조그마한 산과 협곡으로 떨어진다. 広場 전체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으로 形成되어 있다. 중소리가 광장에 울려 주위 주민들인 어른, 어린이 모두 즐겁게 놀 수 있는 광장이다.







PORTLAND센터—Forecourt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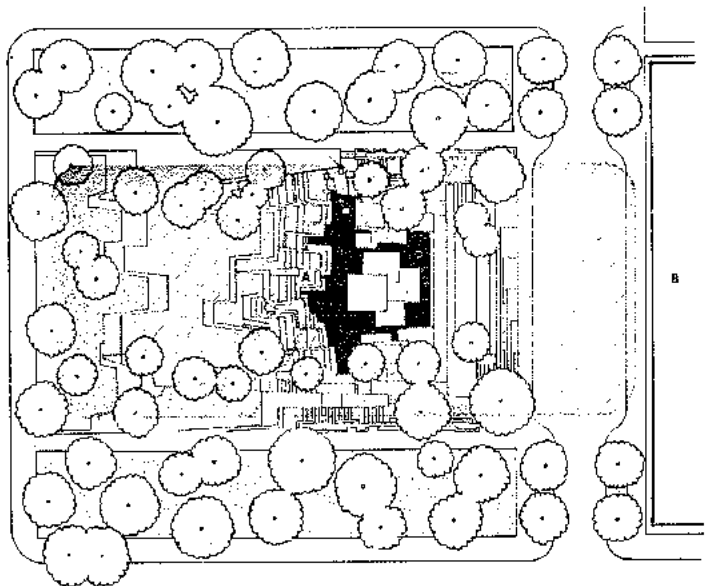
위치 : 오레곤주 포트랜드

설계 : SOM

조경 : Lawrence Halprin

Lovejoy광장이 주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듣자, 市에서 로렌스 할프린에게 第2의 水의 広場을 건설할 것을 의뢰하여 1970년에 완성했다.

물소리, 어린이 소리, 바람소리가 합쳐서 한개의 자연을 구성하여 그 자연속에 人間이 참여하여 도시의 민감한 일을 전부 깎아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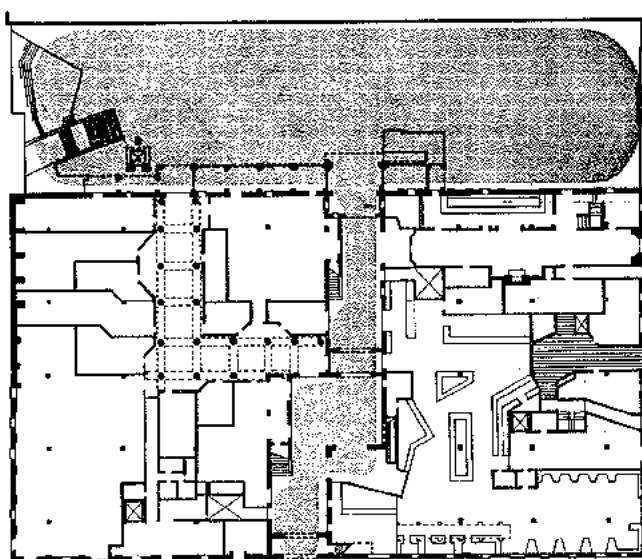
THE CANNERY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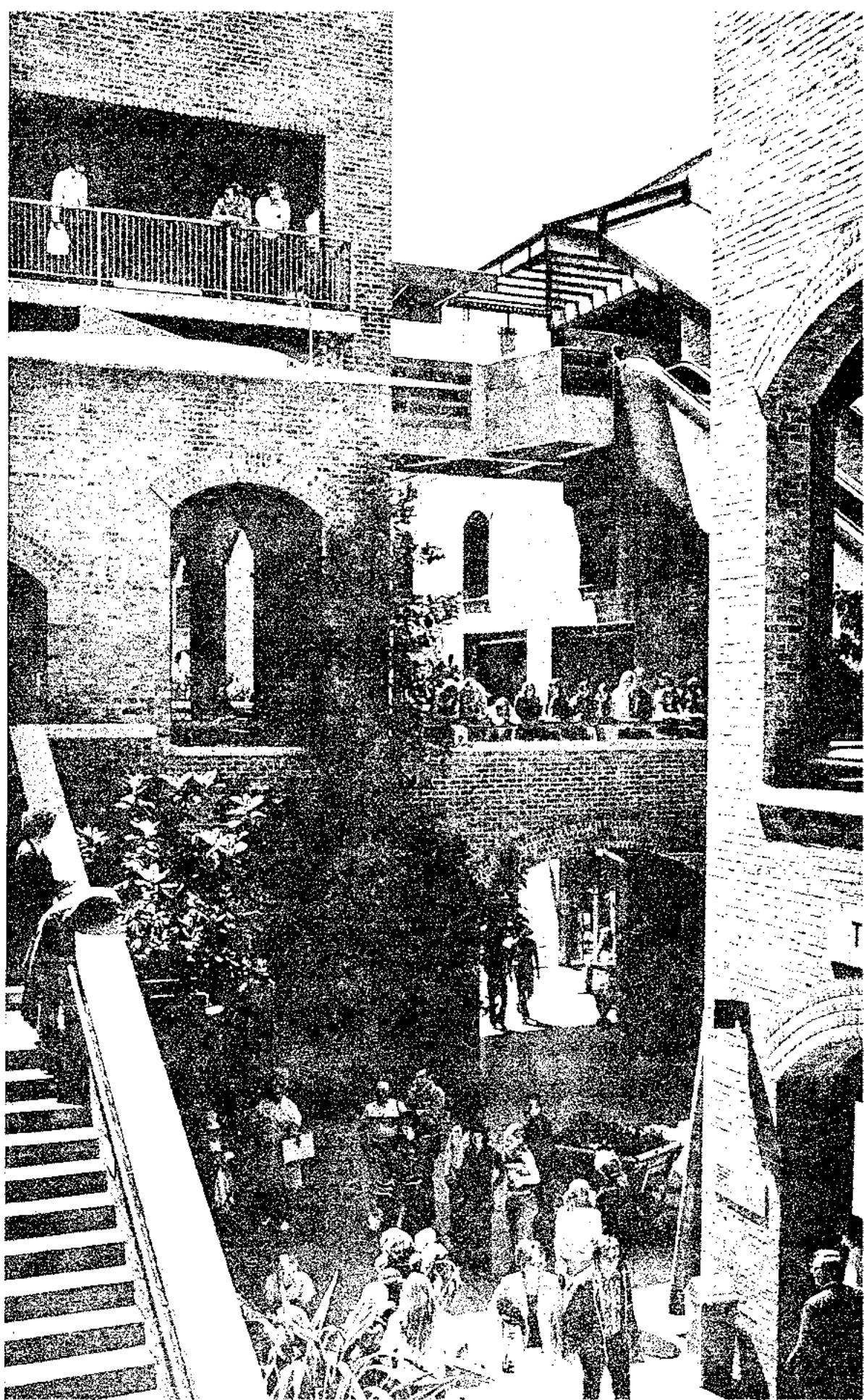
위치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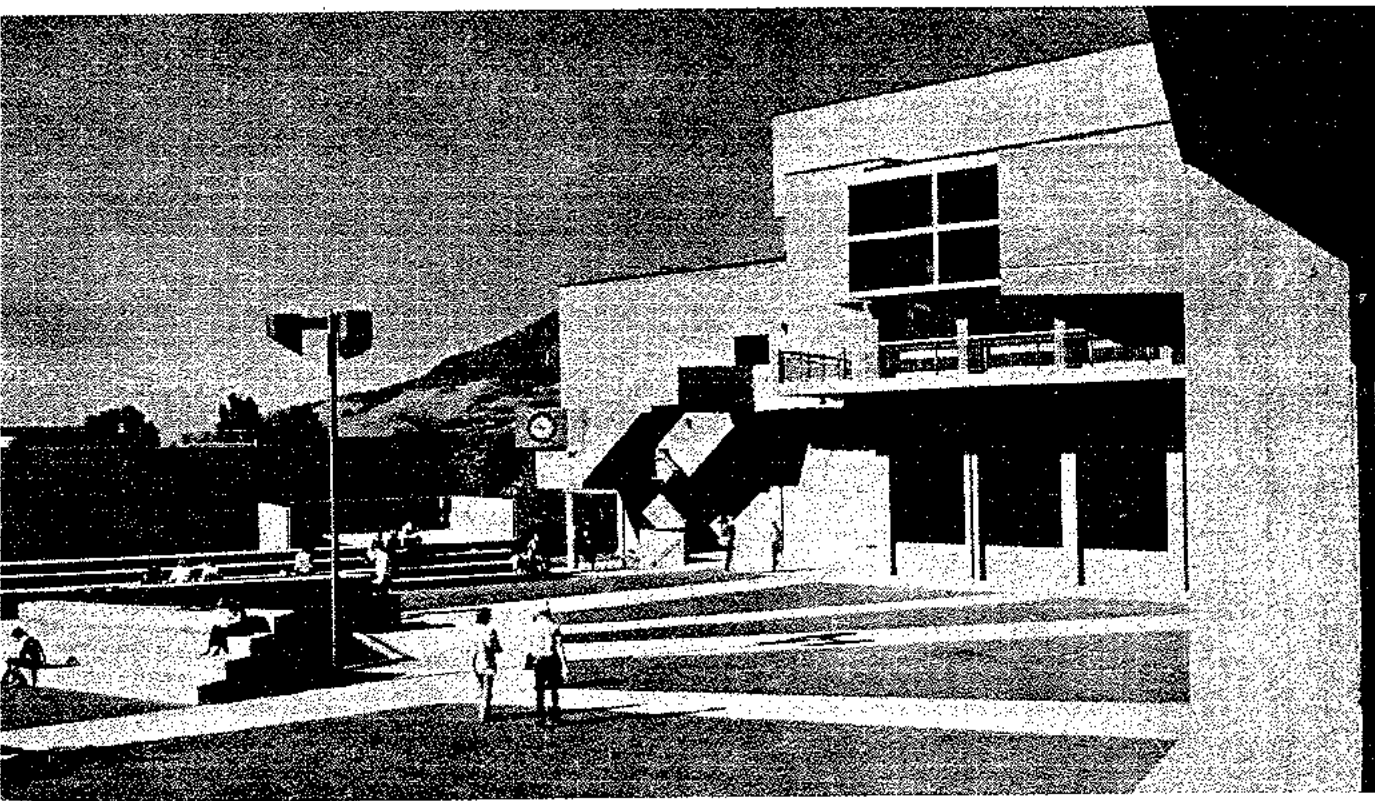
건축 : E. H. Dodge

조경 : Thomas Church

1906년 샌프란시스코大火災에 타고 남은工場建물을 外部는 現存시키고 内部를 再構成했다. 원래 이곳은 土産品이나 특수품을 파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고로 건물사이의 발코니로 연결, 남하의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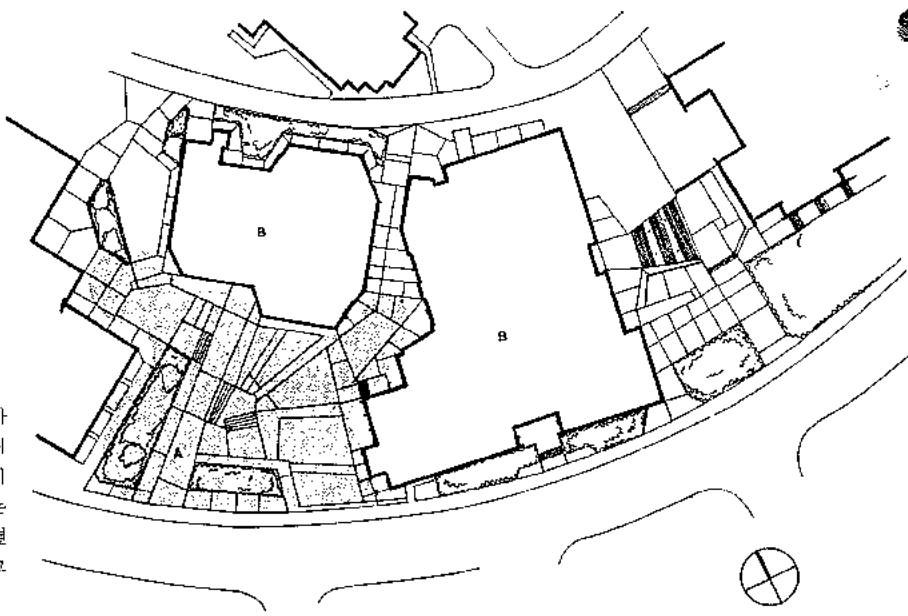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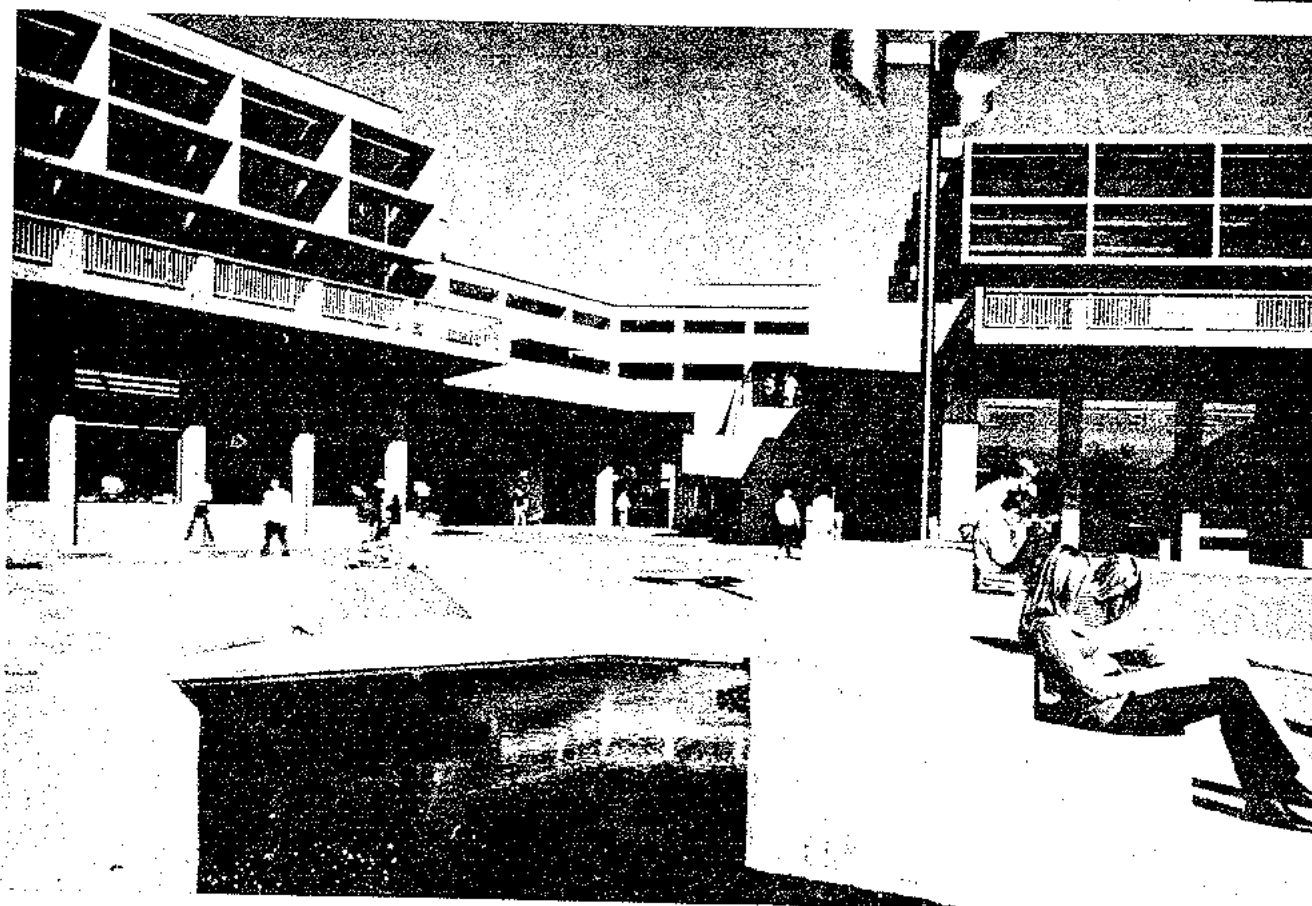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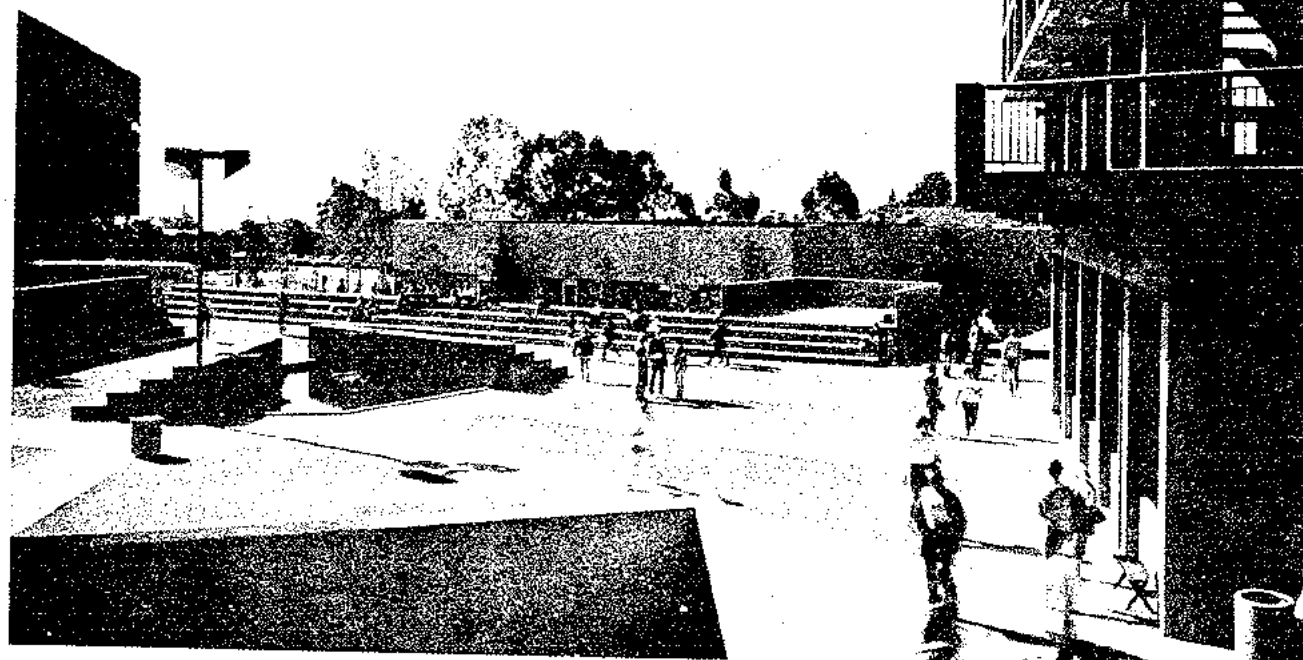
캘리포니아州立 工科大学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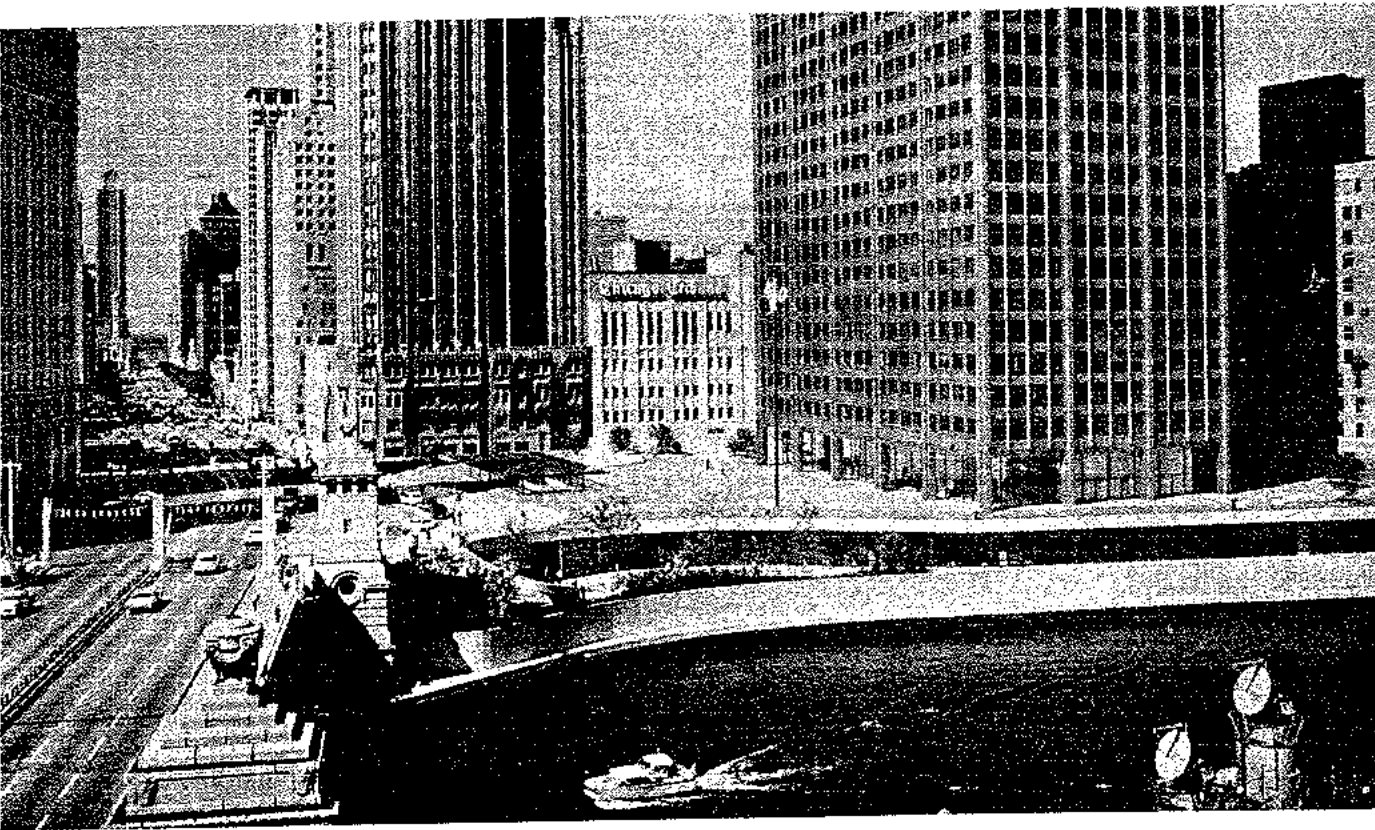
위치 : 캘리포니아주 San Luis Obispo
 건축 : E. H. Dodge
 조경 : Lawrence Halprin

A - 물
 B - 광장



캘리포니아 州立工大의 校舍群의 한가
 운데 學生센터가 있고 이學生센터와 강의
 실을 연결하는 곳이 이廣場이다. 휴게시
 간에 학생들은 廣場 중앙에서 내려뜨리는
 햇빛을 즐기며 서로 담소하고, 독서에 열
 중하는 학생활동에 유익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71년에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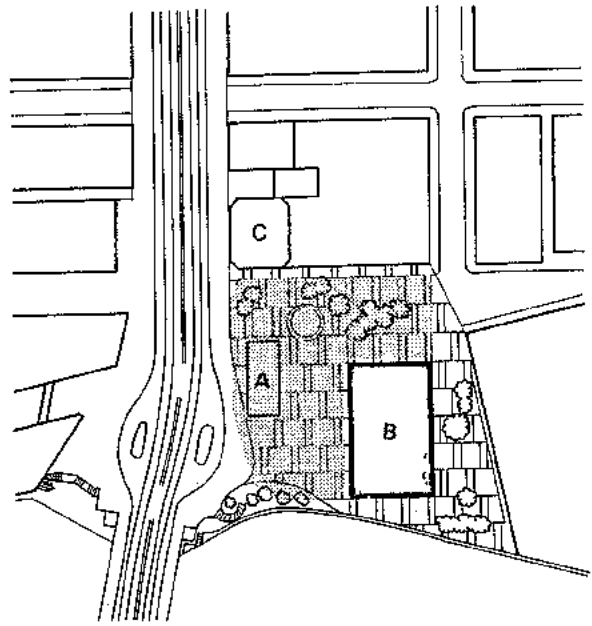




PIONEER 광장

위치: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건축: SOM
 조경: SOM

A - Kiosk
 B - 에쿼티빌딩
 C - 시카고트리뷴



시카고 트리뷴신문사와 35층의 에쿼티빌딩에 인접해서 시카고강으로 연계를여가는 광장으로 시카고 최대의 광장이다. 1964년 완성.

建築法規 問題選 ⑤

韓 鼎 燮

(韓國住宅銀行 技術部長)

圖Ⅰ 다음 記述中 建築法規上 옳은 것에는 ○ 표를, 틀리는 것에는 × 표를 하라.

- 1) 屋內部分의 내장을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 특수건축물의 居室과 屋室로부터 地上에 통하는 주된 복도의 마감 재료의 기준은 다르다.
- 2) 극장 영화관등은 客室바닥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람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 3) 5층 이상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를 넘는 건축물은 모든 층의 居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 4) 5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 2층 이하의층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층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및 벽 또는 甲種防火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5) 방화벽은 벽돌조로 하여서는 안된다.
- 6) 한 건축물에 2개 이상의 피난층이 있을수 있다.
- 7) 직통계단은 木造로 하여서는 안된다.

8) 地上 5층 이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9) 피난계단은 屋內에서 露台 또는 부속실을 통해서 계단실에 통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10) 백화점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어서 피난계단에 통하는 出入口의 폭의 합계는 그 피난층 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直上層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對해 一定한 비율로 규제받는다.

圖Ⅱ. 다음 各問의 記述中 建築法規上 옳은 것 하나를 골라 ○ 표를 하라.

- 1) 木造건축물의 방화구획의 기준 연면적은
 - a) 500m²
 - b) 1,000m²
 - c) 1,500m²
 - d) 2,000m²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방화

구획의 기준 연면적은

- a) 500m²
- b) 1,000m²
- c) 1,500m²
- d) 2,000m²

3) 11층 이상의 층에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로 하였을 경우 방화구획의 기준 바닥면적은

- a) 100m²
- b) 200m²
- c) 300m²
- d) 500m²

4) 방화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開口部の 폭 및 높이의 최대한도는

- a) 1.8m
- b) 2m
- c) 2.5m
- d) 3m

5)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영화관의 최소 객석 바닥면적은

- a) 100m²
- b) 200m²
- c) 300m²
- d) 400m²

6) 2층을 病院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병원용에 쓰이는 최소 바닥면적은

- a) 200m²
- b) 300m²
- c) 400m²
- d) 500m²

7) 건축면적이 300m²를 넘는 건축물의 木造지붕틀에 설치해야 하는 내화구조 또는 兩面을 방화구조로 한 隔壁의 도리 방향의 최대 간격은

- a) 6m
- b) 9m
- c) 12m
- d) 15m

8) 굴뚝이 지붕면으로부터 屋上으로 돌출하여야 하는 최소 수직거리는

- a) 60cm
- b) 80cm
- c) 90cm
- d) 100cm

9) 壁付난로의 굴뚝에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굴뚝 연도의 최대 굴곡도는

- a) 100°
- b) 120°
- c) 130°
- d) 150°

10) 中学校의 학생용 片복도의 최소폭은

- a) 1.5m
- b) 1.8m
- c) 2.0m
- d) 2.3m

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4층 病院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 지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최대 보행거리는

- a) 30m
- b) 40m
- c) 50m
- d) 60m

12) 屋外 직통계단을 들림계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건축물의 최저 층수는

- a) 4층
- b) 5층
- c) 6층
- d) 7층

13) 피난층 이외의 층의 용도 및 그 바닥면적으로 해서 2箇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 a) 영화관
- b) 바닥면적이 50m²를 넘는 병원
- c) 바닥면적이 100m²를 넘는 호텔
- d) 바닥면적이 120m²를 넘는 事務室

14) 4층 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5층 이상의 백화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최소 기준은

- a) 1,000m²
- b) 2,000m²
- c) 3,000m²
- d) 4,000m²

15) 屋外 피난계단이 그 계단에 통하는 出入口 이외의 일반 開口部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최소거리는

- a) 1m
- b) 2m
- c) 3m
- d) 4m

16) 屋上広場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난간벽 또는 금속망의 최저 높이는

- a) 1.0m
- b) 1.1m
- c) 1.2m
- d) 1.3m

17) 屋外로의 出口 또는 옥외피난계단 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는 대지안의 통로의 최소폭은

- a) 1.5m
- b) 2.0m
- c) 2.5m
- d) 3.0m

18) 주요구조부가 木造이고 연면적이 2,000m²인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의 최소 통로폭은

- a) 1.5m
- b) 2m
- c) 2.5m
- d) 3.0m

19) 16층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기준면적은

- a) 연면적의 $\frac{1}{10}$ 이상
- b) 연면적의 $\frac{3}{10}$ 이상
- c) 1층 바닥면적 이상
- d) 1층 바닥면적의 2배 이상

20) 지하층의 방화구획 기준 바닥면적은

- a) 200m²
- b) 300m²
- c) 500m²
- d) 600m²

正答

問 I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問 II

- 1) b 2) c 3) b 4) c
5) b 6) c 7) c 8) c
9) b 10) b 11) d 12) b
13) d 14) c 15) b 16) b
17) a 18) a 19) d 20) c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재무부령제998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3년12월28일

재무부장관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
률”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한
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특수건물 시가결정방법) ①법 제8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별
표의 특수건물 시가 결정기준액표(이하 “기준
액표”라 한다)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액표에 의하여 특수건
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
축설계의요령, 건축자재의 우열·시공방법의 차등,
지역차·용도·사용기간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특수건물
의 시가를 가감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 당
사자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장관
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
장관은 특수건물시가조사회(이하 “조사회”라 한
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④조사회는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

사 1인

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전문

가 1인

다. 한국감정원 원장이 추천하는 감정전문가

1인

라. 기타 보험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자 2인

⑤조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
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건물시가(평당가액) 결정기준액표

급별	요	상	구	조	별	사 부 소			
						10층이상 연 면적 5000 m ² 이상	6층이상 10 층 이하 연 면적 1000m ² 이상 5000m ² 이하	6층이하 1000m ² 이하	6천이하 1000m ² 이하
1	다음 각호의 구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붕마막 기둥 및 층계가 모 두 내화구조이며 처마, 차양, 물땀, 그 밖의 건물의 돌출부 및 외벽의 보 는 개구부가 불연재로로 구성되거나 피복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1)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85,300	154,200	1'3,500				
		2) 철골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3) 철근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4) 철근콘크리트 부르크조 벽두께 20cm 이상							
		5) 벽돌조, 석조, 무근콘크리트조 벽두께 30cm 이상							
2	다음 각호의 구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붕은 불연재로이고 처마, 차양, 물땀 및 그밖의 건물의 돌출부 가 불연재로로 구성되거나 피복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것	1)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68,200	140,000	104,000				
		2) 철골 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52,900	127,300	94,500				
		3) 철근 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39,000	115,700	85,900				
		4) 철근콘크리트 부르크조 벽두께 15cm 이상			75,000				
		5) 벽돌조, 석조, 무근 콘크리트조 벽두께 20cm 이상			75,000				
3	다음 각호의 구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붕을 불연재로로 이온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1) 철골 금속판 불임조			70,000				
		2) 철골, 석면판, 불임조 철골, 유리 불임조			70,000				
		3) 콘크리트조, 벽돌조, 부르크조			70,000				
		4) 벽돌 불임조			65,000				
		5) 흙벽조 도후 3.5cm 이상			60,000				
		6) 조립식콘크리트조 경량콘크리트조			70,000				
		7) 2급 구조 건물로서 소정의 규정에 미달하는 것			60,000				
4	건물의 구조와 조건이 3급에 미달하 는 것. 다만 지붕을 가연재로서 이 은 것은 지붕 환층을 부가한다.				60'000				

[별표 2]

호			아			데		시	
철대수 300 이상 10층 이상	철대수 150 이상 300이 하 6층~10 층	철대수 150 이하 저상 6층	1세대당 전 면적 100m ² 이 상 1층당10 세대 이상	1세대당 전 면적 50m ² 이 상 1층당10 세대 이상	1세대당 전 면적 50m ² 이 하 1층당10 세대 이상	5층 이상 면적 5000m ² 이상	5층 이하 면적 5000m ² 이하	3층 이상 면적 10,000 m ² 이상	3층 이하 면적 10,000 m ² 이하
230,300	202,800	140,000	200,300	158,600	94,400	199,700	157,100	121,200	99,400
211,100	171,600	128,400	169,500	145,400	86,600	183,000	144,000	110,100	91,100
191,900	156,000	116,700	154,100	132,200	78,700	166,400	130,900	101,000	82,800
		95,000			65,000		105,000	80,000	65,000
		90,000			60,000		100,000	75,000	60,000
197,200	168,400	126,000	166,400	142,800	113,300	179,800	141,400	109,100	89,400
190,000	154,400	115,500	152,600	130,900	103,800	164,800	129,600	100,000	82,000
172,700	140,400	105,000	138,700	119,000	94,400	149,800	117,300	90,900	74,500
		90,000			85,000		100,000	80,000	70,000
		85,000			80,000		95,000	75,000	65,000
		80,000			75,000		90,000		60,000
		80,000			75,000		90,000		60,000
		80,000			75,000		90,000		60,000
		75,000			70,000		85,000		55,000
		70,000			65,000		80,000		50,000
		80,000			75,000		90,000		60,000
		70,000			65,000		70,000		60,000
		70,000			65,000		70,000		60,000

[별표 3]

별 원			체육관	극장	강당	요리점	학 교		방송국	카바레·박	촬영소
10층이상 5,000㎡ 이 상	3~10층 1,500~ 5,000㎡	3층이하 1,500㎡ 이 하					5층이상 3,000㎡ 이 상	5층이하 3,000㎡ 이 하			
216,500	167,000	116,400	139,400	310,000	143,200	144,100	139,600	110,400		148,300	253,000
198,400	153,100	107,600	127,800	284,200	131,200	132,100	127,900	101,200		136,000	231,900
180,400	139,200	97,800	116,200	258,400	119,300	120,100	116,300	92,000		123,600	219,800
		80,000	95,000		95,000	100,000	95,000	80,000		100,000	170,000
		75,000	90,000		90,000	95,000	90,000	75,000		95,000	150,000
194,900	150,400	105,600	125,500	279,100	128,900	129,700	125,600	99,400		133,400	227,600
178,600	137,800	96,800	115,100	255,900	118,100	118,900	115,200	91,100		122,300	208,700
162,400	125,300	88,000	104,600	232,600	107,400	108,100	104,700	82,800		111,200	189,700
140,000	110,000	39,000	95,000		100,000	100,000	95,000	80,000		100,000	170,000
135,000	105,000	75,000	90,000		90,000	95,000	90,000	75,000		95,000	150,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95,000	65,000	80,000		80,000	85,000	80,000	65,000		85,000	140,000
	90,000	60,000	75,000		70,000	75,000	70,000	60,000		80,000	130,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80,000		65,000		65,000	70,000	65,000	60,000		70,000	120,000
	80,000		65,000		65,000	70,000	65,000	60,000		70,000	120,000

74년도 政府勞賃單價基準

職 種	單 價
◇ 建設工事部門	
建 築 木 工	1,510
동발木工(터널)	1,330
飛 階 工	1,280
벽돌 工	1,200
벽돌(부릭)製作工	1,120
본 크 리 트 工	920
内 裝 工	1,280
샷 슈 工	1,330
돛 자 리 工	1,130
연 마 공 (建築)	1,130
配 管 工	1,300
매 장 공	1,240
鋼 板 工	1,280
드 릴 工	1,280
保 安 工	1,200
형 틀 木 工	1,390
特殊飛階工	1,780
割 石 工	1,280
타 일 工	1,330
蓋 瓦 工	1,240
防 水 工	1,220
塗 裝 工	1,170
스 래 트 工	1,130
계 령 공	980
鉄 筋 工	1,230
鉄 工	1,230
鉄 骨 工	1,370
板 金 工	1,350
保 溫 工	1,230
衛 生 工	1,330

職 種	單 價
造 船 木 工	1,630
동 발 工(터널)	890
石 工	1,400
부 립 工	1,160
줄 눈 工	1,110
養 生 工	920
美 匠 工	1,300
도 배 工	1,150
溫 突 工	1,270
연 마 공 (機械)	1,170
鉄 管 工	1,330
製 管 工	1,300
切 断 工	1,200
機 械 仕 上 工	1,500
보 이 라 工	1,400
淨 化 工	1,340
換 氣 工	1,330
감 함 工	2,940
煙 突 工	1,470
測 夫	880
堯 破 工	1,050
鋪 裝 工	1,170
軌 道 工 (一般)	1,140
造 材 人 夫	800
造 園 工	1,210
低 高 圧 外 線 工	1,980
低 高 圧 內 線 工	1,620
低 高 圧 設 備 工	1,620
低 高 圧 케 이 블 工	1,980
築 炉 工	1,980

冷 凍 工	1,450
우 물 工	1,150
坑 夫	1,250
施工測量技士	1,950
검 조 부	1,460
火藥取扱工	1,360
布 設 工	1,260
보 선 공	1,140
伐採指導人夫	960
塗装工(鐵道車輛)	1,210
通 信外線工	1,980
“ 内線工	1,620
“ 設備工	1,620
“ 케이블工	1,980
샷 다 工	1,330
潜水夫(4人組)	11,700
煙突掃除夫	1,180
施工測量助手	880
보링工(地質調査)	1,580
鑒 岩 工	1,160
軌道工(鐵道)	1,400
伐 木 夫	800
營 林 技 士	1,350
特別高圧外線工	3,300
“ 内線工	3,070
“ 設備工	3,070
“ 케이블工	3,070
鐵道信号工	2,130
◇ 其他共通部門	
特 別 人 夫	970
목 도	1,240
女子人夫	530
숙련공의조공	700
重 機 助 手	860
牛馬車(馬夫포함)	2,090
高 級 船 員	1,300
動力 工	1,620
発電所補修工	1,520
無線안테나工	1,930
벨트룸비야作業工	940
“ (女)	620

普 通 人 夫	820
什 長	1,090
끝 손 질 工	880
重機運轉士	1,410
機械運轉士	1,130
牛耕夫(평기포함)	1,910
普 通 船 員	1,040
變 電 工	1,360
配 線 工	1,280
중전기組立工	1,160
機械技術工	1,400
通信機械修理工	1,600
제 도 사	1,150
미 술 사	1,320
製 材 工	1,100
유 리 工	1,090
합 석 工	1,270
酸素카스熔接工	1,350
旋 盤 工	1,370
機 械 工	1,280
回路設計士	1,760
試驗士 1 級	1,750
“ 2 級	1,280
“ 3 級	1,130
“ 4 級	1,020
리 넷 工	1,460
루 팡 工	1,140
현 도 사	1,230
기구설계사	1,720
試驗補助手	680
家 具 工	1,420
바이브레이타工	890
電氣熔接工	1,400
미 데 도 로 공	1,010
運轉士(運搬車)	1,040
整 備 工	1,330
배 (사공 포함)	2,990
船 夫	900
電力機械工	1,540
保安外線工	1,570
機械총組立工	1,440
通信機械工	1,560

本誌 1973年度 總目次

'73. 1 (通卷51号)

新年辭	會長 姜大雄	(2)
防火診斷	洪鵬義	(3)
現代獨逸建築思潮	宋曉求	(7)
歐美紀行(3)	崔昌奎	(30)
農村住宅에서의 作業空間	池 淳	(38)
電氣溫室의 設計와 工事②	朴錫恒	(42)
懸賞有感	俞景哲	(45)
第九回 建築士資格試驗問題(2級)		(46)
改正 建築法 (全文)		(72)
(會員作品)		
年金·아스락會館	李丞雨	(16)
淑明女子大學校(西館)	金仁錫	(20)
濟州教育大學	金漢涉	(24)
東洋高速버스터미널	金奉勲	(26)
住宅	金萬盛	(28)
(海外作品)		
Benjamin Thompson과 그의 作品		(55)
協會記事		(52)
建築界動靜		(70)

'73. 2 (通卷 52号)

建築界動靜		(2)
協會記事		(8)
鋼構造의 耐火性	金亨杰	(10)
建築家의 社會觀	尹太鉉	(16)
'73年度 建築展望	金寬豐	(18)
歐美紀行(4)	崔昌奎	(29)
都市計劃에서의 規制와 統制	申東海(記)	(42)
農村住宅計劃의 理想的인 最適規模에 關한 研究	박병건	(66)
(會員作品)		
住宅	金正澈	(20)
住宅	安瑛培	(22)
住宅	李正	(24)
住宅	崔承國	(25)
國民銀行 本店	李伯吉	(26)
農協忠北支部	李軒璵	(28)
(海外作品)		
教會建築		(54)
오스트레일리아建築		(74)

'73. 3 (通卷53号)

協會記事		(3)
建築界動靜		(6)
懸賞設計의 問題點		
●懸賞設計 競技에 따르는 問題點과 우리		
우리 建築士의 자세	金熙泰	(14)
●懸賞設計에 대한 나의 所信	金正澈	(16)

● 우리의 懸賞競技는 이런 길을 걸었다	元正澤	(17)
● 作品과 審査	尹太鉉	(21)
現代教會建築小考	金正澈	(24)
都市計劃에 있어서의 規制 및 統制②	申東海	(40)
콘크리트의 高強度化의 傾向	吳昌熙	(47)
베를린 필하모니 音樂堂	울젠·에더케	(50)
(會員作品)		
別 莊	宋基德	(34)
住宅	洪哲洙	(36)
住宅	俞景哲	(37)
대자호텔	李興秀	(38)

(海外建築) (劇場 建築編)

Iowa 州立大學 講堂		(54)
Helsinki 콘서트 홀		(58)
Mannheim 劇場		(62)
Münster 劇場		(64)
Kassel 劇場		(66)
建築法解説 ①	張泰澤	(67)
消防法		(75)

'73. 4. (通卷 第54号)

協會記事		(2)
建築界動靜		(7)
改正建築法の 問題點	尹定安	(12)
改正建築法에 對한 小考	李文輔	(17)
工事監理 ①	李明煥	(28)
小住宅의 外觀 Design에 對하여	김용팔	(31)
建物計劃에 있어서의 컴퓨터 使用①	이문섭	(35)
(會員作品)		
亞洲大學 佛蘭西 教授 私宅	三止建築	(22)
리틀엔젤스藝術學校	嚴德紋建築	(24)
(海外建築)		
PHILIP JOHNSON과 그의 作品		(51)
建築法 解説 ②	張泰澤	(42)
住宅建設促進法		(67)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69)
倫理規約		(78)
倫理委員會 規程		(79)

'73. 5. (通卷 第55号)

協會記事		(2)
建築界動靜		(8)
市民會館 懸賞設計作品—		
(優秀作) 嚴德紋建築研究所(嚴德紋外 3人)		(12)
(準優秀作) 弘益大學(李天承 外 2人)		(14)
(佳作) 弘益大學(尹道根外 1人)		(35)
(佳作) 嘉殿建築研究所(金 麟外 1人)		(16)
(佳作) 安瑛培建築研究所		(17)
(獎勵作) 高州賜		(18)
() 劉熙俊		(19)
其他, 等外作品		(20)

農村住宅의 熱管理 構造에 따른

計劃設計와 資材開發	李鍾寬	(28)
YOUTH HOSTEL 建築	김용팔	(40)
사라지는 서울의 近代建築①		(45)
工事監理②	李明煥	(48)
建物計劃에 있어서의 컴퓨터 利用②	이문섭	(52)
道具와 環境	俞炳林	(58)
室內裝飾에 관한 色彩	嚴聖寬	(77)
(海外建築 소개)		
RESORT HOTELS	(A R誌에서)	(61)

'73. 6, 7. (通卷 第56号)

第1回 建築人体典		(2)
協會記事		(4)
建築界動靜		(9)
匠師考	趙子淵	(24)
美觀地區設定의 意義와 實際	鄭寅國	(30)
工事監理③	李明煥	(34)
環境의 意味	노응희	(42)
可變風量方式	朴容茂	(45)
새로운 建築施工法	(호주대 사관개공)	(53)
사라지는 서울의 近代建築②		(17)
(會員作品)		
玉山書院	張起仁	(38)
金氏住宅	公日坤	(40)
(海外建築)		
美國의 現代建築		(55)

'73. 8. (通卷 第57号)

協會記事		(2)
建築界動靜		(8)
住居環境와 造景計劃을 위한 要素	張起化	(12)
佛國寺의 基壇		(17)
建築法規 問題選①	한정섭	(26)
建築法 施行令(全文 180條)		(27)

'73. 9. (通卷 第58條)

協會記事		(2)
建築界動靜		(5)
通勤圈域의 擴大	李商淳	(11)
사라지는 서울의 近代建築③		(21)
現代 美國事務所 建物의 流動式 空間環境	배만길	(32)
(會員作品)		
貞陵聖堂	삼정전숙	(18)
第一銀行 城東支店	신 건 숙	(19)
유씨宅	凡信建築	(20)
(國展 大統領賞)		
慶州文化藝術센터	宋明奎 外	(28)
(海外通信)		
濠洲와 시드니 오메라 하우스	유경철	(41)
Pao lo Soleri의 理想都市建設(P/A誌에서)		(48)

建築法規 問題選②	한정섭	(54)
建築法 施行規則		(57)

'73. 10. (通卷 第59号)

協會記事		(2)
建築界動靜		(6)
改正建築法 施行令에 對한 意見	김한섭	(14)
電氣音響設備와 建築設計	최병철	(21)
南山을 喜치는 建築法	金正潔	(38)
工事監理④	李明煥	(42)
理想都市論	崔秉璵	(46)
사라지는 서울의 近代建築④		(9)
(會員作品)		
순복음 중앙교회	안영배	(26)
안양경찰서	김태식	(30)
전북 체육관	(이백익)	(34)
(海外建築)		
美國의 現代建築編		(54)
建築法規 問題選③	한정섭	(74)
住宅建設促進法 施行規則		(76)

'73. 11. (通卷 第60号)

就任辭	新任會長 韓錦鎭	(2)
離任辭	前會長 姜大雄	(3)
新任 任員陣		(4)
第8回 定期總會		(6)
協會記事		(9)
建築界動靜		(12)
建物火災와 消防法	李池然	(13)
消防設備의 構造·性能·管理	崔 進	(17)
農村部落計劃에 先行하는 集住化의 考察	金眞	(28)
民俗에 對한 小考	姜奉辰	(35)
濠洲 및 東南亞紀行①	崔昌奎	(49)
(國際會議 參席記)		
濠洲의 高層建物設計에 關하여	鄭寅國	(39)
(會員作品)		
住宅	三政建築	(22)
住宅	凡信建築	(26)
(海外建築)		
유럽建築		(58)
建築法規 問題選④	한정섭	(76)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改政		(78)

'73. 12. (通卷 第61号)

協會運營方針	李明煥	(2)
協會記事		(3)
通卷 第61号 紀念 住宅特輯		(9)
消防法 施行令		(35)

編輯後記

送旧迎新

謹賀新年

1974

×

×

☆ 會員 여러분, 그리고 讀者 여러분!

새해를 맞아 더욱 貴業과 家庭에 豐盛한 祝福으로 보람찬 甲寅年이
되시기 祈願합니다.

×

×

☆ 지난 한해 동안 本誌를 이만큼이나마 育成 發展시켜 주신 編纂委員
諸氏에게 머리 숙여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新年度에 새로 위촉되신 新任 委員들에게는 그동안 編輯計
劃에 未洽한 點의 補充으로 讀者 여러분들에게 보다 즐거 가깝히하
는 愛誌가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

×

☆ 이번 新年號의 特輯으로 設計事務所의 經營과 稅務에 관한 원고와자
담회를 마련코 그 內容을 公開코져 하였으나 諸般 事情으로 2月號
에 게재키로 되었고 아울러 연재 特輯으로 各國 建築士의 活動 環境
資料 紹介란을 마련하여 매월 1個國씩 日本, 美國 등의 順으로 게
재코자 합니다.

한국 建築士들의 現實과 外國 建築士들의 活動狀況을 비교하므로
서 韓國 建築士들의 보다 높은 社會的 地位가 굳혀지리라 봅니다.

建築士

發行人兼 編輯人 : 韓 昌 鎮

登錄番號 : 第 24-1251 号

登錄日字 : 1967 年 3 月 23 日

通卷 第62号 1974年 1 月 31日 發行

發行所 : 大韓 建築士 協會

서울 特別市中區 太平路 1 街 60-17

☎ (73) 9491, 9492

印刷所 : 高星文化印刷株式會社

(非 賣 品)

三和 蛭石의

轻量 断熱材!

蛭石의 特性

1. 断熱(Insulation)
2. 轻量(Light-Weight)
3. 耐火(Fire-Proof)
4. 吸音(Sound-Proof)
5. 結露防止
6. 防射線遮断(Radio Active-Proof)

生産 品 目

1. 질석골재
2. 질석경량부록(Block)
3. 질석단열보드(Board)
4. 질석보온파이프카바
5. 질석 전착 도장 시공

※ 蛭石 原鉱石의 国内唯一의 輸出業体

■ 최근 납품 및 시공처 ■

● 忠南방직	天井 충전	● 아주대학	옥상 단열 콘크리트 (및 에레코트)
● 태평방직	"	● 수원비행장	경량재
● 일신방직	벽체 충전	● 과학기술학교	옥상 단열 부록
● 한국포리메스텔	옥상 단열 콘크리트	● 직업훈련원	옥상 단열 공사
● 동양섬유	벽체 충전	● 신즈보링장 <명동>	방음경량재
● 대도화섬	"	● 라이프보링장 <동대문>	방음경량재
● AID 반포아파트	질석보드	● 라이온스호텔	경량부력
● IDA 차관 각 학교	옥상 단열 콘크리트	● 프라자호텔	경량부력
● 세미코아 전자 <K-1>	옥상 단열 콘크리트	● 백남호텔	경량부력
● 마산전자	옥상 단열 콘크리트	● 학생아카데미	경량부력 및 단열공사
● 한국낙농	옥상 단열 콘크리트	● 포항종합제철	경량단열공사
● 부산조병항 <철마천장>	옥상 단열 콘크리트		

三和 蛭石工業株式会社

本社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37번지 서광빌딩 1303호 Tel. 23-4612,
22-6559
工場 서울특별시 성동구 풍납동 172번지 代表理事 尹 錫 濟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 9497 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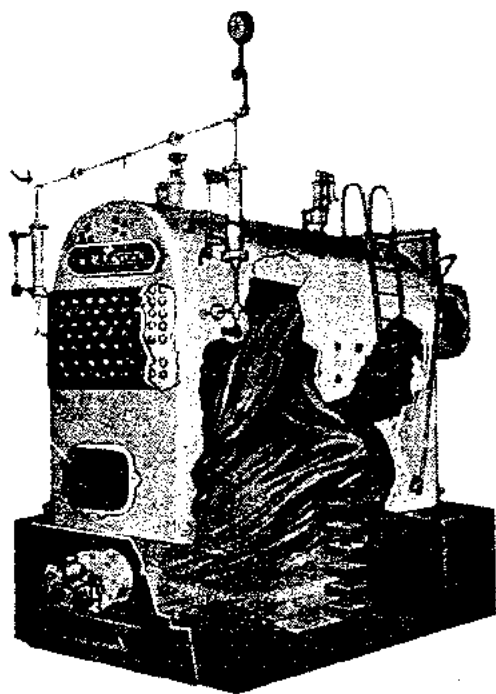
低壓 暖房用으로는 더욱 効率이
좋고 燃料가 현저히 절약됨.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國會議長의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大法院長의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 및 科學技術賞 受賞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銀行
大田皮革 Co.
서울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釜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團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글크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올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삼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業

京畿農産 Co.
廣日별당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별당
江原道庁
韓獨産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4의 1

電話 ④ 1673 ④ 9775-6
(용산구청 앞)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